



7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7 호

(루계 477)



◆◆◆◆◆◆◆◆◆◆

차 례

◆◆◆◆◆◆◆◆◆◆

민족적자족심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4
위대하여라. 우리 수령님	6
어느 하루 밤	7
심장의 고동소리	7
승리로 빛나는 집	8
아껴주신 시간	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광을	9
《나라길시작점》에서	10
백두산고향집앞에서	11
이 세상 하나의 별	11
중강나루터에서	12
은혜로운 사랑넌친 옥류관	13
전우	15
정다운 속삭임	16

승리자들의 추억	17
다리	23
조국을 생각하며	33
날개	38
저 불길은 어디서	46
금강교	46
속보를 두고	47
미래	48
탄광의 당비서	62
석탄산, 너와 함께	62
렬차에서	63
소조원의 꿈	64
세월에 대한 생각	65
《별》	66
어머니의 마음	67
량심선언	68
그 웃음앞에	74
전쟁물소설에서 생활묘사	75
광부의 손	79
안주를 알려거든	80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사람들에게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다.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민족자주의식이 있어야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과 민족적자존심이 발양될수 있으며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싸워나갈수 있다. 민족자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긍지감을 지닐수 없으며 남에게 굴종하게 되고 사대주의에 빠져 머저리로 되고만다. 이렇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지켜낼수 없게 되며 외세에 의하여 노예적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

우리 인민은 수난에 찬 민족사의 갈피들에서 이 쓰라린 교훈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했고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었다.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모든 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주성을 옹호 발양할수 있으며 자기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나갈수 있다. 또한 민족적자존심이 높아야 온갖 예측과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수 있다.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작은 민족일수록 더욱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대매국노들에 의하여 많은 수난을 겪어야 했던 사정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 문제는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40여년간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지상의 과업은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단합하여 외세의 그 어떤 간섭과 지배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온 민족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한데 뭉쳐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물리칠 때

조국통일위업은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 문제가 현시기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일부 사람들속에서 아직도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적인 사상요소가 남아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기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의 필연성과 그 휘황한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일련의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는 높은 혁명정신이 결여된 표현들도 나타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결국 자기 민족, 자기 힘, 자기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심이 없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낮은 사상 잔재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민족적자존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할 수있으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존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1권, 227페이지)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에 일관하게 관통하여야 할것은 조선민족은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존엄있는 민족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민족은 자존심과 존엄을 가질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이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끝없는 영예와 자랑을 간직하고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온 세상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인민으로 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자부심을 간직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구가하여야 한다. 수천년 유구한 민족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마련되여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빛나는

전망과 그 승리의 확고한 신념을 안고 누구나 락관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며 혁명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민족적자존심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는것이다.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민족이 가지고있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과 지리, 인민들의 고상한 도덕과 풍습을 잘 알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랑할줄 아는 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이며 옛날부터 외래침략자들과 력대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용감하고 패기있는 민족이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민족이다.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문학작품을 통해 유구한 력사를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으로 되어온 이 모든 아름답고 숭고하며 고상한 정신세계와 풍모를 형상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민의 슬기와 힘, 존엄에 대한 깊은 자각, 자기 나라와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작가들은 또한 작품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애국자는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을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튼튼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는 참된 인간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도록 하는 문학작품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은 조선사람은 어디에 가거나 조선식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이 하는대로 따라하는것은 주체가 서지 않은 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자기의것을 내세울줄 알아야 민족적존엄을 고수할수 있으며 대를 세울수 있다고 밝혀주었다.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조선인민의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살면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적이며 아름다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도덕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우리인민의 새로운 생활기풍을 잘 묘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로동계급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요구를 구현해나가는것과 함께 또한 오랜 옛날부터 이어내려오는 조선인민의 고유한 도덕적미풍, 고상하고 문명하고 소박한 생활기풍을 견지하는 립장에서 생활을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생활양식에서 로동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체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우리 시대의 생활을 풍부하게 그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으로서의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생활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주는 문학작품을 잘 창작하려면 작가들자신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특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문학예술의 빛나는 성과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은 또한 자기의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자기 창작에 대한 신심과 높은 긍지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 주체문학에 대한 긍지가 높고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에서 우리 문학을 단연 본보기가 되도록 올려세워야겠다는 자각으로부터 창작기량을 높여 나갈 때 어떤것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되며 그렇게 되면 작품에 조그만 이색적인것도 끼여들수 없을것이며 민족적긍지로 무르녹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에게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이 주제분야에 낮을 돌리고 탐구를 깊이하는것과 함께 작가자신의 사상수양을 부단히 하면서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확고히 올려세우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창작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현시기 로동계급들에 대한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 교양사업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위대하여라. 우리 수령님

리광근

바라보면 갈길이 희망차고
돌이켜보면 지나온 발걸음도 일매진 내 나라
그 나날에 이 땅이 몰라보게 변해가고
내 삶조차 꿈같이 달라질수록
마음속에 깊어지는 수령님 생각

수많은 나라 흐르는 세월에 사변도 많아
사람들 갈피를 못잡을 때
한치도 드림없는 내 나라를 우러러
달려오는 이 세상 마음들에
옳바른 길 환히 밝혀주시는 수령님
그 위대함이 더욱 새겨져

하늘땅이 열리어 수천만년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사운명 열어줄
진리의 길
위대한 사상이
그 언제 어디에 또 있었던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불러
금으로 빚은 불상을 받들어
두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드려 절을 했건만
인류가 갈망한 새세상은
밝아오지 않았거니

유구한 세월속에
갈길 몰라 헤매이며
세상천지에 흩린 피는 얼마이며
땅을 치며 통탄하며 쓰러진이 얼마더냐
눈감으면서도 유언으로 남긴 인류의 념원을
찬란한 주체의 해불로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함이여

수천년 인류사의 갈피를 번진들
그 어디서 찾아볼수 있으랴
하나의 완벽한 사상을 창시하시여
곡절많은 세월의 풍랑을 헤치시고
한 세기가 가까와오도록
곧바로 혁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수를

세상 모든 진리의 시원에
사람들을 귀중히 내세우시여
인민과 생사고락 함께 하시며
항일의 피바다를 헤쳐 20여성상
준엄한 화선천리 불바다를 넘어
대진군, 대건설의 40여성상

영광이여라
한 나라 혁명의 첫걸음으로부터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키우시고 꽃피우시며 열매를 안겨 주시며
먼 미래도 확신에 넘쳐 바라볼수 있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20세기!

그렇다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
그이는 사상사의 영원한 해불
자주시대 혁명과 건설의 령도자
무궁한 세월 인류의 위대한 태양

우러러모시여 끝없는 자랑이여
한마음 받들어 끝없는 영광이여
끊어넘치는 세계의 축원의 마음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
무궁한 세월속에 함께 계심이

어느 하루 밤

김석주

함박눈 고요히 내리어
창가의 불빛들이 한결 아늑한
수도의 밤 거리우로
조용히 달리는 승용차

런못동의 자그마한 골목길에서
열관리공을 찾으신 수령님
온도계의 눈금을 보시는
수령님의 어깨와 털모자엔 눈이 얹혀있었다

거리의 가로등도 꺼지고
내리던 함박눈도 멎고
수도의 밤은 깊어가는데
옥류교를 지나 동평양으로 달리는 승용차

청년거리 마지막채에 이르신 수령님
아래층 창문에 조용히 다가가시였다
-저런 감기에 걸리겠군!
열어놓은채 잠든 피창을 닫아주시였다

밤은 얼마나 깊었는가
수도의 온 거리를 돌아
중구역 어느 버스정류소에 오신 수령님
밤교대 로동자들이 기다리는
빠스시간도 몸소 재여보시였다

또 하루 수도의 새날이 밝았다
맑은 하늘
상쾌한 아침
즐거운 출근길-
아버이 그 마음으로
거리거리들을 포근히 잠재우셨거니
밤이면 베개머리에 조용히 다가앉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깊이 잠든 자식들이 모르듯이

아는 사람 많지 못하였다
그 어떤 사랑의 손길로
수도의 온 거리를 돌보아주셨는지
어떻게 밝아온 행복의 새날인지...

심장의 고동소리

장문필

내 삶의 첫날부터 고요히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 무슨 뜻인가
해빛속에 별빛속에 나를 키워준
은혜론 조국을 부르는 뜻이지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는 뜻이지

청춘의 가슴속에 남몰래 뛰는
심장의 속삭임은 무슨 뜻인가
목숨도 아낌없이 길이 지키리

고마운 조국에 알리는 뜻이지
어머니 어머니께 알리는 뜻이지
심장의 목소리를 조국은 알아
보람찬 인생길로 나를 이끄네
날 때부터 변함없는 그 심장 있어
어머니조국은 날 불러준다네
아들아 내 아들아 날 불러준다네

승리로 빛나는 집

-전승혁명사적관에서-

유국진

들어서는 가슴가득
승리자의 긍지 차오르르고
전승의 그날에로 이 마음 이끌어가는
금수산기슭의 추녀낮은 집

승엄히 들어서면
우리 수령님 원수복차림으로
정전협정문건을 비준하시던
그 첩필소리 지금도 들려오는듯

검소한 이 방에서
미국놈의 항복서에 수표하시며
그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았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우리 수령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명령을 내리시던 낮과 밤
승리에로 승리에로 불러주시며
쉬임없이 드시던 전화기도 여기 있고

온 전선의 숨결 다 모여오던 여기
주체의 전법을 펼치시며
작전도우에 진격의 화살표 그으시던
그 손길 받들어준 큰 책상도

꺼질줄 모르던 등잔불도 여기 있거늘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으시여
용맹의 불씨 가슴마다 지펴주시며
전선길에서 새벽노을 안으시고
전선길에서 저녁노을 맞으시며
우리 수령님 돌아오시던 이 집

금수산기슭
추녀낮은 이 집은 작아도
미제가 흰기를 들고
엎드려 머리 숙인 집

우리 인민을 영원한 승리자로
세기의 언덕높이 내세워주신
강철의 의지가 간직된 집
존엄높은 조선의 불패의 힘이
숨결높이 고동치고있는 집

아, 서산락일의 황혼길에
미제를 차던지고
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고있는
력사의 집, 승리의 집이여!

아껴주신 시간

정천례

수령님 찾아오신 그날은
해빛도 빛나는 맑은 가을날
부르시여 만나셔도 좋으시련만
몸소 연구소를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인민들을 잘 입히는게
소원이라 하시며
우리들이 짜낸 천을 만져보시며
더없이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우리들의 손 따뜻이 잡아주시며
비날론공장을 빨리 건설하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 입히자고 하시던 그 사랑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신 오늘에도
한평생 인민 위해 마음 쓰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에 가슴뜨거워
깊어지던 생각이여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자그마한 성공의 안도감으로
우리 단잠을 청할 때
시간이 늘 귀중한 과학자들인데
부르지 말고 내려가보자고
친히 새벽길을 헤쳐오신 그 은정을

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수령님 만나뵈온 기쁨에 넘쳐
우리 아늑한 식탁에서 점심을 들 때
수령님께선 점심시간마저 즐기시며
달리는 차안에서 식사를 드셨으니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가슴뜨거운
아껴주신 시간이여!
수령님 평생을 이렇게
인민을 위해 바쳐오셨어라
인민을 위해 이렇게
초와 분을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 길피갈피에
그 사랑 그 은덕의 시간이 흘러가고있어라
우리 조국의 무궁한 행복도 전변도
위대한 그이의 시간속에 앞당겨 태어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오노레 두바

그이의 예지와 현명성 뛰어난 령도력은
아름다운 조국을 빛내이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였어라

태양이 새날을 불러
들끓는 로동으로 청춘을 되찾은 조선
향도의 별빛아래
세계에 찬란히 빛나라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별
장엄한 태양의 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깨끗한 충성심을

그대로 간직하신분
그이는 주체위업의 계승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구호 내놓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
주체조국을 빛 내이시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떨쳐가시여라

동방의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그이의 탄생일을 축하하노라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필자는 중앙아프리카 시인임)

《나라길시작점》에서

오영환

수도의 한복판
버드나무그늘밑에
작은 표식비 하나 서있다
《나라길시작점》

이 땅의 모든고장
멀고 가까움을 재는 표적이건만
정녕 나에게는 생각되누나
조국의 새 력사가 시작된 분기점으로

아, 우리 수령님 백두산을 내리시여
개선연설을 하신 평양
건국의 그 첫 자욱을
여기에 표적한것 같구나

조상대대 한을 푼 길이
평양에서 시작되고
자자손손 소원을 이룬 길이
수도에서 시작되었구나

예로부터 이 땅에 길은 있었어도
삶의 길은 어디나 막혀있어
눈물과 한숨을 뿌리며 헤매던 길을
우리 수령님 굽이굽이 다 열으셨구나

물 없던 논밭에 서면
주절대는 물소리가 말하더라
헐벗었던 산에 오르면
설레는 파원이 노래하더라

철길 없던 벽촌에 가면
청맑은 기적소리가 웨치더라
숨막히던 옛 도시를 거닐면
아슬한 창문들이 번쩍이더라

우리 수령님 내다보신 차장으로
눈송이 날아가던 길이어
단풍잎 나뭇기던 길이어
비물이 흘러내리던 길이어

쉽없이 이어가시였구나
두렁길이면 외진 물도랑까지
구내길이면 마지막 외등까지
막장길이면 암벽이 막아선 한끝까지

한번 가시면 될것을
다시 가신 길 얼마인가
전화를 거시면 될것을
굳이 찾아가신 길 얼마인가

아, 이 땅 어디나 골고루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신 길
그 길을 다 펴고 이으면
지구를 그 몇번 휘감으랴

길이어 길이어
동서남북으로 뻗은 길이어
우리 수령님 백두산시절로
한평생을 이어가시는 길이어

끝은 어딘가, 나라길이어
파도 칠씩이는 바다가 모래불인가
덤불속에 묻힌 산촌의 오솔길인가
안개속에 잠긴 아득한 섬의 초소길인가

아, 내 어디서 태출을 꿰고
그 어느고장에 삶을 퍼든
운명의 길 시작점을
언제나 평양에 두고 살리라!

백두산고향집앞에서

전계승

백두산 원시림 깊고깊어도
첫 아침의 해빛 환히 비쳐드는
경애하는 그이의 고향집이여
지붕에 눈덮인 귀틀집앞에
옷깃 여미며 내 섰나니

너무도 수수하구나
그전날 이고장 두메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러한 귀틀집
추녀 낮은 귀틀집

너무도 송엄하구나
등잔받이가 달린
통나무 귀틀벽
색날은 구름노전우에
키낮은 책상이여

나란히 벽에 걸린
장군님과 어머니의 배낭이여
활짝 열어젖히면
동서천리 밀림의 바다가 흘러들고
못별이 머리우에 쏟아져내리던
창문이여

아, 여기서
눈보라치는 창문을
등잔불로 밝히시며
수난에 찌던 겨레의 념원을 안으셨기에
항일전의 나팔소리
조국이 들려주는 첫 노래로 익히시며
무지개 비낀 백두의 하늘처럼
큰꿈을 키우셨기에

수도의 하늘높이
층층 창문마다 별이 웃고
락원의 강산에
꽃바다 끝없이 설레이는
찬란한 오늘을 펼치신것 아니나

세월은 흘러도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리라
인민의 영원한 행복
조국의 천만년 미래가 이어진 집
영원한 조선의 고향집으로

이 세상 하나의 별

-아프리카의 한 투사가 부른 노래-

강창영

가없이 드러누운 사막우에
비가 그리워
타드는 목을 달래며
모래땅을 불안고 통곡할 때도
하늘은 비를 주지 않았다

내려찍는 해빛을 가리울
그늘이 그리워
의지할 지붕이 없을 때에도
그 누가 나를 구제해주지 못했다

고달픈 긴긴 밤

나는 하늘의 수억만개 별우에
공상의 꿈을 실으며
은인을 찾고찾았건만
하늘의 별들은 내 꿈을 실현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언제였던가
동방 조선의 하늘가에
위대한 향도의 별이 솟아
세계의 지붕우에 빛을 뿌리는 그 이야기
20세기 전설로 대륙과 대양우에 전해졌나니
그 전설은 조선의 현실

그때로부터
나에겐 하나의 별만 보이거나
그 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의 별

그 별빛아래
들에는 오곡이 설레이고
언덕엔 파일이 빨강계 익고
거리엔 고층집이 하늘가에 치달아올라라

그 별빛은
조선의 밝은 모습에 어리고
그 별빛은
시름없는 너인들의 밝은 얼굴에 비껴
인류의 앞길에 밝은 빛 뿌려주는
찬란한 향도의 별

내 만약 이 조선을 떠나
내 고국으로 가도
하나의 별만 바라보리

그리고 믿고 따르리
새벽에 저녁에 깊은 밤 꿈속에서도
나는 하나의 별을 우러러
부디 안녕을 빌리라

내 어릴적 바라보던
자연의 별이 아니여라
내 한생 믿고 따를 운명의 별은
위대한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내 이 세상 그 어데가 있어도
대양의 파도 세찬 폭풍을 만나도
사막의 열파에 이 한몸 쓰러져도
향도의 별을 우러러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의 별만을 믿고 따르리라!

아, 그 별은 가물의 비
그 별은 사막의 오아시스
그 별은 대지의 해빛
그 별은 내 마음의 전부!

중강나루터에서

권대봉

휘날어진 실버들 맑은 물을 쓰다듬는
중강나루터에 섰노라니
승엄히 안겨와라
조국의 기슭으로 나루배를 몰아오시던
김형직선생님

오시였어라
날아들어 감돌며 흐느끼는
물새들의 울음소리에서
짓눌린 조선의 신음소리 들으시며

사나운 격랑을 맞받아오시였어라
독립전으로 부르는
투쟁의 기발인양
흰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깊은 산 바위밑에 화승대를 묻고
가슴치며 망국의 설움에 젖어있을
그 가슴속에도 재생의 불을 지펴주시려

힘주어 노를 저어오신 선생님
원대한 뜻을 심어주면
불길같이 내달릴 국내조직원들
조선의 뉘를 안고 산악처럼 일떠설
겨레들의 기상을 그려보시며
나루배를 재촉하신 선생님

근엄히 조국강산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눈길아래
흐려졌던 조선의 하늘이 개이는가
저 멀리 밀려나는 검은 구름장...

아, 김형직선생님께서 몰아오신것은
한척 작은 나루배였어도
꺾을수 없는 민족의 뉘과
광복의 려명을 싣고
세월을 거슬러 오늘로 달려오던
혁명의 큰배였어라

은혜로운 사랑넌친 옥류관

리 석

청류벽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에 깊이 뿌리를 박고 날아가는 학의 날새처럼 추녀가 번듯하게 들리도록 조선식건물로 일떠선 옥류관.

유람선을 타고 오란동여울목에서 미림갑문까지 거슬러오르면서 보아도 좋고 산들바람이 불을 어루만지는 모란봉에 올라가 내려다보아도 좋지만 강건너 문수거리쪽에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더욱 멋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류벽을 감돌아 구슬같이 흐르는 대동강에 뿌리를 두고 건설하였다고 하여 친히 이름지어주신 옥류관.

우리는 옥류교를 건너 푸른 가로수 설레이며 신록이 짙은 거리를 지나 옥류관을 찾았다.

리 한점 없이 깨끗하고 정갈한 마당에 뺨스와 승용차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평고기물에 국수를 말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뺨스와 승용차에 오르는 사람들,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온 가족이 시원한 옥류관국수를 먹고 싶어 찾아왔다는 대동강구역 룡라1동에서 산다는 할머니...

옥류관 중앙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함뿍 어려있다.

붐비는 사람들속에서도 우리를 알아본 안내원은 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이미 알고있는지라 2층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시원한 뽕풍기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여기 옥류관에만 또 여러차례 나오시여 현지지도하신 은혜로운 사랑넌친 이야기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였다.

대동강의 여울물소리 구슬같이 들리던 1981년 6월 어느날,

옥류관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옥류관을 돌아보시고 시설이 탁후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떨어진다고 하시며 옥류관 보수와 개작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보장대책을 취하여주겠으니 우리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본때있게 꾸려보자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며 2층의 어느한 방에 이르시여 옥류관 일군에게 요즘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물어보시였다.

그때까지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물으시는 까닭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던 그 일군은 손님들에게 신선로와 뽕장어구이, 전골 등을 비롯 한 여러가지 조선음식을 내는데 요즘에는 국수를 손님들이 제일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인민들은 원래부터 국수를 좋아한다고 하시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제일 더운 7월과 8월의 날씨에는 국수이상이 없다고 하시며, 그렇기때문에 옥류관에서는 국수의 질을 계속 높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군들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였다.

옥류관의 봉사일군들은 지난 시기 원자재타발만 하면서 더 할수 있는것도 더 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모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2층에 오르시여 2층에 있는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면서 옥류관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옥류관을 개조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보장해주도록 해당 조치를 취하여주시는 한편 수도의 기념비적건축물건설에서 이름떨친 어느 한 건설기업소가 옥류관개작공사를 맡아 본때있게 꾸리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안내원동무는 옥류관 일군들이 건설사업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개조공사를 짧은 시일안에 끝내기 위해 보람찬 나날들을 이어가던 그때에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개작공사의 정형을 여러차례 알아보시고 결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던 일들을 감동깊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개작공사를 끝낸 옥류관일군들이 다시 봉사사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손님들은 새롭게 꾸려진 옥류관 내외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정문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금빛구슬 은빛구슬을 줄로 꿰여 커다란 꽃무리등을 천정에 달아놓은 무리등들과 갖가지 꽃모양을 한 벽등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선뜻 떼지 못하였다. ,

그후 옥류관은 날에 날마다 손님들로 더욱

홍성거렸고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확실히 옥류관동무들이 국수를 잘한다고 하시며 1983년 8월 어느날, 국수직장에 로력훈장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옥류관에 나오시여 개작된 옥류관의 외부를 보신 다음 중앙홀문으로 다가가시여 출입문을 이렇게 나무로 다니 얼마나 무게가 있어보이는가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우리 일군들은 개작공사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옥류관 가운데의 출입문은 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늪으로 출입문을 만들어달고 만족해하던 일이 생각나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졌다.

이날 그이께서는 대연회실을 비롯한 매 방을 다돌아보시며 벽등과 장식등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은 상다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문제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고 한다.

안내원으로부터 옥류관에 깃든 사랑넉친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진정할수 없었다.

그이의 손길이 미친 영광의 사적건물들을 가보고싶은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던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차린 안내원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다녀가신 영광의 자욱을 따라 우리를 안내하였다. 무게있어보이고 민족미가 나는 중앙출입문을 열고 중앙홀에 들어서니 금빛은빛장식구슬무리등들이 빛을 뿌리고 연희색벽에 달아놓은 벽등들이 온갖 조화를 부리며 참으로 황홀경을 펼쳐였다.

웅근 방면적을 가진 꽃주단을 통채로 펼쳐놓은 주단이며 2층홀에 놓인 폭신평신향 팔걸이의자들...

우리를 1층에 있는 온돌방으로 안내한 안내원동무는 참으로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격동적인 사변들로 차넘치던 1965년 여름 그이께서는 몸소 옥류관을 찾으시여 이 방에서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로부터 의견을 들으시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방이라고 하며 깊은 감회에 잠겨 더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향도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린 1층로대에 나선 우리의 눈앞에는 강건너 문수거리의 전경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어찌 그뿐이라. 룡라도의 버들숲에는 웅장화려한 경기장건설의 우람찬 전경이 한눈에 안겨오고 룡라다리의 기둥들이 벌써 일떠서서 이제 문수거리로부터 복새거리를 경쾌하게 달릴 버스들이 눈앞에 안겨오는듯하였다.

참으로 이 로대에 나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향도의 손길아래 날로 변모되는 우리 수도의 황홀한 모습을 바라보며 시원한 국수와 청량음료를 마시는 인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안겨주면 둘을 안겨주고싶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이 저 대동강물결처럼 가슴속에서 일렁거리는것만 같았다.

로대에서 깊은 감회에 잠긴 안내원동무는 우리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에 따라 새로 개조된 옥류관의 규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옥류관에는 대연회장과 여러명이 동시에 식사할수 있는 가족방들 그리고 수십명이 올방자를 틀고앉아 식사를 할수 있는 조선식온돌방이며 수십명의 인원이 한번에 식사할수 있는 방들을 비롯한 여러개의 각이한 방들이 있다고 한다.

안내원동무의 말에 의하면 올해에만도 수만명의 수도 근로자들과 지방인민들이 옥류관을 찾아왔고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찾아오면 옥류관국수부터 맛보겠다고 하면서 매일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손님들도 이름난 평양국수를 먹고싶다고 하며 오늘도 수십여명이 왔다 갔다고 하면서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는 청류벽을 김돌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반에, 룡라도버들숲에서 꾀꼬리노래소리 들려오는 여기 경치가 아름다운곳에 훌륭한 옥류관을 지어주시고 이름떨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는 끝이 없구나.)

우리는 실로 옥류관에 깃든 사랑넉친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그이의 향도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자욱자욱을 통하여서도 심장으로 느꼈다.

전우

림종상

이젠 잊하지 않으리라
젊은이들 나를 아바이라고 불러도

...

이렇게 서두를 떼고 선고개를 넘긴 한 서성적 주인공의 내면독백을 통해 지나온 인생행로의 갈피갈피를 덤비지 않고 하나하나 더듬어보고있는 이 시는 나의 전우가 쓴것이다.

잡지에서 시를 읽었을 때 나의 마음은 실로 기쁨으로 들끓었다. 시가 좋다는것도 있었지만 더 우기는 나의 전우가 썼다는 그것은 더우기 나의 마음을 흥뜨게 하였다.

시인과 나는 20대도 넘기지 못한 때에 남진의 길에서 일글을 익혔고 노상 함께 싸운 그 인연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전우로 불리워오는 사이이다.

그때로부터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한전호에서 싸우던 그때처럼 다정히 지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인민이 있고 위력한 혁명군대가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원수라도 싸워이길수 있습니다.》

전우-총을 메고 사선을 함께 헤쳐온 병사, 이 개념속에 육친보다 더 뜨거운 정이 맥박치고있지 않는가.

한 인간이 생애에서 40년이란 결코 짧다고 말할수 없다. 그 많은 년륜을 새겨오는 과정에 세계는 우주개발에 접어들었고 어떤 친구는 손자를 보았으며 웬만한 사말사는 력사의 대상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나 불비속에서 맺어진 전우들의 깊은 추억과 함께 고스란히 살아숨쉬고있다.

전우, 추억, 이 모든것을 되새기노라면 나의 기억속에는 자연 한 처녀의 모습이 생생히 안겨온다. 이름도 성도 모르고 지어는 나이도 모르는 그가 어찌하여 나의 전우들의 모습속에 비쳐드는지...

그 처녀는 단발머리였다. 눈은 겁이 많다고 할만치 크고 억실억실하고.

그를 본것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였다. 그것도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락동강계선에서 노상 적후에서 활동하며 복상하던 우리 부대는 강점되었던 동해안의 어느 자그마한 읍을 해방했다. 해방된 인민들의 후퇴를 보장한 부대도 더는 머물러있을 필요가 없었다.

대오는 추지령을 향해 전투를 벌리며 행군했다. 적들은 앞뒤에서 조이며 검질게도 따라오다가 앞의것들이 두들겨맞자 뒤의것들도 주눅이 들었는지 잠시 주춤거렸다.

우리가 숨을 좀 돌리게 되었을 때 어느 자그마한 마을이 골짜기에 나타났다.

마을을 본 나는 그 어떤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혔다. 거기에는 비록 잠시나마 언뎀을 녹여줄 따스한 구들이 있을게고 밥을 지어먹을 부엌이 있을게 아닌가. 그때까지 우리는 여름군복을 입고 있었고 여러 끼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것이다.

눈이 푸실푸실 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허기증이 났다. 나뿐이 아니다.

《50대청춘》을 노래한 시인도, 얼마전에 박사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담은 편지를 보내온 옛 중대장도 그때는 모두 대환가지였으니까 그렇게도 요란한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뛰어들던 전우들도 이제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다시 마을을 만나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감의 순간에 대오의 행군을 떠지게 했다.

산속의 행군-그것은 무인지경을 뚫고가는 길이다. 따스한 구들도 변변치 않는 식사나마 기대할수 없는 그런 간고한 길이다. 하기에 전우들은 다문 얼마간이라도 요기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욕구에 빠져버렸다.

헌데 마을은 피피하고 앙상한 폐허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앞에서는 아아한 추지령의 원시림이 대오를 삼켜버릴듯 기다리고있었고 뒤에서는 주눅이 들었던 적들이 신경질을 부리듯 총질을 해대며 따라왔다. 함포와 박격포가 머리를 핏듯이 낮게 떠도는 포지휘기의 제원대로 아가리를 벌렸다. 불기둥과 흙먼지가 앞뒤에서 터졌다. 매캐한 포연도 갈기갈기 찢기위 몸부림쳤다.

그러나 대오는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불타는 마을, 개짓는 소리마저 들을길없는 마을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자니 총멘 병사로서 무엇인가 다하지 못한 자책감이 너무도 무거워 생리적욕구쯤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던것이다.

《군대동무들-빨리 오라요-》

언데선가 녀인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을이 숨지지 않았다는 신호이거나 한듯 우리의 가슴을 일시에 뿔뿔하게 해주었다.

모두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꽃짜기어구 무너진 돌기와집앞에 처녀가 우상처럼 서있었다.

처녀의 짧은 머리칼은 밀려오는 폭풍에 흩날렸고 이마에는 머루송이같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억실억실한 눈은 작열하는 포탄썸은 개의치 않고 별처럼 반짝거렸다. 앞가슴에는 《청진교원대학》 휘장이 달려있었다.

집은 이미 절반나마 허물어졌고 부엌만 덩실하게 남았다. 아궁이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앞에 허리굽은 로할머니가 처녀와 함께 김이 서린 함지에서 주먹밥을 빗고있다. 가마에서는 된 김이 기관차에서 뿜어나오듯 좌좌 솟구쳐 올랐다.

주먹밥이 내 손에도 안겨졌다. 얼마나 따가웠던지 나는 시장기도 잊고 그 귀중한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전사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씹없이 놀리는 그 손! 그 손이 마치 복나들듯 함지에서 병사들의 손으로 순간도 멈춤없이 오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서서히 젖어왔다. 따뜻한 체온이 깃든 흰 밥,

그 밥에서 나는 무엇과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것을 묵묵히 받아안았다.

그렇다. 이것은 어머니조국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모든 너인들의 간절한 부탁이였고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 힘과 용기를 애어린 병사의 마음마다에 심어주는 거센 힘이였다.

처녀와 할머니, 그들은 군인이 아니다.

이제 부대가 추지령으로 철수하면 너인들은 또 다시 적후에서 미제침략자놈들의 군화밑에 짓밟힐수도 있는 적수공권의 사민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이제 적후에 남게 될 연약한 녀성의 몸이면서도 이 준엄한 때에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병사들에게 저렇듯 육친의 정을 강그리 쏟아붓는것일까.

그것은 그 처녀가 우리 병사들처럼 당을 믿고 수령을 믿고 인민정권을 믿고 자기의 혈육들인 인인민군대를 심장으로 믿었기때문이다.

그렇다. 이런 군은 신념, 이것이 한전호속에서 같은 군복을 입고 함께 싸운 병사도 아닌 그들을 우의 위치에 나란히 세워주었다.

나의 전우들가운데는 락동강을 선참으로 건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채 이름을 남기지 못한 병사도 있고 적의 화구를 막고 진격로를 열어놓은 영웅도 있는것이다.

나는 바로 그 처녀를 이런 전우들과 나란히 세워놓고 서슴없이 전우라고 부른다, 당당하게.

왜냐면 우리는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을 때 뜻을 같이하고 조국을 위하여 함께 싸웠기때문이다.

그들도 조국앞에 총천병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기에...

정다운 속삭임

주광남

병사배낭 함속에 벗어놓던 그날부터
타관에 정들이기 그 몇몇해...

헐치 않더라
억양 거센 북관사투리 귀에 익히기
모래알 휘뿌리는 바람에 익숙되기
드세찬 용해공들의 그 성미에 정들이기

언제부터였던지
억양 높은 그 말씨 입에는 못익혀도
고향의 민요처럼 정다워진것은
눈보라속에서도 웃으며 떠들며
벗들과 걷는 후야근길 즐거워진것은

내 첫 쇠물 뿜던 날
부푸는 이 가슴 부둥켜안으며
그리도 기뻐하던 나의 작업반원들
새 기술 혁신으로 쇠물량 늘였을 땐
용해공이 다 되었다고

어깨를 툭 치며 웃던 얼굴들

아, 쇠물량 늘어나는 그때문만이라
벗들의 뜨거운 우정속에 사는
그 기쁨에 겨워 행복감에 젖어
사나이 이 가슴 때없이 설레이나니

그럴적마다 속삭여주더라
아침 출근길에 나를 반겨웃는
그 술한 정어린 눈길들이
저녁이면 불노을 물드는 내 집 창가에
자장가처럼 울려오는 용광로의 숨결이

정답고도 뜨겁게 속삭여주더라
가슴뿌듯이 느껴안는 삶의 보람은
스스로가 바친 사랑의 대가라고
이 땅에, 생활에 정을 바친 그만쯤
그 가슴에 정을 받아안은 법이라고! ...

승리자들의 추억

김청남

몇해전 여름, 나는 북방의 한 산간마을에서 그 고장에 대한 글을 쓰려고 여름동안 머무른 일이 있다. 그때 내가 들어있던 이 산간마을려관에는 미술계의 로장인 명성높은 정종수화가가 류숙하고있었다. 그 역시 축산을 잘하여 당중앙의 높은 평가를 받은 이 마을에 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로 온것이였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라고는 한해에 기껏 네댓뿐인 이곳 산간마을의 려관에는 통털어 방이 둘이였다. 그나마 쌍미단으로 칸을 막은 방이였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시원하게 터놓고 있어서 실상은 단칸방이나 다름없었다. 그대신 소박하게 꾸린 방은 깨끗하고 조용하였으며 안정감이 있어 집 떠난 사람들이 쉽게 정을 붙일수가 있었다. 손님을 몹시 반기기로 소문난 인심 후한 이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려관이라 부르지않고 그저 손님방이라 하였으며 숙박비를 받는 법도 없었다. 우리는 이 손님방이라고 부르는 려관에서 각각 한방씩 차지하고있었다. 나보다 며칠 먼저 이곳에 온 로년의 화가는 미단 이아래 넓은방에 묵었고 창가쪽에 책상이 있는 좁 작은 옷방에는 내가 들어있었다. 나는 단칸방이나 다름없는 산간마을의 이 한적한 려관에서 그와 이웃하여 류숙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나는 미술계의 로인 그를 수도의 거리와 예술인들의 모임에서 몇번 보았을뿐 아직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흘러간 시절들에, 해방후 평화건설시기에는 대학생으로 거리에서 그리고 준엄한 전쟁때에는 청년군관으로 전선에서 또 그후에는 전후복구 건설장에서 그의 그림들을 보았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전쟁때 불타는 어느 도시의 깨어진 바람벽에서 본 포스터 《무자비하게 복수하라!》는 가장 인상깊은 그림이였다.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그 그림에서 받았던 충격은 나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나는 그 시절에 대학중퇴생 청년군관으로 처음에는 기본소대를 지휘했고 그후에는 기본중대를 지휘하였다. 그때 나의 중대 대원이었던 미술학교 학생에게서 나는 재능있는 정종수화가가 종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랬던만큼 나는 함께 류숙하게 된 이 명성높은 로년의 화가에게 물고싶은것도 많았고 또한 나누고싶은 이야기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달포나마 한적한 이 마을의 려관에 묵고있었지만 아직 서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그는 아침부터 온종일 마을 뒤산의 소목장이나 돈사, 양봉장, 혹은 수림속으

로 화관을 메고다니다가 밤늦어 방에 들어오곤 하였으며 때로는 며칠씩 방목공들과 산속에서 침식을 같이하며 려관에 들이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다 나 역시 그동안 일에 파묻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나니 그럴 기회가 없었던것이다.

나는 이따금 양봉장에서 벌들이 둥둥 뜬 꿀이나 방금 짠 신선한 소젖, 혹은 이고장의 특산인 류달리 크고 맛좋은 구운 감자를 가지고 소박한 마을사람들이 찾아오는 때를 내놓고는 별반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란 없었다. 깊은 골짜기들에서 흘러내려 마을을 안고 흐르는 맑은 강물과 그 너머 수림이 마주보이는 조용한 창가에 앉아 열어놓은 창문으로 싱싱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멀지 않은 양봉장쪽에서 봉봉거리는 벌들의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쓴다는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저녁 식사때면 늘쌍 부엌에서 감자국은 구수한 냄새가 풍겨온다. 날이 저물면 또 앞마당에서는 향긋한 쑥내를 실어오며 모기불이 타오른다.

나는 도시에서 출생하였고 도시에서 자랐지만 이런 산골청취를 류달리 좋아한다. 나에겐 세상 어느곳에도 이고장보다 글쓰기에 더 좋을곳이란 없을상싶은 북방의 산간마을이다. 나는 앞이 열리어 글이 잘 나가는 때면 밤이고 낮이고 며칠씩 책상앞을 뜨지 않고 휴식없이 쓴다. 그런 집요한 맹돌진이 있은후에는 하루이틀 흐뭇하게 쉬곤한다. 나는 그 휴식일에 달밤의 강가를 거닐며 우리 시대와 동시대인간들 그리고 래일과 래일의 인간들 대해 사색한다. 때로는 수림속 깊이 들어가 새들이 우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 이따금 있는 일이지만 앞뒤가 딱 막혀 도저히 전진할수 없을때엔 책상앞에서 물러나 낚시대를 들고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낚으며 돌파를 모색한다. ...

그러던 어느날에 나는 마침내 로년의 정종수화가와 마주앉게 되었다. 그날은 7월 27일, 바로 전승기념일이였다. 우리는 이날 마주앉을것을 미리 계획한것은 아니였지만 이 잊을수 없는 날에 휴식하기로 작정한 나와 그의 생각이 서로 일치했던것이다.

잠게 개인 여름날의 한낫.

집 떠난지 오랜 나와 로화가는 먼 북방의 산간 마을 강기슭에 앉아있다. 전선에서처럼 소박하게 차린 우리의 야외식탁, 강바람 시원한 강기슭의 평퍼짐한 너럭바위우에는 내가 낚고 내 손으로 구운산천어와 전쟁참가자인 이곳 리당비서동무가 군에 회의 올라가면서 보내온 술병이 놓여있다.

나는 먼저 로병인 정종수화가의 잔에 술을 붓고 그다음 내 잔에 술을 부었다. 허나 과묵한 은발의 로화가는 감회깊은 눈빛으로 묵묵히 강 건너 저편 우중충한 푸른 수림을 바라보고있다. 로병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 산과 강, 하늘 땅이 불타던 그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일들,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함께 종군했고 함께 싸우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추억하고있으리라.

얼마나 어려운 전쟁이었던가. 얼마나 많은 재부와 얼마나 많은 재능을 잃었던가. 가슴아픈 희생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 간고한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정든 고향집을 떠나 전선으로 갔었다. 그들속에는 노동자도 있었고 농민도 있었으며 작가들과 시인, 음악가와 촬영가, 배우도 있었으며 교원들과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모두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산에서도 싸웠고 들에서도 싸웠으며 도시와 마을, 해안에서도 싸웠다. 할머니와 녀학생들은 싸우는 병사들에게 밥과 국, 물을 대접하였고 할아버지들은 탄약을 날랐다. 승리없이 조국의 생존이 없고 조국의 리상이 없으며 또한 그들자신의 생존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나름으로 전쟁승리에 기여하였다. 그 간고한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 공민모두는 전승기념일이 오면 추억에 잠긴다. 아마 오늘도 그 시절에 분대장이었던 사람, 전사, 장병, 정찰병, 간호병, 통신병, 포병이었던 사람-그들모두는 준엄한 전쟁시기 자기가 수행한 일들과 몫을 두고 제각기 자기나름의 감회깊은 추억에 잠길것이다. ...

종군화가였던 그와 보병중대장이었던 나는 먼 북방의 산간마을 강기슭에 마주앉아 그 시절을 추억하고있다. 그에게 묻고싶은것이 많았던 나는 먼저 전쟁때 불타는 도시의 깨어진 어느 집 담벽에서 본 인상깊은 포스터-《무자비하게 복수하라!》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러자 로년의 화가는 감회에 젖은 눈을 빛내이며 기뻐하였다.

《아, 작가선생, 그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세월은 아득히 흘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때 중대가 받은 전투임무는 어려웠다.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적구로 들어가던 중대는 불타는 도시의 어느 집 담벽에 붙은 그 포스터앞에서 멈추어서지 않았던가, ...격동적인 그 포스터가 중대 병사들에게 준 충격은 컸었다. 원쑤 격멸으로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호소, ...그 증오의 힘, 그 불씨를 안고 적구로 들어간 중대병사들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어려웠던 전투임무를 빛나게 수행했었다.

《작가선생, 그 포스터엔 사실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

로병인 화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평양에서 활약하던 서른살의 화가 정종수는 전쟁이 일어나자 곧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종군하였다. 그가 속한 사단은 서울을 해방하고 대전에서 미24사단을 격파한후 파도처럼 남으로 진격해나갔다. 이 진격의 나날들에 종군화가 정종수는 사단본부성원으로 공작하면서 최전선의 련대들과 중대들에 나가 전투적인 그림을 그리군하였다. 그는 총총히 전진하는 행군의 휴식시간에도 그림을 그렸고 적의 련대들과 사단들을 포위섬멸하는 가렬치절한 전투가 끝난 격전장에서도 그림을 그렸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준엄한 피의 격전장, 싸움으로 날이 저물고 전투로 날이 밝는 그러한 때에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전투, 행군, 휴식... 그 모든 전선생활을 그는 본능적으로 그림과 련결시켜보았고 생각하였고 체험했으며 겪었다.

종군화가 정종수는 생생한 전선생활과 전투의 인상에 기초하여 그린 그림의 초안들과 소묘들을 가지고 자주 문화부사단장을 찾아가 의견을 듣군하였다. 전쟁전에 어느 큰도시에서 당사업을 하던 문화부사단장은 문학과 예술이 주는 힘과 위력을 깊이 리해하고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번 화가 정종수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솔직하고 허물없는 어조로 말하군했다.

《동갑이, 이 그림들은 아직 충격이 약하네. 부탁이야, 온 사단병사들의 심장에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을 폭풍같은 격동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려주게.》

문화부사단장의 이러한 요구는 물론 명령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 전체 병사들의 부탁이었으며 전 전선병사들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화가 정종수는 문화부사단장의 부탁을 항상 잊지않고있었다. 행군서열에서도 줄곧 그 생각이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었으며 쪽잠이 든 그때조차 그런 꿈을 꾸었다. 그는 반드시 그런 힘있고 충격적인 그림을 그릴 각오를 품고 전진하는 사단의 최전선에 화관을 메고 나가군하였다.

최전선의 련대와 대대지휘관들은 그가 가렬한 전투에 참가하는것을 극력 만류하군했다. 그러나 정종수는 늘 가장 격렬하고 위험한 최전방에 서 있었다. 피끓는 최전선의 격전장, 바로 거기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충격이 그에게 필요했던것이다. 그는 탄알이 귀전을 스치는 아슬아슬한 습격전에도 참가하였고 무시무시한 육박전도 직접 체험했다. 언제나 최전선에! -이것은 그의 심장의 지향이었다. 그러던 그는 불행하게도 락동강도하 전투장에서 오른팔에 부상을 당했다. 피의 락동강도하전투장면을 그리다가 적포탄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그가 사단군의소에서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것은 캄캄한 밤이었다. 희미한 등잔불이 타오르는 반토굴, 사단군의소의 중년 외과과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중수는 불시에 자기의 온몸을 불로 지지는 듯한 아픔보다 먼저 부상당한 팔이 격정되었다. (어떻게 됐는가?…)

그는 깜박이지 않는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중년의 외과과장에게 조급히 열에 뜬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 그림을 그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정직한 반백의 과장은 침묵하고있었다.

《왜 그림니까, 과장동무. 희망이 없는가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초조로 떨리고있었다.

《자오. 지금 동무는 안정해야 하오.》

과장은 피로운듯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밖에서는 마가울의 찬바람이 쿵쿵… 포소리를 실어오고있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만약 회복된 다음에도 손에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릴수 없게 된다면?…

화가인 나에게 그러한 손은 없는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 정중수는 몸을 떨었다. 그는 부상당한 팔의 아픔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피로왔다. 앞으로 그림을 그릴수 있는가, 없는가. … 없는가, 있는가… 그는 몸부림쳤다. 나는 전선병사들에게 불씨를 안겨주는 충격이 큰 그림을 아직 그리지 못하였고 화가로서 명성떨친 절작도 없다. 허나 그런 그림을 그리려는 희망과 지향과 신념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나의 재능에 대한 동료들과 선배들의 찬사와 격찬에도 들뜨지 않고 리성으로 자신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었다. 또한 의지로 자기를 이끌며 높은 목표를 향해 주저없이 탐구의 길을 걸어왔었다. 그런데…이제는 그 모든것이 지나간 일로 되고 나도 그때의 정중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야 한단말인가… 잊자, 잊어버리자. 아니, 잊지는 못할것이다. 허나 지금은 잊어버려야 한다. 전 인민이, 온 조국이 생사를 걸고 준엄한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때에 조그마한 나하나의 희망, 나 개인의 불행은 보잘것없는것이다. 정중수는 강한 의지력으로 자신을 억눌러 드디어 극복하였다. 그러자 맥푼린 온몸이 그대로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 같았다. 정중수는 눈을 감았다. 스산한 바람소리… 포성… 언젠가 대전계선에서 소묘한 그림이 꿈속에서처럼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은 자기의 그림같기도 하고 남의 그림같기도 한 화폭들이 얼핏얼핏 떠올랐다. 그러다가 그는 잠들었는데 그것은 이상한 잠이었다. 생시같기도 하고 잠같기도 한 그런 잠이었다. …

며칠후에 중군화가 정중수는 군의소에서 소속 사단이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복상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즉시 부상당한 팔을 새 붕대로 감고 사단지휘부를 찾아 떠났다. 병사들과 함께 싸우

면서 복상하고싶었던것이다.

북으로 가는 행군이 시작되자 그림에 대한 생각이 또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사단군의소에서 억눌렀던 고통스러운 생각이 또다시 머리를 든것이다. 억누른것은 역시 억누른것이다. 억눌렀던 모든것은 어느때든 반드시 솟아오르는것이다. 허나 깨끗하게 단념하라. 미련을 버리라. 미술은 끝장났다. 설사 부상당한 팔이 완쾌된다 해도 팔이 무자연스러워진다면?… 안된다. 단호하게 잊으라. … 리성의 목소리는 이러하였지만 화가 정중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련 많은 이 북행길에서 앞을 막아서는 적들의 크고작은 집단을 무자비하게 격파하며 신심에 넘쳐 행군하는 병사들을 볼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올랐던것이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도 동통이 멎은 팔에 붓을 잡아보고싶어 못딜지경이었다.

사단이 적강점지역인 강원도의 어느 산간마을을 지날 때였다. 적들이 방금 불사르고 략탈한 마을은 온통 연기에 휩싸여있었으며 골목골목들과 집뜨락에는 무참히 학살된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개 한마리 살아남지 못한 마을의 광경은 처참했다. 불타는 집들, 깨어진 장독들, (거기서는 간장, 된장들이 흐르고있었다.) 무너져내린 토담들, …방금전까지도 이 마을에는 평화로운 생활이 숨쉬고있었을것이다. 집이 있고 굴뚝이 있고 울바자가 있고 로인과 녀자가 있고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모이를 쪼으며 돌아치고있었으리라. 그런데 방금 몸서리치는 살륙과 파괴가 마을을 휩쓴것이다. 병사들은 이 몸서리치는 잔인한 살륙과 파괴앞에서 너무도 분통하여 굳어진듯 서있었다.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이보다 더하겠는가…

한 병사가 싸늘한 녀인의 품에서 살아남은 갓난애기를 발견하고 그를 안아올렸다.

《개새끼들, …천백배로 복수할테다!》

얼마나 분노하였던지 그 병사의 목소리는 짝사려문 이탈사이로 토막토막 흘러나왔다. 화가 정중수는 온몸의 피가 일시에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웨치고싶었다. 무자비하라 i… 무자비하게 원수의 가슴을 찌르라! … 그 찰나에 화가 정중수는 자신도 모르게 부상당한 손에 붓을 잡고 그 광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원수에 대한 피끓는 증오의 힘, 번개의 섬광과도 같은 강렬한 충격으로 붓은 빠르게 화관우를 달렸다. 이러한 격동적인 흥분은 자신이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것을 잊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병사들에게 심장으로 웨치고 호소하고있다는 열광적인 흥분에 빠져있었던것이다.

…거떻게 폐허로 된 마을, 학살당한 사람들속에는 녀자도 있고 로인들도 있고 나 어린 소녀들

도 있다. 골목골목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솟는다. 그를 배경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총을 들어잡은 한 젊은 병사가 갓난애기를 안고 쓰러진 너인앞에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며 서있다. 병사의 품에 안겨울고있는 갓난애기의 눈물, 분노와 증오를 내뿜는 병사의 눈, ... 화가는 그 세부를 색채로, 음영으로, 뜻으로 강조한다. ...

그때 갑자기 마을에는 포탄이 날아오고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복상하는 사단병사들을 향해 발악적으로 쏘아대기 시작한것이다. 그속에서 화가 정종수는 붓을 멈추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이처럼 심장을 불태우며 그림을 그려본적은 없었을것이다. 화폭은 그의 눈앞에서 살아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작렬하는 포탄의 파열음도, 총성도 듣지 못하고있었으며 살아움직이는 그림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온 넋과 정신을 깡그리 그림에 쏟고있었던것이다.

화가 정종수는 전투가 끝나고 문화부사단장이 곁으로 다가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좋은 그림이군, 충격이 큰 그림이야...》

문화부사단장은 그림이 끝나자 빼앗듯이 들고 정종수의 어깨를 툭 쳤다.

《빨리 후방으로 보내여 출판하도록 힘써보자구, 제목은 어떻게 할가?... 하긴 그게 중요한건 아니지...》

문화부사단장은 그림을 전투가방에 넣고나서 어저를 바꾸어 이번에는 엄격하게 말했다.

《동무를 군단병원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소. 동문 손을 치료받아야 하오.》

정종수는 반대하려 했으나 문화부사단장은 자르듯 단호하게 손을 뻗 저었다.

《사단군의소에서 도망친 책벌이요. ... 동무는 그 손을 잘 치료하시오!》

군단병원으로 파송된 종군화가 정종수는 그후 그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있었다. 적강점 지구를 뚫고 복상하는 간고한 시련의 나날에 그 그림이 과연 출판사에 가닿았는지 어쩐지 도저히 알길이 없었던것이다. 군단병원에서 그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문화부사단장은 사단의 어느 소부대를 인솔하고 적구깊이 들어갔다고 했다. 특별 임무를 받은 그들의 행방은 아직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디서 희생됐는지 아니면 살아서 싸우고있는지...

정종수가 북으로 이동하는 군단병원을 따라 북방의 크지 않은 읍거리에 들어선것은 진논까비 내리는 밤이었다. 이곳에서는 인민군병사들이 재진격을 준비하고있었다. 거리입구에서는 복상해 들어오는 소대들과 중대들을 새로 편성된 사단들과 편대들에 증강인원으로 편입시키고있었으며 북에서는 재진격의 길에 오른 부대의 병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있었다.

병사들과 함께 재진격의 길에 오를수 없는 화가 정종수는 서운하고 울적하였다. 아직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승낙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길가의 어느 집 담벽에 기대고 우울한 기분으로 서있었다. 사단은 지금 어디서 싸우고있는가? 문화부사단장은 적구에서 살아 돌아왔는지... 어디선가 풀썩... 풀썩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던 진논까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별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안보인다. 몸도 차갑고 마음도 얼어드는듯싶은 차가운 밤이다. 과연 또다시 최전선으로 나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는지...

그때 북에서 병사들을 싣고 나오는 자동차의 전조등불빛이 얼핏 길건너 맞은편집의 담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스치더니 곧 사라지고 캄캄해졌다. 그 순간 화가 정종수는 본능적으로 자동차불빛이 비쳤던 길건너집의 바람막안으로 뛰어갔다.

그는 이쪽저쪽 주머니를 뒤져 성냥을 꺼내 켰다.

그 성냥불빛에 포스터 한장이 다시 환히 드러났다. 희생된 너인의 갓난애기를 안고 복수를 맹세하며 총을 들어잡은 병사가 그림에서 종수를 마주보고있었다. 바로 그 그림이었다. 손을 부상당했다는것도 잊고 뚫어오르는 심장의 피를 뿜어 그린 그림, 그것이 포스터로 되어 거리에 나붙은 것이다. 출판사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그림을 출판사로 보낸 문화부사단장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림에는 붉고 굵은 글씨로 《무자비하게 복수하라!》라는 제목이 붙어있었다. 그는 끝까지 타들어온 성냥불의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서있었다. 얼마나 사연 많은 그림인가, ... 충격은 컸다. 만일 보통때에 자기의 그림이 포스터로 출판되어 거리곳곳에 붙어있었다라면 이처럼 큰충격과 기쁨, 환희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으리라. 그러자 뒤이어 그의 가슴속에는 서글픔이 왔다. 이제는 이 그림이 마지막그림으로 될수도 있지 않는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작품으로 될지도 모른다. 정종수는 그러한 불안을 누르려고 애썼다. 그는 꼼꼼히 붙인 포스터를 담벽에서 뜯었다. 그자신에게도 힘을 북돋아주는 포스터를 가슴에 품고싶었던것이다. 그때 불시에 등뒤 어둠속에서 번쩍-전지불이 날카롭게 비쳤다. 뒤따라 그보다 더 예리한 목소리가 찌르듯 총알처럼 날아왔다.

《손들었!-》

《?!...》

화가 정종수는 불의에 날아든 날카로운 전지불과 고함소리에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어둠속에서 분노한 인민군병사가 곧바로 총구를 들이대고 당장 방아쇠를 당기려는것을 감촉했다.

《무슨 일이요?》

《왜 포스터를 뜯는가, 이 반동놈아!-》

병사의 그 분노한 목소리는 《왜 우리의 가슴속에서 심장을 뜯어내는가!-》하는것처럼 울리었다. 그만큼 낮모를 병사의 음성은 격분과 증오에 찼던 것이다.

어둠속의 병사는 질척 안전장치를 풀었다. 즉시 총구에서 번쩍-불이 튕겨날것만 같았다. 화가 정중수는 총구를 들이댄 병사의 그 분노를 이해하였다. 거리에 나붙은 포스터를 밤에 누구도 모르게 뜯는 사람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보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준엄한 전쟁때인 것이다.

《병사동무, 난 반동이 아니요. 총을 내리시오.》

《말 말았! 가자, 이 극악한 반동놈아!-》

총을 겨누는 어둠속의 병사는 조금도 긴장과 격분을 늦추지 않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서 걸었!》

또다시 예리한 전지불이 화가의 얼굴을 때렸다.

《병사동무, 난 이 포스터를 그린 화가요!》

정중수는 엄격하게, 낮으나 깊이있는 어조로 어둠속의 병사를 향해 말했다.

그러나 병사는 그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캄캄한 밤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정체모를 작자가 엉터리없이 화가라니 무슨 흥판지같은 소리가고 생각하는 모양이 었다. 화가라면 무엇때문에 이런 캄캄한 어둠속에서 포스터를 뜯으며 돌아치겠는가...

《화가라구? 중소. 그렇다면 증명서를 내놓소!》

화가 정중수는 어쩔수 없이 그 병사앞에 신분증을 내놓았다. 병사는 그에게서 증명서를 받아 들고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전지불로 증명서를 비쳤다. 그러더니 이어 다시 명령조로 말했다.

《그 포스터를 주시오!》

정중수는 병사의 요구대로 담벽에서 뜯어낸 포스터를 병사에게 주었다. 병사의 날카로운 전지불이 어둠속에서 번쩍... 번쩍 증명서와 포스터사이를 오고갔다. 두번, 세번 증명서의 이름과 포스터에 찍힌 화가의 이름을 간간히 확인하고난 병사는 중수에게 증명서와 포스터를 돌려주며 바투 다가섰다. 그리고는 발뒤축을 딱-소리나게 모으며 꽃꽂이 서서 그에게 깡뚱이 경례를 표했다.

《안됐습니다, 화가동지!-》

어둠속에서 울리는 쟁쟁한 병사의 그 말속에는 아직도 노여움이 남아있는것 같았다. 그 어조에는 《화가동지, 난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습니다.》하는 불만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정중수는 병사의 그러한 불만도 그러한 의혹도 다 이해하였다. 캄캄한 밤에 우연히 만난 낮모를 병사가 어찌 손을 부상당한 중군화가의 심정을 이해할수 있으며 그 사연을 다 알수 있으랴. 생각같아서는 이 경각성 높은 젊은 병사에게 모든것을 말해주고싶었으나 그럴 정황도 아니어서 참으로 딱하였

다. 그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어둠속의 한 부분으로라도 화한듯 꼼짝않고 서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낮모를 병사도 물러가지 않고 그자리에 그냥 말없이 마주 서있었다.

《병사동무, 왜 그러오?》

《화가동지, 한가지 부탁해도 일없겠습니까?》

병사의 목소리는 분노했던 중전의 음성과는 판판다르게 부드러웠다.

《부탁하오.》

중수 역시 병사에게 친절한 어조로 응대하였다.

《그 포스터를 저에게 돌려줄수 없겠습니까?》

《?!...》

병사의 부탁은 뜻밖이었다.

《이 포스터가 병사동무에게 꼭 필요해서 그러오?》

《그렇습니다. 그 포스터는 저에게뿐만아니라 이곳을 지나 재진격으로 나가는 병사들의 심장에 불씨를 심어주고 원쑤 격멸으로 불러일으켜주는 격동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소?!》

화가 정중수는 불현듯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는 낮선 젊은 병사를 끌어안고싶으리만큼 기뻐다. 불비쏘아지는 격전장에서 그린 그림, 병사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문화부사단장이 진정으로 부탁했던 그림이 현실적으로 병사들의 심장을 격동케 하고있었던 것이다.

《화가동지, 전승의 날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심장에 불씨를 주고 원쑤 격멸으로 불려일으킨 이 포스터를 기념으로 구해가지고 화가동지의 화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병사동무, 고맙소. 내가 그만... 다시 내 손으로 붙이겠소.》

《아닙니다, 주십시오. 화가동지, 제가 사람들 이 더 많이 볼수 있는 네거리에 붙이겠습니다.》

젊은 병사는 정중수에게서 포스터를 받아들고 돌아서 네거리쪽으로 걸어갔다. 어둠속에서 다시 한번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가동지, 전승의 날에 꼭 찾아뵈겠습니다!-》

《내 동무를 기다리겠소-》

문득 도시 뒷산꼭에서 고사포소리가 울리고 적 비행기의 저공하는 소리가 귀청을 찢며 들리었다.

정중수는 길가의 축축한 웅덩이에 엎드려 병사가 걸어간 네거리쪽을 주시했다. 번쩍-적비행기가 투하한 폭탄의 섬광이 네거리의 어느 집 담벽앞에 서있는 병사를 드러냈다. 그다음 요란한 폭음이 울리고 거리는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다. 엎드렸던 정중수는 급히 일어나 포스터를 붙이려간 병사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굳어진듯 서버렸다. 그 병사는 네거리의 어느

집 담벽앞에 쓰러져있었던것이다.

《병사동무!-》

화가 정종수는 목메인 소리로 부르며 그를 끌어안았다. 허나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 병사가 들고있던 전지볼로 비쳐보니 파편에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방금전까지 격분도 하고 기뻐도 하던 새파란 나이의 병사는 전사한것이다.

《병사동무!-》

그는 피타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으나 목소리는 입안에서 잦아들고말았다. 전승의 날에 포스터를 기념으로 구해가지고 찾아오겠다고 쉿쉿한 목소리로 방금전에 웨치던 젊은 병사, 삶과 희망, 힘이 넘쳐흐르던 병사는 쓰러진채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화가 정종수의 눈앞에는 격동적인 포스터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던 문화부사단장, 학살된 여인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하고 품에 안았던 병사,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왜 뜯어내는가고 웨치던 이 병사가 일시에 떠올랐다. 그들모두는 정종수에게 원쑤에 대한 증오의 힘을 주고 격동적인 포스터를 그리도록 심장에 불을 달아준 사람들이었다.

화가 정종수는 눈물을 삼키며 잊을수 없는 병사의 시신앞에 정중히 경례하였다. 병사여, 그대의 이름은 모르나 내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정종수는 병사가 돌돌 말아쥐고 가슴에 안은 포스터를 조심히 옮겨들었다. 그다음 어느 한곳도 찢어지지 않은 그포스터를 병사가 붙이려던 담벽에 붙이였다. 그는 울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그는 그러한 감정을 누르려고 혀를 깨물었으나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르려는 생각보다숯구치는 감정이 더 강했던것이다. 비분으로 손과 아래턱이 떨리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찰나에 종군화가 정종수의 가슴속으로 방금전에 들었던 젊은 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같기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같기도 한 명령소리가 뚫고 들어왔다.

《화가여, 언제나 심장으로 그리라. 어느때든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최전선에 서있으라!》

그것은 아직까지 그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깊은곳에서 울리는 녀의 웨침이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자기에게 주는 조국의 영원한 명령처럼 듣고있었다. ...

로년의 정종수화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었다. 나는 잠잠히 앉아있었다. 언제나 나는 감동을 얼굴에 나타내기를 싫어한다. 큰 감동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실 감회깊은 그의 이야기에서 받은 나의 감동은 크다. 불타는 도시의 깨어진 담벽에

서 본 포스터, 적구깊이로 들어가던 그 밤에 내가 본 그 포스터가 바로 화가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붙인 그 포스터인지도 모른다. 그날밤에 본 그 포스터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던가!...

나는 마음속깊이 존경하는 눈길로 로년의 화가를 보고있다. 이 로병은 그 어려운 전쟁에서 얼마나 큰몫을 수행했는가! 물론 그 시절에 나도 적들의 땅크를 까부시였고 대대의 돌격로를 여는 습격전에서 용감하게 중대를 지휘했다. 하지만 나는 중대에 부여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종군화가는 전 전선병사들을 원쑤 격멸으로 불려일으켰고 승리에로 추동하였다. 그만큼 전쟁승리에 기여한 그의 몫은 크다. 또한 그 만큼 그의 추억도 궁지높은 추억일것이다. 그런 빛나는 추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조국은 준엄한 시절에 그가 수행한 몫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온 조국이 알고있는 명성높은 로년의 정종수화가, 그는 오늘 잘 꾸려진 화실의 폭신한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아 차를 마시며 젊은 화가들을 지도하면서 생의 말년을 편히 보낼수도 있을것이다.

허나 그는 전쟁참가자들이 다 그러한것처럼 오늘도 여기 최전선, 현지에서 하나의 점, 하나의 선을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로년의 화가는 지금도 그 시절의 그 기분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예나 다름없이 붓을 잡고있는것이다. 이 화가의 이번 그림도 틀림없이 당이 부르는 그길로 전인민을 불려일으키는 전투적인 좋은 그림으로 될것이다. 나는 이 화가가 심장의 화가임을 확신하기에 그의 이번 그림에서도 색, 음영, 구도의 조화와 균형과 세련, 재능뿐아니라 강렬한 심장의 불꽃을 보게 되리라는것을 주저없이 확언하는것이다.

로병인 정종수화와 나는 잊을수 없는 추억들을 나누며 우리가 지켜낸 조국의 하늘, 조국의 땅을 감회깊이 바라본다.

하늘도 푸르고 땅도 푸르다. 록음방초 우거진 산과 계곡들, 신선한 바람조차 물들듯싶은 푸르른 계절이다. 맑고 깨끗한 강에서는 살진 잉어, 살진 산천어들이 유유히 떼지어 헤엄친다. 수풀우거진 산길과 강기슭에는 뽕뽕 꿀벌소리가 들려오고 나비들이 즐겁게 날아다닌다. 신선한 대기는 차츰 달아오르고 싱그러운 진한 수물냄새, 꽃의 향기로 가득찬다.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 조국의 산천인가! 우리자신들이 피로 지켜낸 땅이기에 이토록 소중한고 이처럼 아름다운가...

다리

최성진

련합기업소 지배인 류봉민은 자그마한 광산의 기사장실치고는 필요이상 너털청해보이는 빈 방안을 한동안 서성거리었다. 선조로부터 유전받은 거방한 체격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일꾼으로서의 관록을 인정받아오는 그가 이처럼 착잡한 심정에 빠져보기는 이 근래에 와서 처음이다.

봉민은 담배갑이 들어있는 옆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러다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던 담당의사의 귀에 박힌 충고를 생각하고는 단념했다. 여기로 오는도중 차안에서 이미 《클락새》 한갑을 절반나마 태워버렸던것이다.

그는 쓴입을 다시며 창문가로 다가갔다. 눈길은 저도 모르게 선팡장이 있는 건너편 산중턱에 못박혀버렸다. 거기 키높은 건물의 처마에 달아놓은 축수 높은 외등이 바람에 흔들거리며 파랗한 빛을 발산했다.

봉민은 갑작스런 일로 한산해졌을 선팡장의 무거운 공기가 빙안에까지 짙 서린듯하여 가슴이 답답해왔다.

(사람이 상했다구? 시험생산을 도와주려 내려갔던 연구사가?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란.)

봉민은 문득 모든 소란의 정본인이라고 해야 할 아들이 옆에 있더라도 한듯 《패썸한녀석!》하고 중얼거리었다. 그러자 또 화가 치밀었다.

(이 애비의 말을 듣지 않고 부득부득 광산으로 내려오더니 무슨 일을 저질렀어.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놓고 사람만 상하게 만들었으니. 생산에 혼란을 준 책임을 이제 어떻게 질텐가!)

오늘 하루종일 봉민은 아들 류태영이 선팡기사로 있는 여기 창평광산에 신경이 쏠리었다.

갓 개발되어 아직은 나라의 광업도에 오르지 않은 창평광산은 봉민이네 련합기업소산하의 광산들에 비하면 덩지로 보나 장비수준으로 보나 《새끼광산》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여기 당비서한테서 어제저녁 심상치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선을 타고 수백리밖에서 울려오는 그 가느다란 목소리는 봉민의 운명에 떨어진 퇴성파도 같은것이였다. 7광석의 선팡에서 《선택부선》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광산에서 이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시험생산을 준비한다는것이였다.

봉민은 구멍이 송송난 수화기가 자기를 조롱이라도 한듯 한동안 멍청히 내려다보았다. 《선택부선》이라니? 이 무슨 소린가?!

창평의 당비서가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듯이 말하는 《선택부선》이란 7광석의 선팡에서 주성분인 7금속만을 뽑아내고 나머지를 모두 미광으로

내보내는 현재의 《종합부선》법대신 7광석에 포함되어있는 나머지 열한가지의 유가금속들마저 하나씩 선택하여 부선하는 방법으로도 선팡해낸다는것이다. 봉민은 수년전 어느 자그마한 광산의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선택부선》에 말려들었다가 큰 낭패를 봤었다.

그런데 아들녀석이 여직껏 연구했다는것도 《선택부선》이라지 않는가!

봉민은 불안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다가 끝내는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광산은 뜻밖의 일로 어수선했다. 현지에서 도와주던 연구사가 실험도중에 상하여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가 위급하다는 바람에 시험생산을 벌려놓았던 광산일꾼들이 모두 거기에 갔다는것이였다.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봉민은 번거로운 상념을 털어버리었다.

들어선 사람은 처녀였다.

연한 하늘색 땀가죽이 풍만한 처녀의 곡선미를 생신하게 드러냈다. 처녀에게는 못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남다른 매혹의 원천이 있는듯했다. 그것은 무엇일까? 정확하고 부드러운 몸가짐이나 그 어디라없이 빛발치는듯한 리지인가? 아니 그것은 처녀의 눈이였다. 평평 눈내리는 고요한 날을 련상케 하는 눈, 그런데 그 커다란 눈에는 수심이 어려있었다.

봉민은 아름다운 처녀의 눈에 비낀 수심으로 하여 마음이 언짢았다.

《이건...》 처녀는 웬 편지를 손에 쥔채 주저주저하며 말했다. 《태영기사동무의 편지예요. 기사동무가 부쳐달라고 저한테 부탁했던것인데...》

《우리 태영이가?》

《기사동문 님에 병원으로 떠나면서 무엇때문인지 갑자기 편지를 불살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걸 비서동지가 아시고 없애지 말라고 하시기에...비서동진...》

《말하오.》

《혹시 태영동무의 아버지되시는분이 오실수 있으니 주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도간도간 말하면서 가늘게 한숨을 그었다.

《비서동무가?》 봉민은 중얼거리고나서 처녀에게 물었다.

《처녀동문 무슨 일을 하오?》

《선팡장 실험실에서...》

(선팡장이라구?)

처녀는 들어올 때처럼 수심에 잠겨 조용히 나

가버렸다.

봉민은 처녀가 무엇을 두고 가더라도 한듯 그가 서있던곳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편지를 개봉했다.

아버지 !

오늘 우리 광산은 새로운 선팅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시험생산이 성공하게 되면 조국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또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쌓게 됩니다.

이 뜻깊은 아침에 한생을 7광석의 선팅에 바쳐온 서학진연구사는 누구보다도 행복할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피로움을 안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봉민은 흠칫했다.

(서학진? 그가 여기에 또 무슨 상관이 있단말인가?)

봉민은 은연중 불쾌감인지 두려움인지 중잡을 수없는 감정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끝내 담배갑에 손을 뻗치였다.

몽상의 안개처럼 뽕얇게 떠오르는 담배연기속에 지나온 인생의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점차 명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중에 서학진은? 내가 그 사람을 언제 처음 만났던가? 그래... 그래...)

그것은 류봉민이 광산지배인으로 임명받고 내려온 첫날에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 스무해전이다.

신임지배인 류봉민은 갓 중학생이 된 아들과와 함께 선팅장으로 올라가고있었다. 봄별이 아지랑이를 재물재물 피워올리는 산기슭에는 개나리꽃이 한참이었다. 봉민은 이제 아들에게 선팅장의 우람찬 마광기들이며 부선기들의 신기한 재간을 보여줄려는것이였다.

앞에서 걸어가던 아들이 갑자기 킁득거리였다. 봉민은 무심결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거기 침전못가운데 있는 수채통주변에서 온몸이 감탕투성이가된 한 노동자가 삽질을 하고있었다. 마치도 흙사람이 움직이는듯했다. 봉민은 무엇때문인지 모르게 불쑥 화가 치밀었다.

노동자는 수채통에 들어찬 미광을 퍼올리고있었다. 삽질은 서툴렀다. 그가 미광물에 엉망이된 얼굴을 봉민이네쪽으로 돌리는 순간 아들이 또 웃었다. 봉민은 자기가 무엇때문에 화가 났던지를 깨닫고 아들에게로 사나운 눈길을 획 날리었다.

《덜된너석!》하고 소리쳤다. 아들은 그 서술에 텐겁하여 자라목이 되였다.

봉민은 아들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자신을 느끼며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뭘하십

니까?》하고 따뜻이 물었다. 노동자는 돌아보지 않은채 뭐라고 중얼거리였다. 한참후에야 그는 일손을 놓고 기슭으로 나왔다. 그는 흐느려진 개나리결에 올라서며 《이결보우.》 했다. 그가 내민 두손에는 걸쭉한 미광이 들어있었다.

《자세히 보시우. 노르끼레한게 반짝이지요? 보긴 그저 감탕같지만 여기에 열한가지의 유가금속이 들어있수다. 이렇게 귀한것을 침전못에 그냥 뱉어버리지 않소.》

봉민은 가슴이 확 달아올랐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갑자기 거칠게 노성으로 변해갔다.

《분합니다. <애국가>에도 우리 나라를 은금의 자원이 가득한 나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하자원이 흔하다고 이런걸 망탕 떠내려보낸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소? 분하단말이요!》

그 특유하게 청높은 목소리가 한순간 봉민을 어정쩡하게 했다. 어디서 들은듯한 목소리였다. 어디서? 생각은 망각의 고삭은 이끼를 뚫고 번개치듯 과거를 향해 날아갔다. 폭음, 총성, 랍조등의 눈부신 빛... 《나를 타고넘으라-아!-!》...아, 그렇다. 전쟁시기 자기 목숨으로 우리 련대의 돌격로를 열어준 전사의 목소리가 바로 저런 탁성이였었지!

봉민은 언뜻 떠오른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저었다.

《...광산일꾼들이 너무 무관심하단말입니다. 선팅이 걸려서 지금 당장 유가금속들을 잡아쓸수 없다면 후대들에게라도 넘겨줄수 있도록 해야 할게 아니겠소. 배꼽수채가 고장난걸 내버려두니 나라의 술한 재부가 루설되지 않소.》

장년의 열기가 마디마디에 번뜩이였다.

봉민은 차츰차츰 상대방의 분격에 휘말려드는 자신을 느꼈다. 봉민은 돌몰이 팔팔 넘어나는 수채통을 분해서 바라보다가 《동무, 용서하오. 내 새로 온 지배인이요.》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의 험구를 누우치는듯한 자책의 미소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가 자기를 소개했다. 이름은 서학진, 7광석의 새로운 선팅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며칠전에 연구소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연구사는 인차 조용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드넓은 미광의 호수를 투시하듯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날 봉민은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준절히 꾸짖었다. 《다시는 일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웃지말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새 지배인의 사회일에 침전못 수채를 보수하기 위한 관계부문 일꾼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서학진에 대한 좋은 감정이란 이런것이였다. 그다음엔 그에 대한 쓸쓸한 동정과 노여움뿐이였다. 실패한 연구사... 한생을 랑비한 인간... 이 류봉민의 인생길에 큼직한 오점을 새겨준 사람...

아니 봉민은 그후의 일을 애써 추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봉민은 오랜 시일이 지난뒤에 또

그 일을 상기해야 했다.

봉민이 편합기업소로 올라온후 갖 이사한 새 집으로 대학에 간 아들이 왔다. 졸업을 앞두고 방학이었던것이다. 어느날 봉민은 아들에게 물었다.

《애, 졸업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현장에 내려갈래요,》 아들은 헉헉히 대답했다.

《현장?》

《Γ광석의 새 선광법을 완성해보겠어요.》

봉민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며 아들의 얼굴을 뚫히 쳐다보았다. (Γ광석이라고 했지?)

《어째서 Γ광석을 선택했니? 그건 몹시 까다로운 물건이야,》

《우리 광산들에서 Γ광석의 미광처리문제가 아직 많은 미지수를 남기고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Γ광석을 말아야지요.》

봉민은 가슴이 뭉클했다.

(네가 그걸 걱정하는구나! 그래, 누구나 걱정해야지!) 인젠 아들앞에서의 처신도 달라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기도 했다. 그렇다. 지금은 철딱서니 없는 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된 아들이, 선서를 지킨 제대군인이며 당원 대학생인 아들이 앞에 서있지 않는가.

하지만 선광분야에서의 아들은 아직 햇내기였다. 더우기 스무해 세월을 Γ광석의 선광연구에 바치고 인생말년에 이르러 끝내는 물러난 한 인간의 실패담을 아들이 어찌 알텐가.

《네 나이에엔 모든걸 락관적으로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봉민은 문득 한 인간의 쓸쓸한 얼굴을 상기했다. 황이 든 잎사귀처럼 생활에서 밀려나 생기도 보람도 다 잊어버렸을 인간, 그것은 서학진의 모습이었다. 이제 아들이 또 분별없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그 서학진이처럼 가혹한 실패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랴.

이것을 말해줄것인가? 이 아버지가 Γ광석때문에, 서학진이때문에 책벌까지 받아야 했던 그 일까지도 말해줄것인가? 아니다.

《다른걸 생각해보자. 짧은놈이 응당 현실에 내려가야지. 다만 그 광석만은 안돼! 너는 Γ광석이 어떤 물건인지 아직 모른다.》

보조가 맞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발자국소리가 한동안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벌써 오래전의 일로 되어버린 실패의 날이 떠오른다. 다시는 돌아다보고싶지도 않은 그 일이다. 벗어버린 선광장의 부선키앞에서 묵묵히 실패를 절감하던 그 연구사의 피로움에 찬 얼굴도 다시는 생각하고싶지 않다.

《Γ광석을 위해서 한생을 애쓰다가 헛되이 물러난 사람이 없는줄 아니? 나는 네가 보다 확고한 성공의 길을 택하길 바라서 그러는거야.》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다음날 아들은 대학으로 훌쩍 가버렸다. 몇달이 지난뒤에 아들의 편지가 날아왔다. 북방의 한 유색금속광산에서 부친 편지였다. 아들은 끝내 Γ광석을 찾아갔던것이다. 편지에는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는것과 함께 어쩔수 없이 아버지의 의사를 거역하게 된 이유가 간단히 적혀있었다.

봉민은 편지를 받자 하나밖에 없는 살불이를 의지에 내버렸다고 입빠른 푸념질인 안해에게 버럭 화를 냈다.

《내버려둬! 그간너석!》

그래도 속으로는 생각이 있었다. 현실에 내려가 로동계급들에게서 배우고 생활을 아는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봉민은 앞길이 구만리같은 아들에게만은 그런 쓰라린 실패가 없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아버지인것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줄이야. 더우기 그 서학진이란 사람과 함께 《선택부선》 놀음을 벌려왔단말인가? 어떻게 되여 서학진이 여기에 또 나타났단말인가?

봉민은 불안속에 편지의 글줄을 더듬었다.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자는 일은 모두 놀라운 위훈과 관련되는 일이며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옳고 귀중한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년간계획을 제일먼저 끝낸 지배인으로 주석단에 초대받던 일이며 텔레비죤좌담회에 나 오던 광산적인 《경사》같은것은 제외하고 전쟁시기에 탄 훈장들만 놓고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엔 충분한것이였습니다. 훈장-그것은 조국이 피와 땀을 흘린 성실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신성한 표창이며 영예라는것을 저는 그 나이에 알고있었던것입니다.

어느날 (그날은 인민군창건 기념일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훈장들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훈장을 짊으며 무슨 일로 났는가고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지요.

《이 훈장은 아버지가 탄것이 아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탄 훈장이야 아버지의것이 지 누구의 훈장이겠어요.

《체, 거짓말, 거짓말이지요?》

《정말이다. 전쟁시기였어. 내가 적의 화점을 까러 나가지 않을수 없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걸 알면서 나한테 다리를 놔주자고 탄우속에 뛰어들었어. 그가 아니었다면 난 일어나지도 못했을거야. 그러니 이 훈장이야 그사람이 땀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어둠속에서... 그랬으니까. 적탄에 맞아...》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시더군요. 두눈엔 뜨거운 빛이 흐르고... 분명 그 사람을 추억하더군요. 아마도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된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시던 아버지가 Γ광석을 향해 돌진하려는 이 아들의 팔목을 붙잡으며 《안돼!》 하

고 소리치셨지요. 무엇때문이었던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광산으로 내려온지도 한해가 지나서야 저는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약연구에서 몇차례의 거듭되는 실패로 실망하던 저는 대학스승으로부터 어느 화학공장의 폐산물을 써보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화학공장을 찾아갔던 저는 거기 폐산물작업반의 오랜 노동자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 선풍연구사가 시약원료로 쓰려고 그 공업폐산물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속이 좋지 않은지 합숙밥을 절반도 먹을 못하고 공공 앞다가 밤차로 떠나갔답니다. 무거운 폐산물 배낭을 지고서말이지요.》 노동자는 생각깊은 말을 하더군요. 오랜 인생체험자의 말은 의미심장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를 만나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더군요. 멀리 나의 앞에서 걸어가고있는 나의 선임자, 그가 어떤 인간일가 하는 생각보다도 그가 벌써 폐산물에서 새로운 시약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길로 그 연구사를 찾아떠났습니다.

저는 열차해서 내려 곧장 한 광업연구소의 실험실실을 찾아들어갔습니다. 복잡한 실험기구들이 배치되어있는 넓은 방은 분쇄기의 고르로운 동음으로 차있었습니다.

한 처녀가 문가까이에 쪼그리고 앉아 쇠공이로 철판위에 올려놓은 푸른 시약덩어리를 붓고있더군요. 찾아온 사연을 말했더니 처녀는 이상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다가 옆방으로 안내해주더군요.

인차 기계소리가 멎고 품이 넓은 작업복을 훌렁하게 걸친 한 로인이 저한테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찾으소?》 로인은 저의 시료배낭에 의혹의 눈초리를 박으며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디서 본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군살이 빠진 작고 꺼뒸한 얼굴이며 부자연스러운 거동이며... 어디서 봤을가? 저 투박한 목소리...? 어디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정말 어디서 봤을가? 왜 나를 뚫어지게 보는것일가? 아니 이 사람은 사색에 습관된 사람이다. 지금도 사색하고있는것이다.

《선생님이 화학공장 폐산물로 새로운 선풍시약을 연구하신다기에 이렇게... 전 광산에서 왔습니다.》

화학공장 폐산물이라는 말은 그의 심중에 떨어진 돌멩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흠칫 놀라더니 이어 그 파문인양 고뇌의 빛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동업자의 육감으로 이 늙은 연구사가 실패했다는것을 의식하며 실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대구? ... 그래서... 나를...》 그는 맥락이 닿지 않은 소리를 중얼거리었습니다.

저는 차츰 놀랐습니다. 오래전부터 뇌수에 새

겨진, 망각되었으나 이따금 아리송한 추억속에 빛발처럼 떠오르곤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미광의 호수가 비껴있던 그 눈동자가...

저는 무척 괴로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실패했던말입니까?》

로인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람이 락업을 휘몰아가는 썰렁한 보도우를 묵묵히 내려다보더군요. 그의 원숙한 지성은 철이 이른 털조끼를 입은 수수한 용모속에 가리워져있는듯했습니다.

땡...땡... 조용해진 실험실의 고요를 깨뜨리는 쇠붙이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가 시약을 붓는 소리였습니다. 동안뜨게 울리곤하는 고르롭지 않은 그 소리는 처녀의 불안한 맥박소리처럼 들리더군요. .

《여보 젊은이.》 드디어 로인이 창턱에서 돌아섰습니다. 《그광석의 선풍은 아직 완전치 못하네. 술한 유가금속이 섞여나간단말이야. 자네도 이것이 가슴아파서 찾아왔겠지? 이 모퉁이를 빨리 막아야 할텐데... 말해보게. 자네가 똑똑한 젊은이 같아서 이 말을 하는거야. 자네 한번 이걸 막아보질 않겠나?!》 그는 가슴속에 뚫어번지는 열을 내뿜는듯한 기상이었습니다. 이윽하여 그는 조용히 사색하는 인간으로 되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쉽진 않아. 그광석을 말아나서자면말일세. 자네 이자 겨우 출발의 계주봉을 쥐어야 하는셈이니까. 앞선 계주봉을 받아친 다른 사람들은 벌써 마지막 계선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자네한테 그 뭐라고 하나? 그래 혼장이지. 성공의 월계관이라고들 하는... 그래 차레지지 않을수도 있네. 그래도 자네 일생을 놓지 말아야 하지.》

그의 말속에는 진실이 울리고있었습니다.

저는 불덩이같은것을 삼키며 가져온 시료배낭을 와락 풀어헤쳤습니다. 배낭아구리로 드러난 꺼뒸한 양금을 보자 로인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호흡마저 가빠하는듯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길로 저를 일별하며 묻더군요.

《자네도 이 폐산물로?!》

《선생님, 전 선풍기사입니다. 이 분야를 전공한...》

저는 비로소 그동안의 연구형편과 고충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깊게 듣더군요. 이윽하여 말했습니다.

《장해! 젊은사람이 용소. 동문 대답해! 내가 사람을 헛보지는 않았다니까. 하지만 이 폐산물엔 손을 대지 마오.》 그의 눈길은 다시 폐산물에 닿았습니다. 《...내가 써봤소... 거기에... 아니 안돼!...》

그의 목소리는 먼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폐산물! 쓸모없는 이놈의 물건!)

저는 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련을 두었던

이 폐산물마저도 쓸모없는것이였다는 생각에 당황해지더군요. 다음 순간 저는 이상한 침묵에 놀라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로인의 두눈이 저의 멀고먼 운명의 길을 예언하듯 지켜보고있었습니다.

《... ?!》

《오 !》 하고 로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실험대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금후에 저는 연구사가 꺼내준 두툼한 실험일지를 번져갔습니다. 여러가지 실험결과들은 오랜 탐구의 나날에 격었을 로연구사의 고충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었습니다.

연구사의 마지막 실험은 놀라운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종전의 종합부선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난 새로운 선팡법이었습니다.

(난 왜 이런 길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선생님! 이젠 선팡분야에서의 혁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당당히 앞섰습니다. 1선팡이...》 하고 저는 흥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연구사는 제가 뒤떨어진 계주봉을 받아 쥐었다고 말했지만 1광석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사에 의하여 1광석의 선팡분야는 적어도 20년을 도약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츰 불만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것은 체념해버리기에는 너무도 가슴을 찌르는 본격의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미팡처리때문에 나라가 급해서 그러는데 이런 성공적인 발견을 해놓고도 묵여돌건 뭐란말인가? 혹시 이 연구사가 자기의 창조물을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한 흥정물로...?

《옳지 않습니다. 연구사동지! 어쩌서... 어쩌서 아직 도입하지 않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멍...멍...멍... 처녀의 쇠공이소리는 점점 동안 뜨게 울리더군요. 이어 연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인 좋은 사람이야!》

《?!》

짜증이 나더군요. 쇠공이소리마저 몇어버리고 방안에는 괴롭고도 이상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몇해전의 일이요.》 감정을 묵새길줄 아는 로연구사의 목소리가 비로소 조용조용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난 그때 몇해동안 애써 찾아낸 새로운 선팡법을 한 광산에 도입했더랬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소. 그럴수 있소. 그들은 생산을 책임진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선팡체계로 넘어가자면 설비를 개편해야 했는데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선팡에서 사달이 나면 땀흘려 광석을 캐낸 노동자들의 수고가 령으로 되거든. 그때문에 광산일꾼들은 새 선팡법이 나오면 심중해지는거요. 그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납득시켜야 하오. 난 납득시켰소. 먼저 지배인동

무가 지지해주더군. 그가 비준하여 설비들을 개편했소. , 그런데 실패했소. 처음에는 품위가 보장되었는데 차츰 실수률이 떨어졌소. 나중엔 원광보다도 떨어지더군만.

연구소에 올라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내려갔을 때에는 벌써 다 걸어치웠더군. 그 일로하여 변상문제가 제기되고 지배인은 책벌을...

연구소에선 나더러 올라오라더군. 당조직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소. 비판을 받았소.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미팡문제를 풀라고 나를 믿고 내려보냈는데 생산에 혼란만 주고 실패에 락심한 나머지 신심마저 잃어버렸다는거요.

비판을 받고보니 생각이 깊어지더군. 수채통으로 흘러내리는 유가금속이... 번쩍거리는 보화가 눈앞에서 얼른거리질 않겠소. 그런데말이요. 그날 당보를 받아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우산을 받쳐드시고 비내리는 어느 야금기지 확장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모습이 모셔져있질 않겠소. 수령님께서 나를 엄하게 바라보시며 《동무의 1광석은 어떻게 되었소?》라고 물으시는것 같았소. 가슴이 얼얼하더군. 나라가 유가금속을 급하게 요구하는데 난...

다시 1광석에 달라붙었소. 물론 실패원인을 규명했소. 난 실험을 다시 해보는 과정에 새로운 결 알게 되었소. 동무도 알겠지만 같은 광석이라도 암질은 광산마다, 지어 광구마다 다르지 않소. 그걸 타산 못했거든. 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소. 7년후에, 그러니 근스무해만에 새로운 방법으로 고품위의 정광을 얻어냈소. 바로 그 실험일지에 있는거요. 그방법이 성공하면 1광석에 들어있는 다른 유가금속들도 다 잡아낼수 있소.

생산에 도입하는 일이 남았소. 그러자면 중간시험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그 일때문에 종전의 광산으로 내려갔소. 그래도 나를 처음으로 지지해주던 그 지배인동무를 만나고싶어서였소.

내려가보니 그 사람은 웃기관으로 소환되어갔더군. 그전에 중간시험공장에 놓았던 전동기들은 다 회수해가고...그 사람이 지지해서 다른 기관의 생필직장을 꾸리는데 넘겼다는거요. 그래 어찌겠나. 그가 가있다는 웃기관을 찾아갔지. 그런데...

로연구사는 더 말하지 않더군요. 주름간 눈귀가 가늘게 떨리며 후회의 표정이 두눈에 아르게 비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겁더군요.

눈앞에는 노랑개나리가 어우러지고 아지랑이가 피어나던 파듯한 산기슭이, 드넓은 미팡의 호수가 비껴있던 노동자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술한 재부가 루실된다》고 울부짖던 목소리가, 어지러운 미팡물에 엉망이 졌던 그 《로동자》아저씨가... 아, 그때 저는 얼마나 경망스러운 철부지였던가요.

그러나 저는 이 참된 연구사앞에서 제가 바로

스무해전 그날 침전못가에서 만났던 지배인의 아들이라는것을 차마 말할수 없었습니다.

생활이란 아름다운것이지만 매 인간들앞에 또 얼마나 무자비한것이겠습니까. 그래 그 연구사의을 그렇게도 훗 잊어버린 그 사람이, 연구사는 그때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한생의 피어린 창조물을 외면한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었던말입니까?...

봉민은 눈을 짙 감았다.

비소리... 바람소리... 그저 평범하게 스쳐보냈던일이 이렇듯 가혹한 추억으로 뇌수를 찌를줄이야.

...그날은 종일 비가 내리었다. 그래서 산뜻하게 회칠을 하고 새 비품들을 얹힌 지배인실안에도 녹녹한 습기가 배여있는듯했다. 방금 부서모임을 끝내고 여가를 얻은 봉민은 소파에 몸을 묻었다. 잠시라도 시름없는 상념에 잠겨보고싶었다.

그런데 귀가 웅웅거리었다. 여럿의 론쟁소리, 부서모임의 여운인것이다. 계획이, 생산계획이 문제였다. 산하광산들의 월계획수행에서 파동이 심한것이다. 어째서 어떤 광산들은 앞은걸음을 하고있는것인가?

이때 누군가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봉민은 방금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였으며 그래서 열걸에 《예.》 했다는것을 이렘꽃이 상기했다. 들어선 사람은 비에 후줄근히 젖은 로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

반색하는 홀쭉한 얼굴, 부연 눈...

(저 사람이?!)

봉민은 씨늘한 기운이 심신에 깃드는듯했다. 실패한 연구사, 저 사람을 믿고 선풐계통을 바꾸었다가 이 류봉민이 얼마나 욕을 봤던가. 하지만 봉민은 인차 가슴속에 안개가 서리었다. 따뜻한 동정의 물결이 온몸으로 흘러들고 눈곱마저 축축히 젖어드는듯했다. 지나간 일이 언뜻 떠올랐다.

언젠가 봉민은 자신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광산에 내려갔다가 침전못옆을 지나간적이 있었다. 그때 봉민은 동행하던 공정기사에게 학진연구사의 그후의 소식을 아는가고 물었다.

《소문을 듣자니 실패하고 올라가 연구소에서 비판깨나 받은 모양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랑랭한 조소가 풍기는 말이였다.

봉민에게는 말투의 여운이 몹지 불쾌했다. 그는 그후부터 연구사에 대한 노여움을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사람은 너그려워야 하는것이다.

조금후에 봉민은 연구사가 가져온 낡은 실험일지를 번지고있었다. 그것은 봉민이 전혀 파악이 없는 새로운 선풐법이였다.

(유가금속을 다 잡아낸다? 실수물의 제고?)

봉민은 책상에서 물러났다. 분명 비물에 젖은 몸으로 깨끗한 소파에 앉기 거부해하는 상대방의 심기를 느끼자 측은한 정이 가슴 한귀를 적시였

다.

(만약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이라면! 그렇다면먼저 연구사 개인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겠는가! 실패의 쓴맛을 남기고 생의 말년에 이르도록 해놓은 일이 없으니 얼마나 피로울텐가. 그런데 또 선풐장을 뜯어놓을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빨리 도입해야지요. 그러자니 중간시험에 쓸 전동기 열대가 걸려서 그렇니다. 지배인등무야저를 도와줄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의 얼굴에는 초조의 빛이 살아났다. 봉민은 그것이 약간 거슬리었다.

《전동기라-》 봉민은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물론 도입해야지요. 광산동무들과는 토론해봤는가요?》

《예, 생산과제를 급하게 안고있는 광산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전동기같은거야 연구사등무가 구태여 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사람들이 량반처럼 되어간다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연구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내가 스스로 찾아왔지요. 여기까지...》

(음-) 봉민은 손가락으로 책상귀를 톡톡 두드리었다. 가벼운 한숨을 연기처럼 뿜었다.

(만약 이 연구사가 우리 직무에 올라앉아 단 하루쯤이라도 현실을 관망할수 있다면 좋으련만.

거창한 현실, 아름다운 생산과제...그런데 이 연구사는 자기의 연구사업을 위해 전동기 열대를 달라? 이 새로운 선풐법이 실현될것이거나 하다면? 지하 수만길을 뚫고 솟아오른 암장, 천태만상으로 굳어진 암질...광석에서만은 실험실적방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거든. 선풐에서 단일처방이란 있을수 없다는거야 확정된것인데 그걸 무시한 저 사람의 가설을 믿었다가 책벌까지 받았었지. 그런데도 또 해보겠다고? 전동기 열대를?)

봉민의 눈앞에는 수년전 선풐장문제가 년말총화회의에 올랐던 일이 떠올랐다. 비판의 론조는 지배인의 무책임성을 강조하는데로 나갔다. 선풐 선풐 날이 선 비판들이 지금도 날아와 뒤덜미에 박히는것만 같다. 어째서 도중에 꺾버릴걸 가지고 바쁜 때에 설비를 뜯어냈는가? 생산이 떨어진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참, 그동안 연구사업때문에 거기서 고생이 많았지요.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와서... 리해하시우. 우선 이 자료루 학위론문을 쓰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인젠 학위를 받으셔야지요. 학위를요.》

《그럼 전동기는...?》

《전 동-기-라- 그건 토론해봅시다. 아래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니까요. 허허...》

봉민은 말을 끊었다. 노기와 절망의 주름살이 상대방의 미간에서 꿈틀거리는것이였다. 연구사는 말없이 다가와 책상우의 실험일지를 건어쥐였

다.

《주시우!》 분명 가까스로 내뱉는 조용한 말마다 들에는 얼음버께같은것이 번뜩거렸다.

그의 한마디 말은 봉민이 애써 채워놓은 방안의 따뜻한 공기를 삽시에 얼켜내렸다. 어안이 병병해진가운데 이 사람앞에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변명따위는 전혀 무뎡하리라는 통질감비슷한 감정이 번쩍! 하고 뇌수에 박혔다.

연구사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출입문, 손잡이를 천다는것이 벽쪽에 손을 내밀고 허둥거리었다.

《그런 사람이었군요.》 하고 중얼거리었다.

출입문이 열리자 비소리, 바람소리가 기다렸다는 듯 쓸어들어왔다. 문은 인차 닫기였다.

봉민은 그제야 부르르 몸을 떨었다.

진심으로, 그렇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사람자신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걱정해서 진심으로 말해주지 않았는가!

(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나온단말인가!)

귀전에는 여전히 비소리, 바람소리가 웅웅거렸다. 지금도 그 소음은 들려오는것만 같다. 봉민은 피로운 소음을 털어버리려듯 고개를 획 저었다. 다시금 아들의 편지에 시선이 닿았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안전한 한생》을 위해 전신의 파열구와도 같은 7광석을 향해 달려나가려는 저의 발목을 붙들며 《안돼!》 하고 소리쳤지만 바로 그 파열구를 가리키며 학진연구사는 《빨리 저걸 막으라구!》 하는것이였습니다.

학진연구사는 《여보게, 자넨 일생동안 7광석이란 계주봉을 놓지 말게!》 하더니 실험일지를 내앞에 밀어놓으며 《가져가게.》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네. 유가금속이 떠 내려가는걸 막아야 할게 아니겠나. 빨리.》

열방에서는 뜻밖에도 처녀의 흐느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에 저는 그 처녀가 학진연구사의 딸 서은금이며 아버지의 부조수로 일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가져가오!》 하고 연구사가 또 말했습니다.

한생을 달리고 달려서 결승선에 도달한 《계주봉》을 받으라구? 그것도 이런 공교로운 형편에서...

《아니, 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뭐라구?》 하는 거치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저의 말뜻을 다르게 이해했던것입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때...침전못가에서 만났던 그... 지배인의 아들을...》

《...?!》

연구사는 굳어진 눈길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미 지나간 생활의 토막들을 살려내려는듯 그의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더군요. 한참만에야 《젊은이가?!》 하는 분명치 않은 음조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가 모든것을 깨달았다는것을 느끼자 저는 목이 꺾 매여버렸습니다.

아버지! 글썄 제가 어떻게 그의 실험일지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빗을 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어떻게...

학진연구사는 저를 외면하여 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동통을 참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이지러진 그의 얼굴이 시꺼매오는 창유리에 박힌듯 비껴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구.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는 좋은분이네. 참... 자네가 그 아들이란말인가! ...아들...》

저는 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위원회 지도 밑에 중간시험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전동기는 지배인동지와 기사장동지가 매 단위들에 호소하여 사장된것들을 모아들이고 일부 폐기품들을 재생했습니다. 며칠후에는 학진연구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그의 건강을 넘려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것입니다.

연구사는 첫날부터 출창 현장에 나와 중간시험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에서 한가지의 유색금속만은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진연구사도 우려했던 금속이었습니다. 새로운 거품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첫 시험이 있는 다음부터 연구사에게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현장에 나타나곤했고 무엇인가 심각한 생각에 빠져내리곤했습니다. 얼굴색은 점점 컴컴해졌습니다.

(무엇때문일가?)

어느날 새로운 거품제를 얻어낼 방도를 모색하던 저는 화학공장 폐산물이 생각났습니다. 학진연구사는 이미 폐산물을 써봤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다시 미련이 가더군요. 그때문에 아침일찍 연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부인이 하는 말이 주인은 무슨 시약꾸레미를 싸들고 일이 있다면 새벽에 선광장으로 올라갔더군요. 연구사의 부인은 수예로 늙어온 녀인데 령감이 초반때에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지청구를 제혼자 늘어놓더군요.

돌아서서 나오던 저는 마침 새벽교대가 떨어진 채광장의 광석무지에서 시료를 따가지고 나오는 은금동무를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실험을 해오는게 있지 않소?》

처녀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오래전부터 아버지...》 하더군요.

《말하오.》

《화학공장 폐산물에서 그광석의 선광에 줄 거품제를 얻어내기 위한 연구를 해왔어요. 효능 높은 거품제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요?》

《거기엔 위험한 독성분이 있다는것을 알았어요. 생명체에 해로운…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댈가 봐 침묵하고있었어요!》

저는 연구사가 무슨 시약꾸레미를 들고나갔다는 로부인의 말이 생각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말하오. 집에 그 폐산물이 있지 않소?》

《아버진 그걸 그냥 버릴수는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왔어요. 그런데 며칠전엔 아버지께서 책상위에 옮겨놓은 화학방정식을 봤어요. 분명 독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한것이였어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건 밀폐된 방에서 해야 하는 실험인데 생명에 위험한 실험이예요. 독성분에…몸이…》

《그걸 왜 인제야 말하오?!》

《예? 동문 뭘 말하자는거예요?!》 처녀는 이렇게 발끈 되물으면서도 사태의 진상을 어렴풋이 깨달은듯 창백해지는 얼굴을 선팡장쪽으로 뺨 돌렸습니다.

《아버님이… 연구사동지가 그 실험을 하러 올라갔단말이요. 동문 그것두 모르구.》

저는 선팡장으로 달려올라갔습니다. 눈앞에는 독성분에 중독되어 쓰러진 로연구사의 모습이며 꼭 닫겨진 실험실문이 열려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기사인가? 폐산물을 버리고왔지, 연구사동지가 실험을 해봤다고 해서 폐산물배낭을 그때 홀렁 버리고왔지.) 선팡장의 아득한 층계길을 뚫아오르며 저는 무섭게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실험실은 뜻밖에도 문이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자 섬찟한 예감이 들더군요. 절망감에 눌린 가슴을 달래며 다가서는데 안에서 문득 당비서동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요, 연구사동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서…》

《허, 비서동문 제가 어쨌다구 그러니까?》

연구사의 갈린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막혔던 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사는 부연 눈으로 저를 일별하더군요. 이어 꺼뒀한 폐산물양분을 움켜쥔 연구사의 손이 그의 얼굴가까이에서 와들다들 떨리었습니다. 저는 비서동지가 옆에 있다는것도 잊고 와락 달려들어 폐산물 쥔 손을 나꿔챘습니다.

《선생님?!》

《태영기사!》 연구사는 휘열이 번뜩이는 눈길로 조용히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걱정 말게! 인젠 여기에 독이 없네!》

군살이 빠진 얼굴, 땀방울이 무수히 내뿜치고 파랗은 색조로 변해가는 창백한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압감을 이겨낸 인간의 부드럽고 너그러운 미소였습니다.

연구사의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를 두려움에

질려 주시하던 딸이 벽쪽으로 돌아서며 얼굴을 찡찡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정해요! 아버지 어쨌면… 흑흑… 어쨌면 이 딸한테조차 알리지 않았어요! 어쨌면… 어쨌면!》

《원, 애야, 됐다. 이 아버지가 웃는걸 보렴. 어서 … 허허…》

침묵이 한동안 흐르는가운데 당비서가 중얼거리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료양을 가라는것도 마다하고 굳이 여기로 내려왔지. 연구사동무두 참. 위험한 실험을 혼자서 한단말이요?!》

《비서동무!》

《…!!》

《어쨌든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 !!》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이렇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태영기사! 인젠 마음놓고 이걸루 시험생산을 해야지. 허허…》

《자 병원에… 병원에 가야겠소! 차가 왔소.》

연구사의 거동을 묵묵히 주시하던 당비서동지의 말이였습니다. 비서동지는 이 눈물겨운 격동의 순간에 놀랍게도 그의 심장의 박동이 이상해지고 있음을 꿰뚫어보고있었던것입니다…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나라의 한 과학기술분야가 웅근 20년을 앞질러나가도록 해준 참된 인간이며 과학자인 서학진연구사,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는 고대하던 시험생산을 하루 앞두고 중태에 빠져…

봉민은 더 읽지 못했다. 전화기가 성난듯이 찌르릉거리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들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전을 때리였다.

《기사장동집니까?》

《아니요. 거긴 어대요?》

도병원에서 오는 전화였다. 서은금이란 동무가 선팡장 실험실에 있는데 분석이 끝났으면 급히 보내라는 독촉이였다.

《서은금이라고? 여보시오!》봉민은 서둘러 소리쳤다. 《동문 누구요? 대체 무슨 일이요?》

《넌장, 태영이요. 선팡기사. 태영이요. 연구사가 위험하단말이요! 서학진동지가… 빨리 딸을 찾아 이리루 보내시오. 실험실에 있을거요. 실험실에!》

(서학진이?! … 그럼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람이…?! 그래… 그래… 내가 왜 그걸 미처 생각 못했단말인가!)

전화로였지만 자기를 알아못보는 아들의 질책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봉민의 귀전을 때리였다. 말할수 없는 고독감이 엄습해들었다.

승용차는 어둠에 휩싸인 골짜기의 굽인돌이길을 질주해갔다. 차안에는 류봉민과 서은금이 타고있었다. 봉민은 자꾸만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초조함에 시달리며 속으로 중얼거리였다.

(연구사동무가…학진이… 그 사람이…)

봉민은 문득 처녀를 돌아다보았다. 봉민을 향해 열렬듯말듯 떨리는 입술, 마주 바라보는 물기 자욱한 눈길… 봉민은 가슴이 저릿했다. 이어 봉민은 소스라쳐놀랐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그가 죽다니!)

《그래, 죽지 않아! 동무의 아버지선광장을… 유가금속을 보기전엔 죽지 않아!》 봉민은 전조등의 불빛속으로 당기듯이 들어오는 길우로 초점없는 시선을 보내며 망연히 부르짖었다. 생각은 아득한 추억의 기슭으로 날아갔다.

- 작렬하는 포탄, 폭음과 섬광… 탐조등의 백광이 쏟아져내리고 초연에 숨막히는 언덕으로 중사류봉민은 달려나갔다. 앞에 가시철조망이 나타났다. 그때 봉민은 누군가 다리를 나꿔채는듯한 감을 느끼며 무의식중에 뭐라고 짹 소리를 질렀다. 다리를 더는 움직일수 없었다. 뒤미처 또하나의 시뻘건 탄도가 그의 관자노리를 스쳤다.

봉민은 그자리에 폭 꼬꾸라졌다. 흐려지는 의식속에 봉민은 공격하는 대오의 소음을 들었다. 그것은 아득히 먼 유년시절부터 몸에 뻗고향바다의 억센 소음과도 같은것이였다. 그 소음이 짹 끊기였다. 그 찰나에 누군가 봉민의 옆을 벼락같이 지나가며 소리쳤다.

《나를 타고넘으라!… 빨리!》

봉민은 밤 상공에 그어지는 번개의 예각처럼 선명하고 날카로운 그 거치른 탁성을 온몸으로 감각했던것이다.

봉민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시뻘건 탄도들이 무수히 날아와 박히는 컴컴한 차단물아래에 한전사가 엎드려있었다.

《…저절…까라!》 목소리는 토막토막 끊어진다.

그가 가리키는 철조망너머 적진에서 토목화점이 맹렬히 불을 뿜고있었다. 봉민은 촉망중에 뒤를 돌아보았다. 우뢰치듯 울리던 공격의 함성이 잦아든 다박술둔덕너머로 적탄이 죽음의 선풍을 휘몰아가고있었다.

(다 죽일게다! 이제 몇초만 지체했다간 저놈의 기관총이…)

봉민은 철조망아래에 엎드린 시꺼먼 그림자가 누군지 알수 없었다. 다만 화점을 까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고 그를 타고 넘어가 불아구리에 수류탄을 밀어넣었으며 적의 1선 참호로 돌입했던것이다. 공격의 물결은 다시일어나 앞으로 나아갔고 봉민은 그것으로 하여 후날 전사영예훈장을 수여받았었다. 그런데 대대앞에 위훈의 다리를 놓아준 무명의 전사는?

봉민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그 전사의 얼굴을 그려볼수조차 없는것이 애석했다. 다만 어둠속에서 울리던 거치른 탁성만이 귀에 박혀 오래도록 사라질줄 모르는것이였다. …

봉민은 추억의 심연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비물에 축축히 젖은 대지가, 푸른 거목들이 설레이는 거밋한 산발들과 강녕이모가 자라는 벌이 차창으로 다가오고 다가왔다.

이상하게도 봉민의 의식속에는 철조망밑에 엎드려있던 그 무명전사의 모습이 서학진의 초상으로 그려지는것이였다. 그리고 《술한 재부가 루실된다!》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승용차가 멈춰선다. 아직은 땅거미가 발뼘발뼘 기어다니는 연푸른 새벽이다. 봉민은 차에서 내리자 서은금을 앞세우고 병원의 구급실을 찾아들어갔다.

아들 류태영이 그들을 맞이했다. 밤을 새운 아들의 충혈진 눈에는 놀라움과 의혹의 빛이 엿갈렸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의 눈길이 방안을 가리켰다.

《은금동무, 빨리!》

봉민은 현훈중에 육중한 체구를 약간 비틀었다. 그는 처녀의 곁에 질린 험쵸한 얼굴을 돌아보며 어서 들어가라고 중얼거리였다.

처녀는 주춤거리다가 나는듯이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제야 류태영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안에 당비서동지가 계셔요,》

숙연한 정적이 깃든 방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의 젖어든 목소리가 울리였다. 공기마저 정화된듯한 방안에 가벼운 설렘소리가 일어나고있었다. 그것은 봄날의 숲속에 문득 물어오는 가벼운 미풍처럼 야릇한 환희의 기운이였다. 밝은 빛발이 눈부시게 시린 방가운데 둘러선 하얀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봉민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속에서 류달리 허우대가 크고 얼굴이 기름한 사람이 봉민을 발견하고 가벼운 목례를 보냈다.

그가 마주 걸어나왔다. 아들이 당비서라고 뒤에서 나직이 말했다. 봉민은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동무, 수고하시는군요.》

《광산에 오셨다는 전화를 받았습시다.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당비서는 서학진에게로 다가가려는 봉민을 만류하며 미안해했다. 비서는 미소가 깃든 눈길로 학진의 침상을 가리켰다.

학진은 잠을 자듯이 누워있다가 딸의 목소리를 들은듯 움직거리고있었다.

《조금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신을 잃고서도 분석표만 찾았는데… 딸이 가져온 분석결과가 연구사동무를 안정시켜줄겁니다.》

당비서는 사이를 두었다가 말했다.1

《병원사람들이… 의사들이란 존경이 가는 사람들이지요. 소생시키교말았으니까요. 기어코…》

봉민은 당비서를 피똥 돌아보았다. 그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비서는 공연히 외면하며 말을

끓었다. 봉민의 시선에서 《왜 그런 말만을 하오? 당신이야 나한테 할 말이 있을텐데.》하는 내심의 목소리를 들은듯했다. 그는 공연히 쿵쿵거리었다.

봉민은 그의 거동에 화가 났다.

(말하시오! 당신이야 당일군이 아니요. 뭘 삼가하느냐말이요 i 병원의사들이 어쨌다구? 젠장, 나를 비판하란말이요. 하긴 당신의 속대사도 내 아들녀석의 편지에 들어있으셈이지. 그 때문에 당신은 그 편지지를 불사르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고보면 당신도 목인을 모르는 인간이군요.》

봉민은 비로소 자신에 대한 경멸감에 몸서리치며 서학진에게로 향했다.

학진은 눈을 뜨고있었다. 분석표를 들여다보는 눈동자에는 안정이 깃들어있었다. 한참후에야 그는 봉민에게로 천천히 눈길을 돌리었다.

《연구사동무!》

봉민은 가슴이 쓰러 말할수 없었다. 그의 눈길은 분석자료를 쥐고있는 연구사의 손에 기 멎었다. 푸른 정맥이 튀어나올듯 불거진 자그마한 손에서 줄간 종이장이 떨어졌다.

(나를 욕하시오. 연구사동무!)

《이걸 보시우!》 학진의 시꺼무레한 마른 입술 사이로 또박또박 점을 찍듯하는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학진은 분석표를 그앞에 밀어놓았다.

봉민은 자기한생의 그 무슨 판결문갈기도 한 종이장을 두려움에 질려 집어들었다. 시험생산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적혀있을것이다. 그런데 눈안이 부엌게 흐려와 수자들은 형체만이 보일뿐이었다.

《성공했습니다!》

《!!》

《얼마나 기다려온 오늘입니까! 지배인동무!》

봉민은 무아몽중이 되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학진의 두눈에 비껴있는 격정과 환희의 빛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다.

(얼마나 기다렸는가고? 스무해를 기다렸지. 아니, 한생을 기다렸지. 오늘을 위하여 사람들의 심박에 흘러가는 미광에 넋을 잠그고 그는 탐구의 먼먼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얼마나 기다려온 오늘인가고?) 봉민은 미로소 그 한마디 말속에 연구사의 한생의 모든것이 비껴있음을 알았다.

이런 사람앞에서 이 류봉민이 뭐라고 했는가? 학위논문이나 쓰라고? 그 《인정》이야말로 이 류봉민의 보신을 감싸기 위한 비단보자기가 아니고 뭐란말인가!

(내가 짓궂아버렸다! 내가 이 인간의 한생에서 20년이란 귀중한 세월을 잘라버렸다. 만약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었다더라면 이

연구사의 성공의 길이 얼마나 단축되었으랴!)

《지배인동무!》 연구사는 갑자기 손을 더듬어 봉민의 손을 잡았다. 두눈에 간절한 빛을 담고 말했다.

《빨리 거기서도 도입해주시우!》

봉민은 목이 꺾 메었다.

타는듯한 두눈길이 맞부딪쳤다. 서학진은 문득 피로운 표정으로 변하며 슬며시 외면했다. 그는 딸을 조용히 불렀다.

《아버지!》

《은금아! 창문을 좀 열어주렴. 가슴이 왜 답답...아, 내 한몸이 징검돌이 되어 전진하는 나라의 지름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되자고 했는데... 그래서 1광석을 선택했더랬는데 인젠 다시는 유가금속이 떠내려가지 않겠지. 하지만 조금 더 빠를수 있었던것인데 내가 체구실을 못해서... 그건 분한거다.》

그는 피로와하고있었다. 육체의 아픔때문이 아니었다. 분해서 가슴이 아픈것이였다.

봉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었다. 푸른 산발들과 집들, 풍요한 대지가 뿌이해지는 망막으로 비쳐들었다.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오는듯했다.

《아버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몸이 그대로 징검돌이 되어 비약하는 조국의 지름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봉민은 자기도 모르게 서학진의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오래도록 애썼다. 평온해진 그의 눈동자, 스무해전 버림받던 미망의 호수를 투시하던 그의 눈동자에는 동트는 조국의 붉은 하늘이 고요히 비껴있었다. 봉민은 허전해지는데 학진의 얼굴에서 잊지 못할 무명전사의 모습을 애써 찾고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흠칫 놀랐다.

(이 서학진이 그 사람일수 없지. 그 무명전사는 철조망아래에 엎드려있던 그 시각에 이미 희생되지 않았는가! 그 전사의 얼굴을 난 영원히 볼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참된 인간들은 지금도 있는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조국은 그러한 전사들의 심장에 떠받들려 전진하고있지 않는가!)

눈앞에는 다시금 잊지 못할 격전의 밤이 떠올랐다. 폭음, 총성, 병긋거리는 화염...

(이제는 내가 뛰어들어야 한다. 빨리, 어서 빨리, 그렇다. 전쟁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여전히 촉박한것이다!)

...폭음, 총성, 탁성이 들려온다.

《나를 타고넘으라!-》

그 거치른 목소리가 오늘도 불뿔는 화점을 향해 봉민을 부르는듯...

조국을 생각하며

정덕철

우리 조국

내 쏘피아에 갔을 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평양의 대동강물을
맑디맑은 수정에 비기더라
베를린에 갔을 때엔 금강산을
세계 명승지의 첫자리에 꼽아주었고
송도원의 해당화를
신기한 불꽃같다 하더라

부다뻬슈트의 교외
어느 농장에 들리니
풍년난가리 쌓아올리는
청산별 처녀들의 웃음소리
지금도 귀전에 들린다 하더라
인간의 힘이 막았다고 믿기엔
양상이 모자라는 서해갑문
다시 한번 가보고싶다 하더라

내 비록
수만리 이역땅에 와있어도
한번 보면 한생을 잊을수 없는
조선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두고
제 나라를 자랑하듯

제고장을 그리워하듯
다정히 속삭이는 이런 말 들을 때면
평양의 유보도를 걸어가는듯
웃음소리 하늘가득 날리는 처녀들과
벼바다 설레이는 내 나라의 두렁길도
아득한 갑문언제도 거닐어보는듯

조국이어
사랑하는 조국이어
그 어데 가보아도
너의 우아함
너의 푸른 기상
내가 지닌 불패의 힘
온 세상에 나래치거니
조선이어
내 너의 아들로 태어난 궁지
너를 조국으로 가진 기쁨
내가 한끝까지 가 본
지구보다 크더라
내가 날아본
만리창공보다 넓더라

새벽 창문을 열고

대륙 넘어
이국땅 먼길을 가던 날
하루밤 묵어가라
비행기는 모스크바에 내렸건만
꼭신한 침대를 비워둔채
나는 잠들수 없었다
우리 수령님 모스크바에 계시기에

수없는 창문들이
환히 안겨오는 모스크바
수령님 계시는 창문은
어디쯤 있을가
내 마음 온 도시를 날고날며
그 하나의 창문을 찾고찾았다
여기 모스크바에서도 조국에서처럼
분초를 쪼개여 쓰시며
또 휴식을 잊으셨을 우리 수령님
그 깊은 사색의 세계
우리를 향해 펼쳐가고계시리니

조국을 멀리 떠나오신 수령님
여기서만이라도
이 밤만이라도 편히 쉬시었으면...
조국에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수령님의 구상 받들어
이 한밤을 지새고계시오니

잠시라도 시름을 놓으셨으면...

귀중한 한마디
심장속에 늘 간직하고 사는 한마디
여기서는 여기서는
더 간절해지는 그 한마디
내 금수산의사당 우러르며
가끔 잠못들던 평양의 밤을
모스크바에 옮겨놓은 마음이 되어
백번을 외웠는지
천번을 외웠는지
어느덧 새날이 희뵈히 밝아왔다

조용히 창문을 열고 둘러보니
아, 거리에 늘어선 가로등은
아직도 부드러운 등불을 켜들었고
아름다운 봇나무들은 백포를 두른듯
하얀 줄기 드러내고 고요히 서있었다
하늘에선 억만 별들이
미소를 그리며 반짝이고

네 인사를 보냈다
눈굽을 닦으며 감사드렸다
우리 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사색의 세계를 지켜
너와 함께 밤을 지새 모스크바에...

웃음꽃

이역의 하늘높이
공화국기 펄펄 나뭇기는 집
조선대사관 프락에 들어서니
내 팔에 오롱조롱 매달리는 아이들

이 나라 방문 려장 내 아직 풀지 못했건만
아이들은 꽃잎같은 입술을 쉬임없이 놀리며
저저마다 제 말을
먼저 들어달라 열을 올렸다
오늘아침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시여
두팔 벌려 저희들을 안아보시였다고
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고

아, 여기서도 자랑스레 울리는구나
새해아침이면
설맞이무대에서 돌아온 애들
아버지원수님께서 나오시여
저희들의 춤과 노래 칭찬하시였다고
온 마을이 들썹 떠들던 목소리들이

만리밖에서도 높이 울리는구나
내 조국의 한끝
외진 산골 유치원꼬마들이
원수님 보아주신 빨간 프락포르 그림
귀중한 표창처럼
가슴에 껴안고 뽐내던 목소리들이

복받은 조선의 아이들아
 이 귀염둥이들아
 너희들의 앵두볼에
 한떨기 옷음꽃 피워주시는것도
 그 작은 가슴들에
 즐거움 한가득 안겨주시는것도
 이 세상의 중대사를 모두 안으신 수령님
 미룰수 없는 일로 여기시거니

아버지원수님의 품속에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부럼없이 피어나는 조선의 꽃송이들아
 나는 아직 듣지 못했구나
 행복의 노래처럼
 희망의 노래처럼
 지구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사랑에 목메여 울리는 너희들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더 뜨거운 음악을...

평화의 노래

쏘피아의 잔디 푸른 언덕에
 커다란 기구를 띄워놓은듯
 짐채만한 《지구》를 받들어올리고
 한 소년이 거기로 오르고있었다
 평화의 목소리 합치려 모여온
 세계의 눈길을 한데 모으며
 《지구》의 문을 열고 들어선 소년
 붉은 넥타이 휘날리며
 간절한 눈길로 우리를 굽어보며
 종을 때린다
 땡- 땡-
 청동의 종을

제국주의 전쟁광신자들
 온 지구우에
 재가루를 날리고
 피를 묻히려 달려든다고
 땡- 땡- 땡-

아, 내 어릴적
 우리 학교 지붕우에 줄폭탄을 던지려
 미국놈의 비행기
 교향의 산발을 넘어온다고

두발 동동 구르며 치던 종
 오늘은 네가 때리며 웨치는구나
 인류를 위협하며 울려오는
 저 핵버섯구름 가져내라
 미래에 영원한 평화를 주라

종을 치라
 소년아
 인류의 목소리 높이 울려
 살륙의 폭음을 짓눌러버리라
 지구가 영원히 자기 궤도를 돌고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자장가소리
 아기들의 손에서 울리는 팔랭이소리
 다시는 다시는 몇지 않도록

아, 마치 복채를 들고
 커다란 복을 올리듯
 지구를 두드리는 너의 종소리
 수억만 어린이들 함께 치는 종소리
 평화의 노래 되어
 이 세상 모든 집집의 창문들에
 행복의 메아리 실어가거라

두나이강반에서

수난당한 조국
마자르의 설음
슬픔의 노래로 엮고엮다가
아떨라는 굶주려 쓰러지고말았다
피눈물 싣고 흐느껴우는
두나이강반의 쓸쓸한 언덕우에
우주처럼 큰 세계를 지너
겨레의 사랑
인류의 존경을 받아야 할 시인이
살았으면 아직 좋은 시를 써낼 나이에
일찌기 기아의 희생물이 되었다
양상한 두손을 무릎우에 드리운채
유일한 벗으로 삼고 속마음 주고받던
두나이강을 마주하고 동상으로 굳어졌다

아, 어느 젊은이의 소행일가
그대 손가락뿔에 끼워준 담배대에서
소리없이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
만일 그대가 나를 알수 있다면
담배불 끄고 선뜻 일어나
나를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리
만리를 품고 온 조선시인들의 인사에
행복에 잠겨 어쩔줄 모르리

그대 만일

나와 이야기를 나눌수 있다면
빈 자루처럼 훌쭉한 그대의 적삼안에
아이들이 넣어준 탐스런 사과알
오늘의 마자르 향기인줄 알라
미소를 머금고 내 손에 주리
저 두나이강으로 나를 끌고 가
강물을 손에 담아 쏟으며
어린애마냥 물구슬을 빚으리

그대가 만약
나와 함께 걸을수만 있다면
인정 많은 너인들
그대앞에 방금 놓고간 꽃다발

내 가슴에 안겨주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영웅의 나라
기적의 나라
조선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
극장으로 공원으로
나를 앞세우고 다니리
다정한 옛친구와 헤어지기 아쉬워하듯
이 시인과 끝없이 걸으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서-

백두산에 인사를

나는 마주앉았다
세계의 벗들과 무릎을 마주 대고
쏘피아 호텔의 불빛은 휴게실에
그들속엔
우리 나라에 다녀간 벗들도 적지 않아
조선에서 받은 감회
겨끔내기로 터놓는데
누군가 불쑥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부탁했다
백두산에 자기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러자 누구는
장군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내들었고
누구는 쌍무지개 걸린
천지의 화첩을 펼쳐보였다
통역도 미처 말을 번지기전에
저마다 백두산에 인사를 전해달라며

아, 내 꿈결에도
불러보는 백두산이여
울부짖는 눈보라도
봄바람인양 반기며
흰눈우에 피어난 만병초에
불을 비비던 아메리카 혁명가들

오늘도 그 꽃향기
고향집 향기처럼 잊지 못해하더라

자주의 상징으로 빛나는 백두의 총암에
자기의 운명을 제 손으로 열어가는 벗들
불굴의 신념을 엮고
피어린 그 밀림길
쉬임없이 끊임없이 걸어가고있더라

백두의 산정에 설레이는 장엄한 천지
제국주의아성을 육박해가는
아프리카 투사들의 가슴에
승리의 노래로 출렁이더라

아,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성산아
멀고먼 나라에서 내 너를 우러르니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공산주의 붉은 노을 피어오른 너의 산줄기
어디까지 뻗었는지 알수 없더라
이 세상 모든 대륙이 쳐다보는
너의 높이 얼마인지 모르겠더라

날개

리순화

1

그날아침 석근로인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나이들면 별찮은 일에도 노여움이 서린다더니 딸이 한 한마디의 말이 로인의 가슴에 그다지도 웅이처럼 박혀질줄이야...

로인은 아침일찍 출근차비를 서둘렀다. 촌추내의와 동내의를 입은데다 마누라가 돋보기를 끼고 한코한코 정성스레 떠준 양털내의까지 끼입고 그 우에 또 두툼한 솜바지저고리와 털모자를 썼다.

이것은 그의 고정격식화된 차림새였다. 겨울에 잡아들면서부터 고정된 이 차림새는 그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로동규정처럼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한치의 드림도 없었다.

가방속에 점심밥팩을 꾸러넣고있던 마누라가 령감의 차림새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지청구를 했다.

《늬은이가 맵시를 보겠소? 오늘은 눈보라가 차겠는데 털양말도 한켠레 더 꺼신으시우. 뭇니뮈니해도 몸간수를 잘해야지 늬마에 병이 들면 쉬이 낫지 않는다우. 그리구 이제 제발 좀 건설장의 그장돌뱅이노릇은 그만하슈. 아, 직장마다 작업반마다 겸임로동안전원이 있는데 령감은 무엇때문에 그리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장돌뱅이처럼 온 건설장을 자꾸 돌아치고있소? 그러다 허리증이라도 도지면 어쩔려우》

령감은 마뜩지 않게 눈을 흘기며 면박을 주었다.

《됐소, 쯤, 쯤. 그런 일에 로친넌 참견하지 않아도 돼. 예방의사노릇을 하기가 그리 쉬운줄 아오?》

그 말에 윤씨는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령감이 뭐 보건일군이요? 예방의사는 무슨 예방의사란말이우?》

《저렇게두 답답하다구야. 건설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는 일이나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이나 다른 게 뭐가 있소?》

《웁수다. 어서 나가보시우. 예방의사선생님.》

윤씨는 령감의 손에 가방을 들려주면서 넋지시 물었다.

《그래서 무현이한테 벌을 주었수?》

《뭐 로친이 그건 어떻게 아우?》

령감의 맛갓잡은 눈길에 윤씨에게로 향해졌다.

《아, 우리 집 소식통이 있지 않소.》

윤씨는 딸이 화장을 하고있는 옷방을 향해 슬쩍 결눈질을 해보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령감이 아무리 모르쇠를 해도 난 건설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속속들이 알고있수다.》

《음음, 그저 참새처럼 재재거리길 좋아하니...》

로인은 입이 쓰구운듯 입맛을 켜켜 다시며 신발장이 놓여있는 나들문쪽으로 다가갔다.

윤씨가 옷방문을 열고 딸에게 눈길질을 했다.

어서 따라나가는 신호였다.

삼면경태앞에서 몸치장을 하며 로인내외가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옥실은 웃음을 참느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부랴부랴 아버지를 따라섰다.

《아버지, 같이 가요.》

《네가 오늘아침엔 웬일로 그리 서두르냐?》

로인은 의아한 눈길로 딸을 돌아보았다.

그렇만도 하였다. 부녀간이 광복다리 건설장에서 함께 일하기는 해도 출근길에 동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것은 딸이 아침마다 삼면경태앞에서 몸치장을 하느라고 퍼그나 오랜시간을 끌곤하였기때문이었다.

《아이참, 함께 가면 좋조 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옥실의 속심은 판데 있었다. 옥실은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로인의 마음을 구슬려 어제저녁 무현에게 준 주벌을 해제시키든가 아니면 삼가시켜주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무현은 지난해에 제대되어 광복다리 건설장에서 일하고있는 청년연공이었다.

박달나무마냥 몸이 단단하고 무슨 일에서든 승벽이 강한 이 청년은 건설법위가 확대되어 사람이 딸리는 상황에서 세명이 한조가 되어 하고있던 발대조립작업을 둘이서 맡아하겠다고 자원해나섰다. 그리고는 다른 조에 뒤떨어질새라 불이 번쩍나게 일손을 다그어대었다. 일에만 정신이 팔렸던 무현은 발대 한끝에서 다른 끝으로 옮겨갈 때 안전대를 미처 고정바줄에 걸지 못했던 탓으로 하여 3일동안 작업중지처벌을 받게 되었다.

작업총화가 끝나고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자 무현은 옥실이한테 찾아와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였고 나중에는 처녀를 은근히 부추겼다.

《옥실동무, 동무가 아버지를 참 설복해보우.

내가 안전규정을 좀 위반하기는 했어도 손골 하나 다친데 없고 작업능률은 배나 높였는데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쟁잡는게 매라고 어쨌든 일만 제끼면 될게 아니겠소. 어물거려다 1다리를 말은 동무들보다 떨어지면 어쩔겠소. 우리가 다리공사를 앞당겨야 기본도로건설을 빨리 완공할 수 있고 그래야 광복거리 건설도 지체없이 밀고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말요.》

무현의 그 불같은 일욕심에 공감되어 옥실은 아버지에게 말해보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저녁 석근로인은 옥실이가 잠에 골아떨어질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

부녀는 나란히 출근길에 올랐다. 그들의 머리로 꽃보라마냥 눈꽃이 가벼이 흩날렸다.

《눈이 많이 내릴것 같군.》

로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발대가 미끄럽겠는걸.》

로인의 그런 말들이 옥실의 귀에 들어올리 만 무였다.

처녀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옆에서 종종 발길을 옮기며 줄곧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 있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놓고 무현에게 오늘도 계속 일을 하라는 지령을 주게할것인가?

단방에 명증시킨다면 더없이 좋으련만 아버지의 고집스런 성미를 잘 알고있는 옥실이로서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처녀는 에둘기로 결심하였다.

《아버지!》

《왜?》

《2다리날개타임을 빨리 하자면 발대조립작업부터 다그쳐야겠지요?》

《그야 물론이지.》

《발대조립을 다그치자면 연공 한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제야 로인은 딸의 유인전술에 빠져들고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자는거냐?》

로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바람에 옥실은 삼시에 자라목이 되었다.

《에비 하는 일에 간섭 말고 네 할일이나 착실히 해라.》

옥실은 아버지에게 무현이가 일에 정신이 팔려 안전바를 옮겨거는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그 심정을 리해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이 호소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한번 결정한 원칙을 흥정하려 든다고 딸을 나무람하였고 나중에는 에비를 혼시할셈이냐고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2

아침부터 푸실푸실 내리기 시작한 눈은 한낮경에 이르러 배꽃같은 눈송이로 변하여 더욱 세차게 펄펄 쏟아져내렸다.

건설장의 군데군데에 쌓여있는 흙무지며 모래무지, 자갈무지들이 모두 눈속에 파묻혀 옥망줄만한 숨산을 이루어놓았다. 그물망처럼 조밀하게 엮어놓은 발대우에도 눈송이들이 소복소복 내려쌓여 마치 흰피를 늘어놓은듯하였다.

석근로인은 여느때보다 갑절이나 분주히 작업장의 구석구석들을 돌아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건설장이 눈에 덮일 때면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거의 모든곳이 미끄러지고 위험개소들이 늘어나기때문이었다.

로인은 마음을 놓을수가 없어 목공들이 휘틀조립을 하고있는 다리우에도 올라가보고 발대며 철기둥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는가를 손으로 하나하나 흔들어보기도 하면서 연공들이 오르내려야 할 곳에 이르러서는 발판우에 덧쌓여있는 눈을 몽롱한 숨장감으로 밀끔히 쓸어버리기도 하였다.

《조심하게. 조심하라구.》

작업장의 안전상태를 돌아볼 때마다 로인은 매번 이렇게 당부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로인은 몰탈혼합기옆에 서있는 탑식기증기밀으로 다가가 기증기권양활차에 걸려있는 쇠바줄을 눈여겨 오래오래 살펴보고나서 딸이 앉아있는 운전실을 향해 호각을 길게 불었다.

옥실이가 시창으로 얼굴을 길게 내밀었다.

로인은 딸을 향해 기증기에 걸린 쇠바줄을 내리라고 순시농을 해보였다.

《조전에 부중대장(중대에서 로동안전을 겸하고 있음) 동지가 검열했어요.》

옥실은 아버지에게 공연한 수고를 끼치지 않을 심산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아야 해.》

옥실은 아버지의 요구에 고분고분 순응하였다.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갈구리에 걸린 쇠바줄이 서서히 땅우에 내리드리웠다.

로인은 쇠바줄을 이리저리 굴러보며 금이 간곳이 없나하여 간간히 살펴보았다. 이상이 없음을 알고서야 로인은 마음을 놓고 다른 작업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목공작업반이며 철심작업반을 거쳐 다시 무현이가 일하던 작업장으로 다가가며 로인은 속으로 유별렸다.

(그녀석을 이번에는 단단히 정신을 차리게 해놓아야지.)

아침에 무현을 안전교양실에 불러다놓고 거기에서 안전규정학습을 하라고 옥박질러놓은후 작업장을 돌아보고있는 로인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무현은 안전교양실에서 뛰쳐나와 발대조립장에 가있었다.

로인이 작업장에 나타나자 무현은 능청스럽게도 털모자를 벗고 로인을 향하여 굽벅 절을 하며 싱긋 웃어보이고는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로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고개를 추켜들고 청년을 멍청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무현은 줄타기를 하는 공중교예사마냥 쇠가름대를 타고 아래로 주르르 미끄러져내려왔다가는 우로 훌쩍 뛰어오르곤하면서 발대이음째에다 고정쇠를 대고는 나사틀개로 바싹 조여놓곤하였는데 그숨씨가 어찌나 날랜지 눈깜짝할 사이에 발

대목들을 척척 런결해놓았다. 이쯤되면 석근로인도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여주리라 믿었고 더는 어찌지 못할것이라고 무현은 생각하였다.

그 속심을 모를리 없는 로인이었다.

《자네 나를 업어넘겨보자는 심산인가? 안돼. 당장 내려오라구. 내려와!》

로인은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쳤다. 그러나 무현은 들은채도 않고 더욱 세판게 일손을 다그어댔다.

《만일 안들으면 작업조 전체가 일을 못하게 하겠어.》

로인이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무현은 하는수없이 발대우에서 내려왔다.

무현은 로인한테 빌붙기 시작하였다.

《아바이, 제발 좀...》

《잔말 말고 걷기나 하게.》

로인은 무현의 말을 중증무이시키며 막무가내로 그를 몰아세웠다.

그래도 무현은 비위 좋게 달라붙었다.

《아바이 나는 병사시절에 등반봉오르기와 바줄오르기 명수였습니다. 줄도 없이 수십메터나 되는 벼랑우에도 자유로이 오르내렸단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일한곳은 땅에서 겨우 3메터높이나 될가말가 합니다. 그쯤한데서 일을 할 때에야 뭐가두려워 안전바를 옮겨매느라고 어물거리겠습니까?》

《2메터높이에서부터는 무조건 안전바를 매야해. 이건 어길수 없는 규정이야.》

로인은 조금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너무 규정, 규정 하지 마십시오. 규정에만 지내 얹매여있으면 사람이 소심해지고 대담성도 용기도 없어집니다. 참 이러구야 어떻게 영웅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어느 규정에도 가슴으로 화구를 막으라고 써여있지는 않습니다. 젖은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이글거리는 로속으로 뛰어들라는 규정도 없단말입니다. 제 한몸의 안전만 생각하면서 뼈와 살을 아낀다면 이 방대한 광복거리 건설을 언제다 끝내겠습니까?》

무현이가 열을 올리고있는데 때마침 현장방송원의 랑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현재 도로공사에서 중요한 모퉁이를 말아나선 광복1다리 건설자들은 닻새가 걸려야 할 발대조립작업을 3일동안에 끝내고 콩크리트타입을 시작하였으며 2다리를 맡은 동무들은 뒤늦게 시작한 다리공사를 1다리와 동시에 끝낼 드높은 결의를 안고 불이나게 일손을 다그어가고있습니다.》

《야 저걸 들어보라요. 남들이 벌써 끝냈는데... 에이...》

무현이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누를수 없어 솔뚜정같은 주먹으로 길옆의 가로수대를 냐

다 갈겼다. 그리고는 다시 간청했다.

《모두들 저렇게 뛰고있는데 피가 펄펄 끓고 오룩이 성성한 내가 어떻게 3일씩이나 일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로인은 량미간을 세우고 못마땅한 눈길로 무현을 쏘아보다가 통명스레 내쏘았다.

《나한테도 귀가 있고 눈이 있네. 나를 설복할 생각이랑 말라구. 다시한번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굽배기로 벌을 주겠네.》

낯색하나 변함없는 로인은 강경한 어조로 엄포를 늦고나서 무현을 안전교양실로 끌고갔다. 로인은 안전규정이 적혀있는 《로동보호법규정》을 무현에게 내어주며 오금을 박았다.

《학습한 내용을 저녁에 단단히 받아내겠네. 열빤히 했다가는 내 손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할줄 알게.》

로인은 문을 짹 밀어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또다시 우리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무현은 가슴속에서 그득 차오른 분을 삭일길이 없었다.

실로 석근로인의 심장이야말로 이름 그대로 움직일수도 녹아버릴수도 없는 돌뿌리라고 원망하던 그는 아버지의 마음조차 잘 구슬려놓지 못한 맹꽂이라고 옥실을 원망하기까지 하였다.

3

이게 무슨 꼴이람...

건설장에서 광광 일을 제껴야 할 몸이 안전교양실에 갇혀있자니 무현은 속에서 불이 이는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석근로인이 패씹하게 여겨지면서 로인한테 꾸중을 듣던 지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런줄런줄 되살아났다.

무현이가 교량건설사업소에 배치되어 안전교양을 받은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던 지난해 여름 어느날이었다.

그날 무현은 1작업반 연공들과 함께 기중기로 반을 닦고있었다. 기중기를 옮겨놓아야 할 자리에 암반이 가로막아나섰다. 무현은 메를 잡았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어드는것이 바로 청년들의 자랑이고 긍지며 기쁨이 아니겠는가.

무현은 팔을 휘두르며 힘껏 메를 내리쳤다. 정대끝이 암반에 부딪쳐 탕탕 튀어나면서 불꽃을 일으켰다.

(어디 겨뤄보자는거지? 좋다. 나는 기어코 너를 정복하고야말테다.)

무현은 작업복웃도리를 벗어던졌다.

군대에서 단련된 탄력있는 팔과 어깨와 앞가슴이 하얀 런닝그우로 드러났다.

건설일로 뼈가 굳어진 오랜 연공들이 검실검실한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대어린 눈길로 무현을 주시하였다.

교각감이 될것인가? 발대감이 될것인가?

다리건설자들은 자기들의 대렬에 갇들어온 사

람의 자격을 론할 때 흔히 이 두 부류로 갈라놓곤 한다.

그가 과연 영원히 한곳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다리를 떠받들고 서있을 교각감인가 아니면 임시발판을 위해 잠시잠간 조립했다가는 해체해 버리는 발대감인가?

무현은 오랜 연공들이 자기를 교각감으로 치부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자면 육중한 보를 떠받들고 서있는 교각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더여밀어야 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현은 팔이 빠근해지고 손바닥에 콩알같은 물집이 뛰어나올 때까지 메질을 계속하였다.

《좀 교대하자구.》

인정많은 연공들이 앞을 다투어 무현에게로 다가왔으나 무현은 메를 놓지 않았다.

또다시 메질소리, 곡괭이소리...

돌가루와 흙부스레기가 날아와 무현의 팔과 어깨와 얼굴우에 점점이 얼룩무늬를 지어놓았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는 금시 물이 일어날것처럼뜨거운 열기가 확확 풍겨나왔다.

무현은 안전모를 벗어던졌다.

때마침 바람이 휘-익 불어와 땀으로 범벅이 된 무현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어. 시원해!)

그 순간 무현은 얼마나 기분이 상쾌했던가!

《고마운 바람아 힘껏 불어라

더위를 몰아가고 새힘을 부어다오》

천진한 어린애처럼 흥분된 무현은 자기도 모르게 즉흥시 한구절을 소리내 읊었다.

《허, 이거 시인이 될걸 직업을 잘못 택한게 아닌가?》

작업반의 좌상으로 불리우는 늙수그레한 연공이 주름깊은 눈가에 웃음을 짓고 무현을 바라보았다.

즐거운 목소가 터졌다.

무현은 뒤더수기를 슬슬 굽으며 어줍게 웃었다.

땀을 들이고나니 다시금 기운이 솟구쳐올랐다.

무현은 즐거운 기분으로 가볍게 메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안전모를 벗은게 누구야?》 하는 노한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무현의 가슴을 서늘케 하였다.

무현은 허리를 펴며 머리를 들었다. 어느새 나타났는지 팔에다 《로동안전》 완장을 두른 석근로인이 앞에 떡 버티고서서 무현을 노려보았다.

《동문 안전규정학습을 헛했구만. 누가 안전모를 벗으라고 했어?》

석근로인이 따지고들자 무현은 풀죽은 소리로 어물어물 대꾸하였다.

《아무도... 제가 너무 더워서...》

《돌은 사람머리를 가려보지 않아. 어서 안전모를 쓰게!》

로인의 말은 그 어떤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꽤나 딱딱하군.)

속으로 불만이 꿈틀거렸으나 무현은 순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제야 로인은 다른 작업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젊은 연공이 무현이의 옆구리를 꼭 찌르며 귀뜸해주었다.

《여, 정신 차리라구. 저 령감한테 잘못 걸려들었다. 이거야.》

그는 두손목을 포개어 묶이운 시늉을 해보이며 말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저 령감의 별호가 뭘지 아나? <안전바>야 <안전바>》

젊은 연공은 안전바라는 말에 각별히 힘을 넣어 강조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날이 갈수록 무현의 머리속에 인상깊이 새겨지는 석근로인의 모습은 틀림없는 안전바였다.

광복거리 건설이 한창 고조되어가고있던 올해 정초무렵이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광복거리 건설을 더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건설자들속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는 화불모임을 조직하였다.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사뭇치던 충성의 도가니는 그대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불이 되어 캄캄한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광복거리에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일떠세워 당의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자고 소리높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팔동교로부터 만경대로 가는 갈림길어구에 이르기까지 넓고넓은 건설장을 진감하며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이튿날부터 작업장마다에는 사회주의 경쟁도표가 나붙고 광복거리 건설자들속에서는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의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무현이가 속한 연공작업반에서는 조별로 보조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무현은 3조 조장의 임무를 맡았다. 아직은 신입로동자에 불과한 무현이가 이런 믿음을 받아안은 무현은 기어이 1등의 영예를 떨쳐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기증기운전공 옥실이한테 달려갔다.

《저, 옥실동무, 이제말이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좌로 비켜내리라는 신호고 요만큼 움직이면 약간 옆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반미터정도...》

무현은 너무 급히 설명하느라고 숨이 턱에 닿아 잠시 말을 중단하지 않을수 없었다.

옥실은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다.

《아이참, 동문 내가 뭐 그쯤한 신호도 가려볼 줄 모르는 헛내기인줄 아는가보죠.》

무현은 머주해졌다.

《아니 그저 보조가 맞아야 보조립을 빨리 할수 있겠기에...》

말을 끝맺기도전에 무현은 줄행랑을 놓았다.

즐거운 웃음소리, 롱지거리소리...

뒤이어 몰탈혼합기가 주철판에 자갈 부딪치는 소란한 소리를 내며 와롱와롱 돌아가고 킁다리 타박기중기는 거만하게 팔을 휘저으며 서서히 레루우를 오고갔다. 용접선팔이 번개처럼 번쩍거렸고 제재기에서는 쇠톱이 아즈러운 소리를 내며 쉬임없이 나무판자를 밀어내었다.

신들메를 조여매고 일시에 작업장으로 내달려온 건설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충천하였다.

무현의 신호에 따라 옥실은 중량이 60톤이나 되는 육중한 보를 재치있게 들어올려 조립위치로 운전해갔다.

옥실에게 보내는 무현의 신호는 정확하였고 옥실이 또한 신속히 기중기조정대를 움직여갔다.

무현은 사기가 났다. 어스뱃스럽게 나가던 조별경쟁에서 무현이네 조가 단연 앞서게 되었다. 1등은 문제없다고 확신하였다.

마음이 등떠있던 무현은 기중기밑으로 다가서며 옥실이한테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였다.

무현의 류다른 손시늉에 얼떠름해졌던 옥실은 기중기를 후진시키라는 신호인줄 알고 앞으로 몰아야 할 기중기를 뒤로 움직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근로인이 나타날줄이야...

로인은 엄한 목소리로 무현을 달구어댔다.

《자넨 지금 어디에 정신을 팔고있다? 건설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탕개가 풀려서는 안된다는걸 모르고있나?》

무현은 아무번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도 로인한테는 씨가 먹지 않는다는걸 잘 알고있는 무현이었다.

그날 작업총회에서 실적이 제일 높은 무현이네 작업조가 전진시켜야 할 기중기를 후진시키게 했다는 그 한가지 리유로 하여 3등으로 평가되었을 때 무현은 얼마나 맥이 풀렸던가. 속이 부글거렸으나 로인과 직접 맞설수 없는것이 참기 어려운 고통중의 제일 큰 고통이었다.

무현은 저녁밥 생각도 잊은채로 보통강반을 거닐며 억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모지름을 썼다.

눈덮인 보통강반은 한적하였다.

옥실이가 뒤따라섰다.

《무현동무, 정말 안됐어요.》

처녀는 무현이가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고도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것이 못내 가슴에 걸렸고 그것이 마치 자기탓이거나 한것처럼 미안해하였다.

《아버지 대신 딸이 사과하는거요?》

무현은 석근로인에게 하지 못한 분풀이를 애꾸는 처녀한테 해대었다.

처녀는 잠잠히 몇걸음 옮기다가 사정하다싶이

말하였다.

《아버지를 리해해주세요. 아버지로서는 응당 그럴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럴수밖에 없다? 응당하단말이지? 그래 동문 수치스럽지도 않소? 그췌한 일때문에 3등으로 떨구다니...》

무현은 심히 모욕을 당한듯 분을 삭이지 못하고 씨근덕거렸다.

한동안 눈뵈히는 소리만이 강반의 고요를 깨뜨렸다...

4

저녁퇴근무렵에 석근로인이 안전교양실에 와보니 방은 텅 비어있었다.

(이 녀석이 어델 갔을가?)

잠시 밖에 불일이 있어 나갔으려니 생각한 로인은 무현이가 하루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받아낼 잡도리를 하며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책상우에는 《로동보호법규정》이 펼쳐진채로 놓여있었다.

로인은 책장을 벌컥벌컥 뒤적이며 무현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윽하여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로인은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는 옥실이가 서있었다.

《왜 왔니?》

로인은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옥실은 응석어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로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네가 또 무슨 꿍꿍이를 하자고 왔나보다?》

로인은 대뜸 딸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이나?》

《아버지, 내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안들어주시겠어요?》

옥실은 생글생글 웃으며 아버지에게 다짐부터 받으려 들었다.

《어서 말하렴.》

로인은 좀 무뚝뚝한 소리로 재촉했다.

《저어-무현동무말이에요.》

옥실은 조심히 말꼭지를 떼고나서 아버지의 기색을 살폈다.

로인의 기상은 삽시에 엄엄해졌다.

《그래 무현이가 어쨌단말이나?》

《그동무가 일을 못하니 몸살이 날 지경이래요.》

옥실은 애원에 가까운 소리로 말하였다.

《그런다고 내가 벌을 삭감시켜줄상싶으나? 어리석은 생각 말아.》

로인은 그런 문제라면 더 상정시키지 말라는듯 책상우에 놓여있는 《로동보호법규정》을 집어들고 서류함이 있는곳으로 갔다.

옥실은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아버진 정말 너무 규정에만 얽매여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전바>라고 해요. 그런 비난을 받는게 아버진 부끄럽지도 않아요?》

《<안전바>리는 별명이 어째서? 나한테야 어울리는 별호지.》

이렇게 대꾸하는 로인의 얼굴에는 지어 금지어진 미소까지 떠돌고있었다.

옥실은 기가 막혔다.

어쩌면 자신에 대한 비난을 금지로 여긴단말인가.

아버지가 이쯤되면 그 어떤 말을 한대도 답으로 바뀌치는 격이 되고만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옥실은 용기를 잃고 되돌아서고말았다.

말이 밖으로 사라지자 로인은 웬일인지 고독감에 휩싸여버렸다.

웃고개너머에서 마지막 잔광을 뿌리며 불그스레하게 타오르던 석양빛도 어둑속에 서서히 찾아들고 하루일을 끝낸 기쁨을 나누는듯 웃고 떠들며 집으로 돌아가는 건설자들의 발걸음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로인은 한동안 사무실에서 서성거리며 무현을 기다리다 못해 그를 찾아 돌격대원들의 숙소로 갔다.

팔동교밀에 임시로 지어놓은 돌격대원들의 숙소에는 무현이가 없었다.

《우린 그 친구가 아바이한테 그냥 붙들려있는가했는데요.》

방금 저녁밥을 먹고 들어온듯 불깃불깃하게 달아오른 얼굴을 거울에 비쳐보며 이마우로 흘러내리는 앞머리카락을 비다듬고있던 호실장이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 녀석이 집으로 뺨소닐친게 아닐가? 그런 녀석은 아닌데...)

의심도 하고 부정도 하며 로인은 광복1다리 건설장으로 향하였다.

선내산마루우로 금동이 같은 보름달이 떠올라 눈덮인 건설장을 환히 비쳐주었다.

로인은 은백색의 달빛이 흰히 드러나 벌써 체모를 갖추기 시작한 체육촌 건설장 주변을 살살이 돌아보았다. 그랬으나 무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로인은 다시 1다리밀로 빠진 차굴길을 지나 광복2다리 건설장으로 찾아갔다.

어데선가 철과 철이 부딪치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로인은 발대들을 촘촘히 세워놓은 다리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발대들사이로 누군가 땅우에서 얼른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니 《조심하세요.》 하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말고 제격 또하나 올려보내오.》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렸다.

《손이 시리지 않으세요? 모닥불을 피울가요?》

《팬찮소. 그러다 동무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찌겠소? 쉬지 말고 부지런히 조립해도 낮에 못다한 일을 다 보충할것 같지 못하오.》

주고받는 말소리는 분명 무현이와 옥실이였다.

로인은 갑자기 무딘 쇠붙이에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듯하여 교각뒤에 멈춰선채 그들의 거동을 주시해보았다.

무현은 다리의 왼쪽날개밀에다 발대조립을 하고있었고 옥실은 땅우에서 무현에게 발대들을 섬겨주고있었다.

《안전바를 든든히 매세요. 발대가 미끄러울텐데...》

《동무도 신통히 아버지를 뉘아가는군.》

《아이참,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해서 그러는줄은 왜 모른담.》

옥실이가 토달거렸다.

로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발대들사이로 얼른 거리는 무현의 등뒤를 더듬었다. 청년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에 걸어놓은 안전바가 그 어떤 생명체마냥 흔들거리는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음, 이젠 채심을 하는가보군.)

로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옥실 동무, 동문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무현이가 옥실이한테 묻는 소리였다.

《전 지금 무현동무가 얼마나 추울가? 내려와 몸이라도 좀 녹이고 일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춥소. 따끈따끈한 아래목생각도 없지 않소. 그렇지만 나는 이 거리가 완공되고 여기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친선의 대축전을 벌리게 될 그 날을 그려보면 가슴이 막 설레이군하오.

우리의 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첫걸음을 걸으실 때에는 이 길이 이슬맺힌 작은 오솔길이 아니었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비행기의 활주보다 더 넓은 대도로가 되었소.

옥실동무, 정말 내 한몸이 이 다리를 떠받들고 서있는 교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자 또 한대 올려보내주오.》

말소리는 멎고 나사들개로 고정쇠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대기를 뒤흔들어놓았다.

땡- 땡-

레사로이 들리던 그 소리가 이 순간에는 류달리도 세차게 로인의 가슴을 자극하였다.

자신도 알수 없는 승연한 감정에 휩싸여버렸다.

(내가 사람을 헛보진 않았어. 틀림없는 교각감이라니.)

무현을 그렇게 믿었기에 그를 더없이 귀중히

여겼고 아끼고 싶었던 로인이었다.

(너석두, 나한테 들킬가보아 불을 못피운다구? 손발이 몹시 시릴텐데...)

동정과 런던의 정이 일시에 로인의 가슴에 뜨거운 소용돌이를 몰아왔다.

추운 겨울날 높은곳에서 발대를 조립하는 일이 얼마나 빠근한가를 모르지 않는 로인이었다.

살을 에이는 찬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을 뽕뽕 얼구어놓을 때면 금시라도 발대우에서 뛰어나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해지던가...

그런 일을 밝은 대낮도 아닌 어두운 밤에, 그것도 바로 자기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고있다 생각하니 로인은 가슴이 아릿해졌다.

《너석두 언제 벌써 우리 옥실이까지 휘둥여냈을가?》

로인은 한동안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목공작업반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죽데기를 가져다 불을 피워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윽고 로인은 죽죽데기를 한아름 안고 다리 밑의 안침진곳으로 갔다. 인기척을 내면 무현이와 옥실이를 놀래울가보아 로인은 조심조심 죽데기를 세워 나무고깔을 만들어놓았다. 불쏘시개는 바짝 마른 하얀 대패밥을 한줌 밀어넣었다. 이제 성냥만 드욱 그어대면 금시에 불이 확 일어날것이었다. 그러나 로인은 성냥을 들고 고깔무지앞에 쭈그리고 앉은채 잠시 망설였다. 갑자기 불을 보고 저애들이 놀라면 어찌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더구나 높은곳에서 일하는 무현이가 놀라게 되면 어떤 사고를 저지룰지도 모를 일이었다.

로인은 끝내 불을 달지 못하고 성냥을 손에 친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무현이네가 일하고있는 작업장과 반대쪽방향으로 걸어가 행길에 나섰다. 멀리에서부터 인기척을 내면 그 애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을것이었다.

로인의 생각은 들어맞았다.

행길쪽에서 나는 아버지의 잦은 기침소리를 옥실은 가려들었다.

《무현동무, 아버지가 와요.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아버지도 동무의 마음을 리해해주실거예요.》

옥실의 신호에 따라 무현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

로인이 작업장에 나타났을 때 옥실은 좀 당황해하기는 하였으나 별로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다.

무현은 태연한 자세로 로인을 맞이하였다.

로인은 일부러 엄포를 놓았다.

《자네 곱배기로 별을 받아볼라나?》

그러자 옥실이가 울상이 되어 로인의 팔에 매달렸다.

《아버지, 무현동무를 욱하지 말아요. 저 동무는 오늘 착실하게 안전교양법을 학습했어요. 그리고도 온하루 별을 받다보니 일을 하지 못하게 막 죄스럽다고 하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안타까이 호소했어요. 그마음을 리해해주세요 네? 아버지.》

옥실이의 물기젖은 애원에 로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으나 내색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무현을 올려다보았다.

《자네 내려와 몸을 좀 녹이라구. 내가 불을 피워주지.》

예상외로 부드럽게 울리는 로인의 목소리에 무현은 처음 어리둥절했으나 그것이 진정임을 느끼자 가슴이 후터워졌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무현은 로인을 향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하고는 다시 일손을 놀렸다.

《내려오라구. 늙은이를 노엽히면 죄가 된다네.》

로인의 진정에 못이겨 무현은 발대를 타고 아래로 주르륵 미끄러져내려갔다.

로인은 이미 만들어놓았던 고깔무지에 불을 지펴놓았다. 시뻘건 불길이 널름거리며 세사람의 얼굴과 몸을 따듯이 애무해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세사람은 불무지우로 두손을 내뻗진채 저마다 생각에 잠긴 눈길로 널름거리는 불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나를 노엽게 생각할테지?》

이윽고 로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자네와 이렇게 마주앉으니 옛날 생각이 나누만. 내가 자네만 할 때말일세...》

잠시 말을 끊은 로인은 왜서인지 잔기침을 두어번 킁고나서 몹시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뎐 그 누구도 우리 로동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지.》

로인은 웬일인지 자신의 피눈물나는 과거가 자꾸 돌이켜져 설움과 울분만이 가득찼던 그날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석근은 열두살 때 어머니를 잃고 세방살이집에서 마저 쫓겨났다. 그날은 눈보라 울부짖는 겨울밤이었다. 석근은 어린 두 동생을 이끌고 아버지가 일하고있다는 토목공사장을 찾아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굶주림과 추위 끝없이 이어지는 방랑생활...

천신만고하여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아버지는 불구의 몸이 되어 눈물과 한숨으로 자식들을 맞이하였다. 주인놈의 별장을 짓고 굴뚝축조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는것이였다.

석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험악한 세월에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의 운명을 걸머지기에는 석근의 어깨가 너무도 연약하였다. 그래도 일을 해야 했다. 석근은 무거운 목고채에 짓눌리워 비칠

거렸고 사정없이 후려치는 감독놈의 채찍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하였다.

로동자들을 마소처럼 부리던 세상, 고역의 나날들에서 석근은 얼마나 많은 참상들을 보았던가! 공사장마다에서 무리로 죽고 병신이 되어버린 불쌍한 인생들...

래일은 내 신세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과 절망, 공포감이 가슴에 꽉 차있어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가던 석근이었다.

무사히만 일할수 있다면... 제발 무사할수만 있다면...

석근은 얼마나 그것을 애타게 갈망했던가!

그는 푸른 하늘에 날아에는 새가 부러웠다.

아! 날개라도 있었으면 떨어지지 않으면만...

해방후 장군님께서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로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며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로동안전시설들을 철저히 갖추어준다는것을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여주셨을 때 석근은 난생처음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 이제야 나도 사람값에 드는구나!

석근은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섰고 40년 세월을 하루같이 건설장에서 일하였다.

조국건설에 바친 건설자의 한생을 귀중히 여겨주고 아껴주는 당에서는 환갑이 넘은 지난해부터 그에게 로동안전원의 직책을 맡겨주었다.

석근은 그 직무를 무겁게 받아안았다. 자신을 건설자들의 생명안전을 책임진 《수호신》처럼 간주하였다. 건설장에 있는 모든 안전시설들이 어떻게 차려진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석근로인이었다. ...

절절하게 울리는 로인의 목소리는 따뜻한 화로불의 열기와 더불어 무현의 가슴속에 서서히 젖어들었다.

무현은 고개를 푹 떨구고 자신을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나는 왜서 저 로인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을까...

바로 그 안전바가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나는 왜서 일찍 깨닫지 못했던가! 그것이 오직 남들보다 더 높이 날아보겠다는 일욕심때문이었는가? 아니, 아니야...

무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무현이는 잠시나마 규정을 위반하여 로인에게 걱정을 끼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고마운 조국의 뜨거운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죄송스러웠다.

《아바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현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러는 청년을 생각에 잠긴 눈길로 묵묵히 바라보고있던 로인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한테도 잘못이 있어. 그저 큰소리만 칠줄 알았지 어떻게 하면 자네들에게 안전바의 고마움을 진정으로 느낄수 있게 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미처 머리를 쓰지 못했거든.》

로인의 목소리는 어느덧 자책에 잠겨있었다.

로인은 서글픈 미소를 짓고 사그러져가는 영결 불우에 나무가지들을 올려놓았다.

모닥불은 다시금 불씨를 탁탁 튀기며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허, 불길이 센걸.》

로인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아바이가 피우는 불인데 어린할라구요,》

무현이가 뜻있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옥실은 감동에 젖은 눈길로 아버지와 무현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인가!

불같은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의 뉴대로 이어졌기에 광복거리 건설이 이렇듯 빨리 진척되는것이라고 옥실은 생각하였다.

어느덧 추위에 얼어들었던 얼굴들이 불덩어리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 이제 들어가 쉬게나. 밤잠을 푹 자야 래일 또 한바탕 일을 제낄수 있을게 아닌가?》

무현은 밤을 새워 일한대도 힘이 진할것 같지 않아 로인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서 들어가자구.》

로인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무현은 마지못해 따라일어섰다.

옥실은 아버지와 무현의 기색을 살피며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렸다.

《잠을 자는것도 어길수 없는 우리 생활의 일과야.》

로인은 무현의 등을 떠밀었다.

수십년세월 흠과 모래와 세멘트를 다루며 하얗은 길을 닦고 다리를 세웠을 로인의 투박한 손이 등뒤에 와닿는 순간 무현은 그 손길이 왜 그리도 부드럽게 감촉되었던지...

무현은 후더워져오는 가슴을 안고 숙소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옥실이도 조용히 뒤따랐다.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며 달빛속으로 멀어져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로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들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바가 저들을 더 높이 날을수 있는 사랑의 날개로 되게 해줄까?)

로인은 오래오래 건설장을 돌고돌았다.

한바퀴, 또 한바퀴...

생각에 잠겨 멀어졌다 가까와졌다 하던 로인의 발자국소리가 갑자기 땅에 잦아든듯 잠잠해졌다. 무슨 좋은수가 떠오른 모양으로 로인은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들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써넣기 시작하였다.

건설장의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있어도...

저 불길은 어디서

심봉원

작렬하는 화광에
죽어가는 독사처럼
검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화점이 드러난
적진 45미터
돌격선에 엮드린 33용사

소금을 씹어 기침을 이겨가며
고지에 도사린 적을 향해
손끝으로 풀뿌리를 당기고
더운 가슴을 바위에 비비며
한치 또 한치

놈들의 숨통을 조이며 더듬는
캄캄한 공간이 숨가빠진 하여도
이런 순간, 아, 이런 순간일수록
용사들 가슴속에 사무치는것은
새삶의 희열로 울리던
새조선의 출강종소리
토지표말에 앓은 할미새 울던 봄
그 봄에 정답던 소방울소리

그 생각도 한순간
돌격으로 부르는 구령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장군님 위하여 앞으로!
번개같이 적을 치며
단숨에 고지에 날아올라
캄캄한 밤하늘에
기발을 날린 33용사

저 기발은
339고지에 휘날리는 기발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런가
밤도 태우고 구름도 태우고
미제를 송두리채 불사르는
저 불길이 어디서 솟는가를
용사들이여 이야기하자

그것은 조상만대 소원이던
그 땅을 안고 흐느끼던 가슴속에서
쇠물을 뽑으며 끓던
그 심장속에서 솟았거니

그리고 이야기하자
장군님 받드는 쇠물같이 뜨거운 마음
이 나라 전사들의 가슴에서 솟는
새조선의 녀이다고...

금강교

리금석

위훈과 자랑으로 빛나는
영웅의 금강교가 여기로구나
계곡을 씻으며 내리는 물결소리
잠못들며 기슭에 설레이는 나무잎소리
원쑤를 무찌르던 그날의 거센 숨결인가

보여오는구나, 그날의 모습들이
로인의 곁에 말없이 들어서던
딸이며 며느리와 손자들
한몸이 그대로 교각을 받들어
전선으로 이어진 이 길을 지켜섰던
불굴의 군상이

불비는 머리위에 쏟아져도
성벽처럼 어깨들을 이어서던 사람들
물속에 쓰러지면서도
승리를 믿어 미소 어리던 녀인들의 눈빛이어
분노의 서리발이 번뜩이던
로인들의 성긴 수염발이어

싸우는 병사들 저 멀리 고지에 있어도
전선을 떠넌 그 마음들이
돌격선의 전사에게 수류탄을 쥐여주었다
백병전의 날창들어 원쑤의 가슴팍 함께 찌르고
복수탄을 뽑는 중기의 입철을 함께 눌렀다

직동령 넘어 화선은 수십리여도
영웅의 고지-1211고지는
네우에서부터 싸우고있었다
너는 정녕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지켜
피흘리며 쓰러지며 결사의 혈전을 벌린
1211고지의 한 친구였다

오, 금강교, 금강교
그날 네가 받든것이
어찌 탄약과 식량만이였으랴
너는 벼락을 품은 1211고지의
수천수만 총구들을 받들어올렸다
너는 영웅조선이 웨치는
승리의 합성을 하늘가에 받들어올렸다

단상

속보를 두고

한웅빈

광복거리 건설장에 가면 어느 현장에 가나 어김없이 볼수 있는것이있다. 그것은 속보이다. 속보관들에는 물론이고 일어서는 벽체나 기중기동체, 지어는 아슬한 천정트라스우에도 속보가 나붙어있다. 어떤 채주로 거기에 붙였는지. ...어찌보면 건설자들의 머리수보다 속보가 더 많은듯이 생각된다.

그 속보의 내용과 제목들이 또한 대단히 흥미있다. 속보에서 일종의 승벽이라고 할가, 경쟁심이라고 할가 하는것을 볼수 있다.

한 건설장에서 《뛰고달려도 성차지 않는다!》 하는 속보를 읽고 돌아서면 다른 건설장에서는 《뛰고보니 날고싶다!》 하는 속보가 눈에 들어오고 또반대쪽을 보면 《남이 뛰면 우리는 날자!》 하는 호언장담과 같은 붉은 글자가 통채로 들어올리는 트라스에서 펄럭거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곳에서는 《앞선것을 앞서자!》 하는 속보가 썩여지고있다. 부리나케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얼굴에서는 그 어떤 더 큰 기적이 태어나고있음을 느낄수 있다.

속보란 무척 짧다. 불과 한줄 아니면 두줄, 극상해야 석줄을 넘지 않는다. 때로는 제목이 본문의 전부로 되는 속보도 있다.

그러나 그 짧은 글줄속에는 참으로 많은것이 담겨져있다. 크지도 않고 때로는 글씨가 서투르기도 한 속보마다에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뜨거운 충성심이 담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현장에 갔다가 눈에 띄는 속보로부

터 취재를 시작하려고 한적이 있다. 속보란 처음 마주앉은 사람과 말꼭지를 떼는데는 그저그만이다. 속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그속보의 주인공은 아주 딱한 표정을 지었다.

《혁신자들은 속보에 오른 이름들뿐이 아닙니다. 취재할만한 이야기는 이 건설장의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할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나의 취재상대가 너무 겸손한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안골체육촌의 룡구관 건설장에 갔다온 다음부터 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곳 사람들은 온 일터의 사랑을 받는 네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마치 귀여운 딸에 대하여, 사랑스러운 녀동생에 대하여 말하듯이 이야기했다. 그 처녀들을 《네송이의 꽃》이라고도 했다.

이야기를 듣고나서 나는 무심중 속보들을 보았다. 그런데 길게 늘어선 속보들에는 그 처녀들의 이름이 없었다. 나는 의아해졌다.

《그 처녀들은 없구만요?》 사람들은 도리어 놀란듯이 대답했다.

《매일 그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계속 속보에 내겠습니까?》

듣고보니 옳은 말이였다. 매일 혁신하는데 어떻게 계속 속보에 내겠는가.

그때부터 나는 속보들을 볼 때마다 그 속보의 뒤에 수천수만의 광복거리 건설자들 전부가 서있는듯이 느껴졌다.

그뿐아니라 이 건설장에 없는 사람들, 전국각지에서 지원물자를 보내온 사람들까지도 서있을 듯하다.

사실 그렇지 않을가.

매일 매시각 눈에 띄게 자라나며 완공의 날로 달음질치는 광복거리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가장 훌륭한 속보는 바로 저 거리가 아닐가.

미래

문명학

1

오래간만에 찾아온 고세림을 집안으로 모셔들이며 학천은 반가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제는 나이가 선고개를 넘어 사위까지 본 그였으나 배움의 첫자욱을 떼여준 옛스승을 보니 아득한 동요시절의 마음이 햇풀처럼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알락달락한 나이론조박천으로 자개박듯이 무늬를 짓고 닭털까지 부뿔하게 넣은 방석을 깔아놓으며 학천이가 다심하게 권하는 자리에 고세림은 스스럼없이 앉았다.

이윽고 그는 옛제자의 풍만한 생활을 둘러보며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머금었다.

노란 장판이 얹혀져 있는 방안의 한쪽벽에는 기를기가 도는 번듯한 가구들이 꼭 들어찼다. 천정에 달을듯한 고무나무며 싱싱한 참대, 희귀한 꽃들이 창문쪽벽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있는데 아름에도 골막하지 않을 비취색 화분에 키낮은 반송 한그루가 텔레비존앞으로 소담한 아지를 넉쿨처럼 늘어뜨리고있는 것이 무척 이채롭고 진귀스러워 보였다.

방안은 마치 식물원에라도 들어선듯 온몸이 싱싱한 정서로 휩싸이게 하는 것이었다.

《집을 참 잘 꾸렸군그래.》

《무얼요.》

하면서도 학천은 자기 살림을 자랑하는듯이 한옆으로 비켜서며 러과담배와 재털이등속을 고세림의 앞에 가져다놓았다. 그리고 스승의 쪽으로 바람이 세게 가지 않도록 손으로 바람길을 가늠해보며 선풍기를 적당히 띄워놓고 마주앉으며 로화기가 으스스한 그의 모습에 서운함을 나타내었다.

《선생님, 이젠 펍 늙으셨습니까?》

오른쪽 가리마를 타서 한쪽으로 빗어엮은 술적은 그의 머리칼은 이미 반백이 넘었고 깊숙한 눈귀주름이 실고랑을 지으며 귀등으로 흘러내렸다.

고세림은 허전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보이냐? 하긴 룽순이 문턱인걸. 임자도 이젠 머리에 흰그루가 적잖구만. 허나 몸이 부한게 아직은 펍 젊어보이는걸 허허.》

고세림의 부러움이 섞인 말에 학천은 벗어진 이마를 쓸며 어쭙게 웃었다. 원래 체구가 드레지고 혈색이 좋기도 했지만련합탄광 경리과장일을 맡아보면서부터는 바지멜빵이 핑핑하게 아래배까지 은연중 부푼해진 그였다. 그래그런지 목소리도 우렁우렁하여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자못 틀지고 위엄스러워까지 보였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선풍기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학천은 짐짓 숙연해지었다. 이렇게 옛스승을 만나 회포의 쪽문을 잡는 학천에게는 홀리간 어린 시절이 구름속을 헤치고 나오는 달처럼 우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언 40년전 일...

해방된 이듬해 학천은 처음으로 학교를 갔다.

그러나 그는 열흘을 못가서 소고뼉을 끌려가고 메갓으로 올라가버렸다. 지주집 풀머슴으로 열세살씩이나 더벅나이를 먹은놈이 조무래기들속에 콩밭속의 수수대처럼 꺾두룩하니 끼워앉았기가 창피했던 것이었다.

(농사나 해야지. 내가 이제 무슨 글을 배운담.

그렇지? 얼룩아, 실컷 먹고 기운을 써. 나도 이제 보람을 잡을수 있거든.)

샘터등판의 수풀속에 자빠들히 드러누운 학천은 기다란 쭉대를 내두르며 발가는 시늉을 해보았다.

《이라 길길... 외나외나 마라! 도치->

그런데 그날 수업을 마친 농촌학교선생인 고세림이 온 산판을 해매다싶이하여 자기를 찾아왔다.

학교라 하지만 자그마한 농촌마을의 새로 선 학교다보니 선생도 그 하나뿐이었다. 눈이 쏟아지게 꾸지람을 듣고 종아리에 먹줄이 감기게 회초리를 들이멜줄 알았던 학천은 고세림선생의 조용한 타이름에 아연해지고말았다.

《학천아, 배우기가 힘드니? 아니면 부끄럽다구?》

그래도 배워야 해, 배우는 것이 뭐가 점직하겠니?

우리 글을 배우구 지식을 가져야 새 조국의 주인공실을 할수 있고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수있는거란다.

정 부끄러우면 내가 찾아와서라도 배워주마.

그렇게 해서라도 꼭 배우자, 알겠니?》

어깨를 부드럽게 싸안아주며 타일러주던 고세림의 뜨거운 인정에 눈물까지 흘린 학천은 다음날부터 열성스레 학교를 갔다. ...

그후 성장하여 새 직무를 받을 때마다 학천은 《가갸시절》에 꼭진하게 일깨워주시던 고세림의 타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를 가슴뜨겁게 회고해보곤하였다.

그래 고세림에게 인민교원의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을 듣고는 그 밤으로 긴 축하의 편지를 보냈으며 몇해전 X X1고등중학교 교장으로 임명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에도 후대를 키우는 일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오는 스승에게 존경어린 인사를 잊지 않고 올렸었다.

《재남이 아버지.》

생각을 깨뜨리는 안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자 학천은 조급한 젊은이처럼 벌떡 일어나 사이문가로 다가갔다.

《벌써 댔소? 그리고 여보, 오늘저녁은 좀… 허허 알겠소?》

《알았수.》

얼마 안있어 외손자를 받아안을 남편이 전에 없이 아이들처럼 기뻐하는 모양에 엇비슷하니 마주 늙어오는 안해도 처녀처럼 손등으로 입을 기리며 소리없이 웃었다.

지금 고세림을 앞에 두고 이처럼 기뻐하는 학천의 속마음을 누구도 다는 모른다. 고세림이 찾아온것이 그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와 같은 것이었다.

학천에게는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키우는 외아들이 있다.

우로 딸 셋을 련이어 내리두다가 갓 마흔에 끝자식으로 아들을 본 그는 꼬투리 달린 자식을 기다리던 남자들이 모두 그러듯이 자기의 온 넋을 그 애에게 쏟아붓고있었다.

한것은 순수한 애자지정때문만도 아니었다. 때로 지나간 자기 생의 《력사》를 고즈넉이 회고해 볼때마다 한낱으로 흘러드는 결론이 자식의 장래에 남다른 관심을 돌리게 한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행로, 그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티끌만한 어쭈음도 없을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스물도 채 되기전에 전쟁이라는 불뿔우속에 용약 뛰어들어 조국의 한알 탄알이 되어 싸워이긴 위훈에 이어 제대병사복차림으로 전후복구건설에 바친 청춘시절, 《임자가 신문에 난 나의 세번째 제자》라고 스승한테서까지 찬양의 편지를 받던 한창 나이의 갱건설시절 그리고 당의 배려로 큰 대학을 나오고 련합탄광 경리과장이라는 단순치 않은 일군으로 된 오늘까지…

만족한 생활과 매양 분주하나 사람들의 존경속에 사는 경리부사업으로 어느덧 머리에 흰오리가 섞여가는 학천은 나이가 기울어감에 따라 자기가 어린시절 고세림에게 이끌리어 배움의 길에 오른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가 더우기 생각키우며 고세림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르곤하였다. 그와 함께 자식도 꼭 공부를 많이 시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싶었다.

무엇으로 키울가? 끌리는데는 많았다.

그중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새로운 발명으로 만사람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들에 대한 부러움이 그를 못견디게 잡아끌었다.

과학과 기술, 지혜와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앞

으로의 모든 영예와 존엄을 차지할수 있다는것을 예민하게 감수한 학천은 여러 갈래의 유혹을 모두 뿌리치고 아들의 장래를 과학자의 길로 꼭 눌러놓았다.

《우리 재남인 앞으로 과학자야. 우리 집안의 앞길이 그 애한테 달려있거든.》

기분이 류달리 좋을적마다 안해에게 다짐주듯 이하는 그의 이런 말속에는 사람들의 반찬감이나 가져다주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자기의 경리부일보다 한결 마음을 끄는 과학자의 집안으로 되어보자는 야릇한 심사가 호방한 웃음으로 가리워져있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아들이 4촌누이동생 선영이가 지도하는 학교 다과목소조에게까지 들어가자 학천은 더욱 기운이 솟아나서 전화로 혹은 만날적마다 다심한 부탁을 버릇처럼 하였다.

《선영아, 재남인 1고등중학교엘 꼭 보내야겠다. 난 그저 너만 믿는다.》

선영이도 선뜻 응해나서고 자기 학년에선 손꼽히는 정도라고 매양 기쁜 대답을 주는데 입이 더 벌어진 그는 속으로 은근히 줄사다리를 꼬기 시작하였다.

××1고등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고세림에게 아들의 장래를 부탁하자. 나를 공부시키느라 애쓰던 스승인만치 우리 아들도 꼭 훌륭히 키워줄것이다. 일이 잘될 때라 ××1고등중학교는 자식 가진 사람들이 너나없이 매력을 느끼는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웃집처녀를 노리는 총각처럼 마음을 바장이고있는 터였다.

그런데 고세림이 제절로 불쑥 찾아올줄이야…

학천은 새까만 옷칠을 하여 만들거리는 작은 밥상을 고세림앞에 정중하게 들여다놓았다.

《선생님, 이거라도 우선, 행동기에 넣었던것인데 써원할겁니다.》

《이거 도마도화채군 그래.》

고세림의 입에서는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동글납작하니 곱게 저미어 사랑가루에 재운 그것은 단풍빛갈처럼 발그레한 단물이 푹 배인것이 향기라도 풍길듯 맛스러워보였다.

이어 우유빛거품이 부그그 끓어오르는 맥주까지 받아들자 고세림은 《하! 이런…》 하고 반가와하며 거의 반고뿌나 비웠다. 빈 고뿌에 마저 채워놓으며 학천은 넌지시 이야기의 변죽을 건드렸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 한복골에 선생님이 먼 길을 나섰습니까? 젊은 교원들도 많았는데…》

《응, 내가 올일이 있었네. 여기 교육기자재공장에 불일도 있고 일전에 선영선생의 부탁도 있고 해서… 여기 충성인민학교 다과목소조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니 한번 내려와 검열해줄수 없겠는가고 편지를 보내왔더군.》

고세림은 학천이 내놓은 수건으로 입술을 가버

이 닦으며 미소어린 눈길을 주었다.

《우리 선영이가요?》

학천은 숨차오르는 그 어떤 기쁨으로 속을 울렁이었다.

무엇을 그려보는듯 실눈이 지어지고 빙그레 입귀까지 들렸다.

선영이는 분명 올해 1고등중학교에 보낼 아이들을 고세림에게 미리 맞선을 보이고싶어서 그런 부탁을 했을것이다. 소조에 들어있는 재남이를 품에 끼고 배워주다싶이하며 칭찬을 하던 선영이고보면... 제나름으로 줄을 놓고 생각을 맞추어나가던 학천은 드디어 실직한 녀적다리를 두드리며 부엌부엌한 얼굴에 웃음을 피워올렸다.

《허허 애두 참...》

자기도 모르게 재남이의 1고등중학교 입학문제를 다 성사시켜놓고 차시루떡같은 기쁨으로 갑자기 놀래워주려는 누이동생의 깜찍하고 가룩한 마음이 헤아려지자 학천은 그가 쓸어주고싶도록 귀여워졌다.

얼나간 사람처럼 빙글거리는 학천을 의아스레 마주보며 고세림이 물었다.

《임자 무슨 기쁜일이 있는 모양이군 그래?》

학천은 더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듣고난 고세림도 무릎을 들썩이며 마주 웃었다.

《그렇됐군. 보아하니 임자도 욕심은 어지간히 두렵구만. 늙마에 엉큼하게 아들욕심을 낸걸보니... 허허, 그 애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단말이지?》

《사실은 그만두자구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주씨대가 끊어지면 안된다고 제편에서, 허-》

지속한 나이도 나이려니와 아들의 장래문제가 실꾸리 풀리는듯하여 마음이 한껏 부풀어오른 학천의 입에서는 자기로서도 다잡지 못할 우스개말이 수도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러자 부엌에서 무안이 섞인 안해의 가벼운 질책이 구수한 음식내에 실려들어왔다.

《아이구, 온참, 당신두 누가 할 소릴, 선생님 앞에 두시구 그제 무슨 말씀이시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온 방안에 가득차다. 이윽고 웃음이 걷히자 학천은 아들을 빗대놓고 자기의 속마음을 활짝 헤쳐놓았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선생님, 그녀석이 공부를 어떻게 나근하게 하는지... 어떤 때는 밤 늦도록 숙제풀이를 하다가 어푸러져 잠이 든것을 내 자리에 안아다 눕혀놓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들여다보곤하지요. 참, 부모의 기쁨이란게... 제 그래서 만사를 잊혀놓구 그 애만은 꼭 1고등중학교에 보내자구 합니다.》

《암, 그래야지. 과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는 더 하지.》

맥주를 한두고뿌 더 들고 얼굴들에 불깃한 화기가 돌자 학천 가다듬고있던 몸가짐새를 풀어놓으며 반죽종게 청을 들이댔다.

《선생님, 거는 우리 재남이를 선생님에게 떠맡기자구 합니다. 오셨던길에 아예...》

의외에도 고세림이 가볍게 머리를 젖는 바람에 학천은 커다란 눈을 겁석거리며 말을 중동무이 하고 말았다.

《허, 들이대는군... 하여튼 이제 두고보세. 래일 다과목소조학생들을 모아놓고 만나보도록 하지. 물론 정식 입학시험은 본교에 올라가서 쳐야겠지만... 문제는 성적이 뛰어나야 하네. 난 그런 학생들을 뽑아가는 교장이니까. 허허...》

선풍기모가지가 이쪽으로 돌아오며 달아온 학천의 번대이마에 선신한 바람을 끼었어주었다. 기대했던것과는 뜻밖으로 애매한 고세림의 태도에 무안을 느낀 학천은 짐짓 숙연해진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시험은 우리 학교 요구수준대로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중학교나 대학수준문제도 낼수 있네.》

고세림의 대답은 거칠매가 없이 담담하였다.

그의 첫 대답부터 안심찮았던 학천은 대학수준 문제라는 말까지 들자 두팔을 의자다리처럼 뒤로 뻗쳐디디며 몸을 젖혔다.

《요구가 그렇게두 높습니까?》

선영의 말을 듣고해서 1고등중학교 입학시험문제가 어렵다는것쯤은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아뜩한줄은 참말 몰랐다.

아무리 총명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학교로서니 머리가 애호박처럼 잘자른한 인민반 4학년아이들한테서 그렇게까지 높은 문제를 받아보다니? 고세림이 롱을 하는것 같아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어릴 때는 황소논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학천의 부리부리한 눈이 더더욱 둥그래지는것을 바라보며 고세림은 빙그레 웃었다.

《왜 믿어지질 않나, 허어?》

고세림은 유감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얼굴색을 고치며 찬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의 지능이 상상을 초월하네. 임자두 말들었겠지? 10대에 외국어를 일곱개나 터득하구 20대에 박사가 된 수재들에 대한 얘기말이네.

바로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자고 요구성을 높이는거네.》

고세림의 어조는 부드러웠으나 거기에는 시대적요구가 하늘같이 높다는 강조가 뚜렷하니 깔려있었다.

학천의 어굴에는 옅은 그늘이 내리덮이기 시작

했다.

대학수준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이 그런 정도의 문제까지 풀어내리라는 믿음이 가질 않았다.

대학수준은 고사하고 중학교문제도 기연미연해 지는 것이었다. 하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수학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으시대는 것이 대견하여 덩달아 칭찬을 해준 적은 있지만...

이래저래 학천은 몸이 풀자루처럼 느슨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말 못할 근심이 가슴속에서 어둡서니처럼 커가는데 고세림이 이번에는 더 놀라운 소리를 했다.

《바로 그런 영특한 학생이 있다고 선영 선생이 편지를 띄워왔던 거네. 홍대술이라는 학생이라던가...》

순간 학천은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 어리뻑해 있다가 다시 확인하려는 듯 조급스레 물었다.

《아니 누구라고요?》

《왜, 대술학생을 아나? 그 학생은 벌써 중학교 6학년교재를 공부하고 있고 외국어만 해도 수백단 어나 소유하고 웬만한 회화까지 한다더군.》

학천은 맥주고뿌손잡이를 잡은 채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혹시 고세림이 자기 아들 재남이란 이름과 착각된 것이 아닐까 미심하게도 생각하였으나 이내 도리질을 하였다.

순간이나마 스승을 그렇게 외람지게 생각한 학천은 무엄한 자기를 질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꼬리를 물며 뒤엎켜 돌아가는 복잡한 생각을 누르며 다시 한번 고세림의 말을 조용히 음미해보았다.

선영의 편지, 대술이를 칭찬하는 고세림... 그러니까 선영이는 자기 재남이보다도 얼굴도 모르 대술이라는 애를 더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하다면 우리 재남이는?... 눈앞이 어질어질해지고 마음이 언짢아진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까지 남의 잔치에 춤추는 격으로 복치고 정때리며 혼자 흥떡거리지 않았는가?

드디어 학천의 가슴속에 락엽처럼 가려쌓이던 아들에 대한 근심이 순식간에 선영에 대한 노여움으로 변하여 맥주거품처럼 끓어올랐다.

고세림이 저녁상을 물리기 바쁘게 학천은 사무실에 나갔다가 울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급히 집을 나섰다.

(선영아, 난 너를 그렇게 안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속여넘기다니? 무슨 이유인지 말좀 해보자!)

2

대체로 남매간의 사랑이 자별하다지만 4촌간이

먼서도 선영에 대한 학천의 정은 남다르게 살뜰하였다.

손우아래 혈분이 하나없이 어려서 부모를 여윈 학천은 숙모인 선영의 어머니의 손길아래서 자라났고 그 손에서 장가까지 들었다. 그 고마움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 학천은 자기의 구실을 하느라고 선영이에게 지극한 사랑을 깡그리 쏟아 붓고 있었다.

다과목소조실을 새로 꾸리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화학품 등을 동분서주 뛰여다니며 구해다 주고 출장길에도 잊지 않고 갖 류행되기 시작한 처녀들의 특색있는 옷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사다 주고... 그럴 때마다 볼우물을 지으며 기뻐하는 누이동생을 바라보며 흐뭇함을 금치 못했다.

꽃리봉 나풀거리던 시절부터 학천의 손끝에 묻어다니다시피한 선영이도 이처럼 웅심깊고 너그러운 학천이를 무렵없이 따르고 존경하였다.

스물다섯이라는 처녀로서는 원숙한 나이에 실력있고 경험많은 교원로르 성장한 선영이건만 학천의 앞에서는 늘 응석티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 아이가 되곤 하였다.

원앙새부부라더니 이들이야말로 비둘기 한쌍같은 남매였다.

그런 선영이가 재남이를 현산짝 던지듯 젖혀놓다니? 선영이네 집이 가까와올수록 학천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노여움이 성난 황소뿔처럼 점점 추켜들리웠다.

밤이 이슬해오는데도 선영이네 창문에서는 한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학천은 늘 다니던 습관대로 기척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있나?》

그의 목소리를 가려들은 선영이가 웃음이 남실 거리는 가름한 얼굴을 사이문가에 나타냈다.

호리호리한 몸에 함박꽃무늬 원피스를 맵시있게 차려입은 그의 자태는 더욱 이뻐보였다.

《아이, 오빠 오세요?》

학천은 대답없이 쑥 들어갔다. 그때 비껴서던 선영의 손끝에서 색물방울이 노란 장판바닥에 툭랑 떨어지며 유치원애들이 해님을 그려놓은 것처럼 빨간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손에 쥐고있던 붓에서 떨어진 안료방울이었다.

《어머!》 사뭇 놀라는 시늉을 하면서도 선영이는 가르르 웃으며 얼른 걸레로 닦았다. 학천의 앞에서는 항용 그러는 재롱태였다.

하지만 학천은 통나무처럼 우뚝 서서 뿌연 눈길로 방한기운데 퍼놓은 큼직한 흰 종이장을 내려다보았다. 선영이가 걸그림을 그리던 모양이었다.

이때 옷방에서 웬 소년이 일어나며 문턱너머에서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새물거리며 뒤로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이 소년은 자기를 아는체하는 기미

었다.

《누군데, 나를 아냐?》

《재남이네 아... 저- 후방부...》

소년은 저로도 몇적은지 말꼬리를 끌고 벽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씨익 웃었다. 학교일을 도와주러 자주 들리곤하던 자기를 재남의 아버지로보다도 후방부일군으로 더 잘 아는듯한 소년의 거동새가 깜찍하고 기특하게 보였으나 학천은 별로 따뜻한 말이 나가지 않았다.

대술이란 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여겨보았다.

자기를 닮아 턱둘레가 동그랗게 돌아가고 눈등이 보통보통하여 복성스러운 재남이와는 달리 가름하고 동글납작한 얼굴에 마늘쪽같이 오뎝한 코며 가늘게 건너간 빨그레한 입이며가 펍 오달지고 영특해보이는 아이였다. 선영이가 그들 사이에 끼우며 소년을 대견스레 소개하였다.

《제가 말은 다과목소조학생이예요. 숙제를 하다가 모를 문제가 있다구 물으러 왔지요워.》

학천은 별다른 표정없이 고개를 건승 끄덕이며 심상한 눈길로 아이를 한번 더 일별하더니 꿈 무겁게 오금을 꺾고 앉았다. 울기가 한가득 피여오른 그였으나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옷방의 소년을 눈짓으로라도 돌려보내려는듯이 씨뿌듯한 눈길로 다시한번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소년은 앉음뱅이책상에 코를 맞대고앉아 공부에 몰몰하여 일어날념도 안했다. 하는수없이 학천은 얼굴을 가늘게 찡그리며 살이 내비치는 나일론사프즈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뚜해진 입술에 찔러물렀다.

그러는사이 그림우에 덧붓질을 몇번 하고난 선영이가 맑은 살결에 연하게 삼시울진 순하고 아름다운 눈을 학천에게 돌리며 불에 썬을 찔었다.

《오빠 보기엔 어때요? 비슷해보여요? 아이, 미술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까. 난 한시간이나 그렸는데두...》

선영이는 갖은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안타깝다는듯 얼굴을 곱게 찌프리며 미태를 지었다.

거방진 몸에 잔감정따위는 내비치지 않는 학천이고 또 늘 관심이 되어 별다른 일이 없이도 자주 들리곤하는 그여서 오늘도 그런 걸음으로 아는지 선영이는 학천의 기분같은건 아랑곳도 하지 않는 모양같았다.

하는수없이 학천이도 시무령한 눈길로 그림을 건너다보았다. 그것은 꽃이나 사람같은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은하계를 바탕으로 푸른 공간에 두둥실 떠있는 인공위성이었다. 또 다른 종이에는 사람같이 생긴 로봇트가 이상한 기계로 석탄을 캐고있는 환상화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있었다. 그리고 또, 또... 그러루한 그림은 여러장이었다.

그것도 도면처럼 감정 무딘 선만으로가 아니라

여러가지 색으로 조화를 맞추어서 제법 그럴듯한 화폭맛이 안겨오는것이였다. 하나의 교육용 걸그림에도 무척 간간하고 섬세한 선영이의 정성이 담겨져있다는것이 어렵지 않게 알리였다.

자기의 평가를 기다리는듯 말꼬리며 쳐다보고있는 선영이의 눈길을 정수리로 느끼며 학천은 투박하게 한마디 내뱉었다.

《인민반애들에게 우주공학이라도 가르칠셈이나?》

그의 말을 톡으로 알았던지 선영이는 또다시 깔깔 웃으며 물리해하는척하는 학천이를 학생처럼 여기듯이 교원다운 자세를 지어보이였다.

《호호 그러참구요. 이제 다 최신과학의 창조물이 아니예요? 이런 인공위성을 우리 나라 하늘에 띄워놓으면 가물철엔 비구름을 몰아오고 장마때는 비를 몰아내면서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할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지하로동도 이런 <기계사람>이 대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우는 학생들에겐 꿈을 주고 포부를 주고 높은 목표를 세워주어야 해요.

전 우리 소조애들이 앞으로 모두 그런 과학자들이 되길 바래요.》

선영이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종달새같이 기쁨이 차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봄날같은 희망을 불러오는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휘말려들어 해판생각을 하고있는 자기를 속으로 질책하며 학천은 우정 잔기침을 토했다.

《에헴, 그렇게 해보려무나,》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책상앞에 움하니 앉아있는 소년이 역증스러워난 학천은 제잡담 거치른 말을 내뱉고야말았다.

《애 선영아, 너 어찌자는거냐?》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어른들의 내용으로 번져가는것을 눈치챈 소년이 책을 옆구리에 끼고 살며시 일어났다.

《대술이, 캄캄한데 조심히 가요. 그리고 그 문젤 꼭 풀고 자요?》

따뜻한 부락을 하며 소년을 밖에까지 바래고 들어온 선영이는 컴컴한 학천의 얼굴을 주시하며 무릎을 포개고 조심스레 앉았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단둘이 있게 되자 학천은 주저될것이 없었다. 이제껏 참아왔던 노기가 한꺼번에 욱 치밀어올랐다.

《애, 말 좀 해보자. 우리 재남인 왜 1고등엘 못가니?》

《네에 ? 무슨 말을...》 선영이의 속눈썹이 치켜들리웠다.

짐짓 모르는척하는듯한 선영의 고운 얼굴이 학천에게는 여느때없이 얄미워보였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내앞에서 시침일 떼게

됐나말이다. 뭐 세림선생에게 대술이란 애를 추천했다면서?》

학전은 우정 말을 보태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선영이는 오히려 그의 질책을 터무니없어하며 웃었다.

오해하고있는줄로 아는 모양이었다.

《오빠 그런게 아니예요. 대술이가 특별나게 공부를 잘하길래 한번 건의해본거지요 뭐.》

《야야 말말아. 남의 아인 추어올리면서 제 조카는 미끄러뜨리구, 네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길래 그러니, 응?》

《오빠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얼굴이 해쓱하니 질린 선영이는 썰쭉해지며 반박할듯이 학전을 치며보다가 그의 성난 눈길과 마주치자 고개를 외로꼬았다. 그리고 잠자코 원피스의 혼술을 손가락으로 접어잡고 간단없이 비비었다.

그제야 선영이가 철없이 처신한 자기의 실책을 뉘우치는것이라고 생각되고 마음 어린 누이동생에게 체면없이 큰소리를 친것이 먼구스러운 학전은 목소리를 얼마간 누그러뜨리었다.

《난 네가 그럴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마음을 봐서라도 재남이 하나야 두두러지게 키워내겠거니 믿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나 있는 조카는 먹다남은 사과찌꺼기처럼 버리구... 그리구두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지?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말이다. 공해있지 말구 툭 털어 말 좀 해봐라!》

바람받은 풍로불처럼 또다시 기고만장해진 학전은 담배대로 재털이를 두드려대며 선영이를 다 몰아냈다.

선영이가 피륙 고개를 돌렸다. 선하고 시원스레 보이던 눈이 나무그늘이 드리운 호수물처럼 깊어보였다. 그 눈길에는 오빠가 왜 저렇게 우직스러워졌을가, 내가 존경해온 오빠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아연하고 애달픈 원망이 깃들어있는듯싶었다.

달아올라 뭇그릇같이 번들거리는, 별그뎡뎡한 학전의 이마를 더 보기가 거북한지 선영이는 피하듯이 시선을 돌리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꼭지를 뱉다.

《저도 오빠의 마음을 잘 알아요. 또 대술이를 재남이보다 더 생각한적도 없구요. 한데 오빠는...》

사죄하는것처럼 가늘게 떨려나오던 선영의 목소리에는 철 어린 소녀애들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기풍을 돋우는듯한 기색이 점점 짙어가기 시작하였다.

《오빠는 잘못 알고있어요.

전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누구보다 공부에 더 역성을 내야 할 재남이는 요즈음 왜서인지 이상하게 변해가고있어요.

오빠의 이 전자주산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선영이가 책상빼람에서 꺼내놓는 자기의 전자주산을 학전은 어정정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사무실에서 쓰다가 주머니에 넣은채로 집에 가져왔던 소형전자주산이었다.

선영이는 사리를 밝히듯이 담담한 어조로 이어나갔다.

...오늘 재남이는 그 전자주산을 소조학습에 가지고와서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우쭐렁거렸다.

《우리 아버지가 전자주산두 쓸줄 알아야 1고등 중학교엘 간다구 했어.》

《아니야, 우리 아직 전자주산을 쓰면 안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아이들이 빙 둘러싼 가운데 대술이가 반박해나서고 서로 우겨대기 시작했다. 선영이가 인차 교실에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말다툼이 커질번하였다.

학전은 어지간히 주눅이 들었다. 언젠가 오가는길에서 만나 귀뜸해주던 선영이의 말도 그제야 생각났다. 그때 아이의 어리광으로 생각하여 귀등으로 흘려보냈던것이다.

《아이들이 전자주산으로 공부하는것도 나쁘단 말이나?》

《일정한 과학지식을 가졌거나 그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편리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과학의 원리를 습득하는 사고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거예요.》

론박할수 없게 정연한 선영의 잔잔한 어조에는 사소한것이라도 스쳐보낼수 없다는 교육자의 높은 요구적자세가 력연하게 어려있었다.

존경은 하여도 순종만 할수 없고 인정에 끌려도 편역만 들수 없다는 샘물속의 차돌같은 리성은 번져가는 선영의 이야기에서 더욱 뚜렷하니 알리었다.

《재남이는 아버지를 믿는 버릇만 굳혀가고 점점공부를 태만하고있어요. 제탓도 있지만 다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번에도 오빠에게 말했지만...》

《그러니 결국은 내가 그애 앞길을 망쳤다는 소리구나?》

《아이, 뭘 자꾸 그러세요?》

선영이는 짜증을 내며 눈을 할것 흘렸다. 억지로 윈새끼만 꼬려드는 학전을 순한 감정으로만 대할수 없다는 태도였다.

《대술일 보세요. 그 앤 머리가 비상한 점도 있지만 얼마나 이악스레 공부를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런 수재감을 교원인 제가 어떻게 무시할수 있겠어요.》

학전은 말문이 얼어붙고말았다.

몇마디에 수그러들줄 알았던 선영이가 도리어 어차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아들의 자랑못할

행실을 내걸고 자기까지 껴들어 은근히 힐책하러 드는데는 기가 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선영이를 더 누를만한 용기가 없다는것을 알아차린 학천은 물먹은 흙담벽이 무너지는것 같은 그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방안에는 바닥을 그물그물 훑으며 퍼져나가는 담배연기처럼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드리웠다. 지루한 침묵에 항거하듯 똑딱거리는 시계소리는 벌써 새날을 가까이하고있었다.

학천이가 지금 묵묵히 담배질만 하고있는것은 틀어진 자식의 일을 두고 락심만 하고있어서가 아니었다.

순간 찾아든 고세림에 대한 생각은 허물어지던 희망의 담벽에 다시 새 주주돌을 마련해주었다.

자기의 그 무엇을 든든히 믿고있는 학천은 다시 배포유한 태도를 지었다.

《네가 그런다고 우리 재남일 1고등에 못보낼줄 아냐?

하늘이 무너져도 보내는걸 바라!》

오금을 박는듯이 선영이를 흘려보며 학천은 훌쩍 일어났다.

복도에까지 나왔던 그는 다시 들어와 잇고나왔던 전자주산을 그냥 두고가기가 아깝다는듯 닝큼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집처럼 쿵 마루바닥을 굴렀다.

《오빠, 그러지 말고 래일 세림선생님이 시험을 쳐보시겠다는데 결과를 보지요. 성적이 기본 아니에요?》

따라나오며 위안하는듯한 선영의 말에 학천은 문고리를 잡은채 잠시 망설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재남이의 시험이 걱정스럽기도 했던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말도 없이 흥미없는 구경에 싫증난 사람처럼 훌쩍 나와버렸다.

이젠 남의 사람처럼 치부해버린 선영이에게 더 낯불는 말을 하기도 싫었거니와 뒤틀린 마음은 시험이라는 그것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것 같았다.

(1등을 못하면 뭐라나. 우리 재남인 입학만 하면 돼.)

3

열세개나 들이닥친 유개방통에서 랭동물고기를 부리느라고 지게차, 이동벨트, 사람들이 봄비는 랭동창고를 나서기가 바쁘게 학천은 연신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충성인민학교로 부지런히 걸었다. 아들의 시험이 끝난것만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던것이다.

넓은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리고 살집좋은 길쭉한 얼굴이 불그레 달아올랐다. 욕심스럽게 해제끼는 후방일에 못지않게 아들에 대한 억제 못한 관심이 그로 하여금 삼복의 폭양아래서 줄땀을 흘리게 한것이였다.

땀이 흐르는 목덜미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2층 복도계단에 올라선 학천은 마침 시험교실로 가고 있는 선영이를 따라잡았다.

어제저녁 일은 감감히 잊으듯 학천은 푸접 좋게 선영이에게 물었다.

《애 선영아, 시험이 어떻게 됐니? 끝났니?》 성이 날 때는 황소같이 무서워도 인차 뒤가 쉽게 물러지는 학천이기도 했다.

《기본과목시험은 끝나고 이제 종합시험을 치시겠대요.》

《그래 어떻게?》

물론 재남의 이름을 찍어묻지는 않았으나 아들에게 미쳐버린것 같은 학천이가 우스워만 보였던지 선영이는 곱게 흘기며 의미없는 미소를 지었다.

《재남이요? 점수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잘 쳤다고 세림선생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학천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이 한줄기 피여났다.

그들은 이윽고 비여있는 뒤자리에 소리없이 들어가 앉았다.

교단에 선 고세림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고 난 학천은 이어 고개를 기웃거리며 아들을 찾아왔다.

서르나문명 되는 아이들의 똑같은 뒤모습을 한참이나 더듬어서야 창문쪽 맨앞줄에 앉아있는 재남이를 찾아내고 역시 복판줄앞에 자리잡은 대술이까지 알아보았다.

이윽고 고세림의 잔잔하고도 끝마디마다 강조하는듯한 세련된 목소리가 물뿌린것처럼 조용한 교실안에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속셈시험을 치겠습니다. 속셈을 끝낸 학생동무들은 시험지에 답을 쓰고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자아-그럼 덤비지 말고 잘 들어요.

아버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달에 전진강의 아버지, 형님, 오빠들이 첫날에는 14메리의 탄벽을 뚫었습니다. 그다음날부터는 매일 그 전날보다 15센치씩 더 뚫었는데 명절날을 포함하여 4일간은 휴식하였습니다.

한달동안에 모두 몇메터를 뚫었겠습니까?

시간은 5분간입니다.》

동화이야기를 하듯이 시험문제를 재미있게 제시하고난 고세림은 천천히 학생들사이를 오갔다.

제법 사색하느라고 초롱초롱한 눈들을 쏘프리고 조가비같은 입술을 오물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대견스레 굽어보며 고세림은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서 지우지 못했다.

학천이도 그냥 앉아있기가 무엇해서 눈을 검석거리며 흥미삼아 속제산을 해보았다.

그런데 아이들의 문제썸이야 하고 얄잡아보았

던것과는 달리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세네자리수자들이 고기그물처럼 얽히며 맴돌이칠뿐 쉽사리 풀어낼수가 없었다. 어찌보면 자기로서도 전자계산기의 힘을 빌려야 제시된 시간 내에 계산해낼것 같았다.

학천은 옆에 앉은 선영이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단정한 몸가짐새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있는 그는 마치 풍년나락을 이룩한 실농군같은 기분에 취해있는것 같았다.

학천은 슬쩍 그의 팔굽을 건드렸다. 숨막이는 눈에서 그의 물음을 알아차린 선영이는 무슨 의미인지 해죽이 웃으며 노트를 펼치더니 이렇게 썼다.

《이 문제는 중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등차수열 공식을 적용해야 5분간에 풀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순차적인 더하기로 계산하면 20분이 더 걸릴수도 있구요...》

선영의 만년필끝에 시선을 박았던 학천은 입이 철문처럼 꼭 다물어졌다. 그는 무심중 고세림에게 눈길이었다.

고세림은 정말로 말과 행동이 두손바닥처럼 꼭 같은분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어 앞문쪽으로도 돌아가는 옛스승의 체소하나 방정한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아들에게로 돌아간 그의 눈은 굴속처럼 깊어보였다.

(저녀석이 풀어낼가?)

시계를 보니 벌써 2분이 지났다.

아버지가 자기 등뒤에서 말뚝시선을 떼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남은 의자에 붙여놓은 아이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또 1분이 지나갔다. 학천은 조바심이 났다.

3분 30초, 40초... 시계바늘은 거침없이 돌아간다.

학천에게는 초침소리가 철관을 두드리는 메질소리처럼 들리고 수자들 사이가 한발이나 되게 넓어보이는 문자판우로 시계바늘이 휘파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것 같았다.

4분이 넘었다.

무심중 선영이를 다시 돌아보던 학천은 그가 지켜보고있는 한곳을 따라 쳐다보았다. 대술이었다. 머리를 기울일사하고 앉아있던 대술이는 이윽고 자신있게 시험지우에 몸을 수그렸다가 얼른 손을 든다.

정확히 4분 37초였다. 대술의 앞으로 다가온 고세림이 시험지를 내려다보고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인다.

그 끄덕임이 무슨 신호이기라도 한것처럼 뒤이어 승벽내기로 손을 드는 아이들과 함께 재남이도 보란듯이 높이 추켜들었다.

학천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런데 재남의 시험지를 들여다 본 고세림이

알릴락말락하니 고개를 가로젓지 않는가. 재남이도 제판에 부끄러운지 머리를 굽적거리며 슬그머니 대술의 책상우를 건너다보는것이였다.

학천은 못볼것을 본것처럼 두눈을 감았다. 그러자 온몸에 팽팽하니 서렸던 긴장이 의자밑으로 쟁그리 새어버리는것 같은 허전한 감을 느끼었다.

드디어 5분이 되였다.

어수선하는 소리에 눈을 뜬 학천은 그래 어때요? 하고 묻는듯한 선영의 야릇한 눈길과 마주치자 더 앉아있지를 못하고 입을 쓰겁게 다시며 복도로 나왔다. 마주오던 애어린 처녀교원이 상냥스레 인사를 건네려다가 그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어색하게 웃음을 가무리며 조심스레 지나갔다.

덩실한 8층교사를 뒤덮을듯이 우거진 운동장둘레의 포플라나무밑으로 나온 학천은 줄나란히 앉혀놓은 아이들의 자그마한 세멘트의자우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감쌌으나 그는 시원한 감도 느끼지 못하였다.

한결 위엄있어보이던 그의 주먹코밑으로는 두줄기의 시퍼런 담배연기가 마당비자루처럼 길게 뿜어져나와 설렁이는 잎새들사이로 푸실푸실 흩어져올라갔다.

(못난 녀석, 후유-)

지붕처럼 떠받드는 아들이었건만 민망스러운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그 녀석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학천은 스스로 락심해지는 자신을 꾸짖으며 머리를 절레절레 가로 저었다. 한개 지구탄광의 복잡다단한 경리부일도 배심있게 거든거든하니 제껴치우는 자기가 그까진 시험 하나에 땀심이 풀려있는것이 못마보였다.

이런 때는 그런 배심을 못쓴다더냐? 하물며 자기를 극진히 생각하는 고세림이 결론권을 가지고 있음에랴.

이렇게 든든한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낮은지러운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 없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종합시험에서까지 떨어진 주제에 무슨 면목으로? 자기 체면으로 나서기가 무엇하였다.

병어리 땡가슴앓듯이 안타깝고 피로운 마음을 몇번이나 곱잡아 뒤쳐거리던 학천은 어제는 답을 쌓을듯이 성을 냈지만 어차피 선영이에게 또 업히우는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며 목을 기웃이 빼고 현관문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시험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조잘대며 한물켜니 쏟아나왔다. 그들속에 섞여나온 선영이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노래를 부르며 멀어져가는 아이들을 이윽도록 바라보고 섰다가 학천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아이, 여직 안가셨어요? 오빠.》

가다니? 학천은 속이 꿈틀 돌아누웠으나 애써 그런 내색을 눌렀다. 이마에 주름이 한줄 더 꽤 인듯한 그의 안색은 동정이 갈만큼 측은해보였다.

《애, 선영아, 우리 재남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뭘말이예요?》

선영이는 판 생각을 하던 사람처럼 도리어 제편에서 의아하니 물었다.

학천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손 맞잡고 의논하자는듯한 은근한 어조로 선영을 마주보았다.

《시험에서 떨어질것 같으니말이다...》

《대술이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종합성적을 기다려봐야지요 뭐.》

어떤 트이는 말이 나오려니 기대했던 학천은 선영의 뜨아한 대답에 속이 더 탔다.

《그러니 네가 좀... 세림선생에게 말씀드려보렴.》

《네에?》

고요한 숲속을 걸어가다가 난데없는 부시력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선영의 눈이 휘둥그랗게 커졌다. 그 부탁이 무엇을 녀두하는지 선영이가 어찌 모르랴.

《아이 참 오빠두... 1고등중학교에 보내는것이 한두사람 말듣고 처리할 일이에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학천의 옳지 못한 속심을 알아차린 선영이는 눈을 할기죽 흘기며 몸을 반쯤 돌려버렸다.

《그만뒤라!》 이런 노성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것을 가가스로 누르며 학천은 억지로 타이르듯이 달라붙었다.

《애, 새초롬하니 너무 외궂으로만 생각지 말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다과목소조 담당교원인 네가 몇마디 여쭙면 세림선생도 한마음 들춰보일지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남이가 과학자가 되든 너도 좀 좋은 일이나?... 어험.》

학천은 저로서도 좀 멋적은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끝을 굵뻤다.

아연한 기색으로 학천을 뜯어보던 선영은 호-쉴쉴한 숨을 내쉬며 의자우에 조용히 앉았다.

선영의 침묵에서 어떤 희망을 내다본 학천은 짝사랑하던 처녀에게서 반송낙이나마 받아낸 총각처럼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세림선생에게도 다 내 생각이 있어.. 그럼 너만 믿는다.》

마지막 다짐을 하고 씨엉씨엉 활개짓까지 하며 걸어가는 자기의 뒤모습을 괴롭게 바라보며 외우는 선영의 혼자말을 학천은 들을수 없었다.

《우리 오빠 왜서 저렇게 되었을가. ...》

약삭바른 창고장이 크고 배가 노란 참가재미들로 한바게쓰 무드기 담아 학천의 앞에 켜 내다놓았다.

그것을 재남이에게 들리워 먼지 집으로 보내고 난 학천은 각 탄광의 영양제공급량까지 푼푼히 찍어주고나서 흡족한 기분으로 천천히 아들의 뒤를 따라 나섰다.

젊을적부터 고세림이 산채를 좋아하는줄은 알지만 생생한 가재미회로 자기의 정성을 고이게 된것이 무등 기뻐 코노래까지 나올 기분이었다.

그런데 자기 집이 가까운 아빠트모서리를 돌아서던 학천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가재미바게쓰를 들고가던 재남이가 선영이에게 불들리워 길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학천은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아 잠시 망설이였다.

사실 재남이는 오후에 소조학습에 나가게 된것을 심부름을 시키려고 불잡아두었던것이다.

여라문걸음 떨어진곳이여서 그들의 말소리가 푹푹히 들렸다.

《재남아, 너 왜 소조학습에 나오지 않았니?》

《아버지가 이거 가져가라구 해서... 래일이 할 아버지선생님 생일이래.》

《애두 참, 그렇다고 공부에 빠지면 되니?》

《힝! 이걸 가져가야 1고등중학교에 간댔는데 뭐.》

《무얼? 누가 그러던?》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니?》

《뒤따라온뎡는데...》

학천은 짐짓 모르는체 오던 걸음처럼 성큼 나서며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선영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어리는것을 일별하며 학천은 얼른 바게쓰를 들었다.

《이거 다 녹했구나. 선영이 너도 들어가자.》

따라들어온 선영은 말없이 앉았다.

학천은 그가 시험결과를 알려주러 왔던 모양이라고 넘겨짚었다. 아예 떨어졌다면 면구스러워 오지 못하였을것이 아닌가.

계면찍어졌던 학천은 이런 호기심이 일어나 우정 엉너리를 부리며 선영의 안색을 살폈다.

《하, 래일이 세림선생 생일인줄을 몰랐댔구나. 객지에 나온분인데 무얼 대접할게 있어야지.》

선영은 대꾸가 없었다. 너스레를 부리기가 어색해진 학천은 입을 다물었다가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시험결과가 어떻게 났니?》

그래도 선영은 여전히 속눈섭을 차분히 내리깔고 있었다.

《끝내 떨어졌니? 세림선생에겐 말씀드려보았겠지?》

《...》

《애두 참, 실력이 약해서 떨어진거야 어쩌겠니? 하지만...》

그 야릇한 말끝이 건드려놓았는지 지금껏 말이 없던 선영이가 고개를 틀며 학천을 곧바로 마주 보았다. 순하게만 보이던 눈에는 어딘가 푸르스름한 기풍이 깃들어보였다.

《오빠, 제 좀 말씀드릴게 있어요.》 심상치 않은 선영의 말에 학천은 웬일인지 뒤가 무거워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선선히 응하였다.

《말하려무나. 뭐 어려울게 있니?》

《오빠, 들으면 피로우실테지만 사실... 재남이는 제가 거절했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에 학천은 속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았다. 그러나 인차 웃어버렸다. 자기를 놀래우느라고 선영이가 시치미를 떼는줄로 알았다.

선영이는 고집하듯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예요. 정말이에요. 재남인 1점이 낮아서 종합적으로 4등을 했어요. 그런데 세림선생님은 3등까지만 선택하시려고 작성하셨던가봐요. 선생님이 아쉬워하시면서 재남이의 평상시공부를 물으셨지만 전 대답드릴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학천은 집었던 담배를 떨어뜨리듯 도로 재떨이에 놓았다. 그리고 선영을 견주어보았다. 그 눈빛에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얼굴에서 혈색조차 서서히 가셔지는듯싶었다.

푼떡! 속에서 무엇인가 죽가마처럼 뚫더니 그 도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노기였다.

《너...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선영이도 눈 한번 깜박하지 않았다.

《지금 갈아서는 재남이의 성적이 더 올라갈수 없어요. 아버지만 믿으면 모든것이 다 되는줄로만 생각하며...》

《그만두지 못하겠니? 네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난 학천은 의자를 짓몽겔듯이 타고앉았다. 그리고 두손으로 허벅다리를 꼭 눌러잡고 선영의 정수리를 쏘아보았다.

억이 막혔다. 자기는 그래도 동생으로 믿고 부탁을 했었는데 도리어 재남이의 허물만 긁어모아 고세림에게 일러바치게 분명하였다.

관관 모르는 남이래도 이렇게까지 야박스레 굴지는 않을것이다. 이젠 항차 4촌간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아니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겠다고 무던한 오빠라고 우습게 보았는지 이젠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까지 하려드는것이 아닌가. ...

이거야 어디, 자기 가슴에 아픈 못을 박아놓는 누이동생이 남보다도 더 패썹하게 보여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의자등받이 가름대를 으스르뜨릴듯이 거머잡았다.

《야, 네가 나한테 무슨 앙숙이 겠길래 그렇게

까지 었서니? 점수 한점이 뭐길래 제 조카 앞길을 똑똑 잘라버려? 응! 너 하나만 원칙을 가진 사람이나?

어디 말 좀 해보자. 이젠 도대체...》

미칠듯이 화가 치밀어오른 학천은 말이 다 꺾막혔다.

그는 콧처럼 씨근거리며 뚫어져라 선영을 노려보았다.

시뻘겍게 달아오른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선영이도 이젠 수그러들 기색이 아니었다.

도리어 야멸차다싶이 자기를 곧추 세우고 학천의 폐부를 찌서놓는것이였다.

《오빠는 자기의 잘못이 적지 않다는걸 돌이켜보셔야 해요. 오빠는 아버지로서 재남이를 귀해하지만 전 교원으로서 저 애의 지능이 무디여지는게 더 가슴이 아파요.》

대술일 보세요. 재남이가 그 애처럼 모든 과목에서 10점을 맞아 1등을 했더라면 저도 똥똥 떠받들었을거예요. 대술인...》

학천은 책상을 탁 쳤다. 그는 정신이 나갈것 같았다.

남의 아이한테 비기며 재남이를 깎아내리는 선영이의 매정한 소행을 어떻게 해야 속 시원히 짓눌러버리겠는지... 기고만장한 그의 목소리는 선영의 고막을 뚫어놓을듯이 사납게 터져나왔다.

《뭘 대술이? 대술이가 네 친동생이라도 되냐? 그저 대술이 대술이... 네겐 이 4촌오래비가 개네 부모보다도 못해보인단말이지?》

순간 선영의 눈에 포도알같은 눈물방울이 핑그르 맺히더니 건잡을새없이 떨어졌다.

선영은 얼굴을 싸쥐었다. 동실한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학천은 재떨이를 집어다 책상우에 딱 깨뜨릴듯이 박아놓았다. 처룩- 라이타에 돌이 없다. 학천은 그것들을 책상우에 아무렇게나 팽개쳤다.

그리고 어금이를 깨물며 눈을 감아버렸다.

이윽고 흐느낌이 멎더니 선영의 젖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애원이 아니라 절규하는듯한 음성이었다.

《오빠! 어쩌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

오빠, 저는 아무렇게나 꾸짖어도 좋아요. 하지만 재남이가 그런 수준으로 고등중학교에 가서는 구실을 못해요! 그건 앞으로...》

《됐다! 너하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

학천은 한손으로 허공을 거칠게 내리뻗었다.

아들의 지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넘려로 선영이가 아무리 눈물겹게 호소하여도 그에게는 들릴리 만무했다.

《오빠! 제 말을 마저...》

《뭐 오빠? 흥! 이제부터 오빠구 뭐구 할것 없다!》

의외에도 학천의 마지막어성은 찾아들었으나 도리어 거기에는 선영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경멸과 무정한 비난이 가시처럼 돋혀있었다.

동기간의 의리마저 티검볼처럼 차버리게 우직스러워진 학천을 안타깝고도 애원에 절은 목소리로 선영이가 다시 불렀으나 벌써 문밖으로 사라져내렸다.

5

고세림에게 내준 수학분과실은 조용하였다.

담배를 두대씩이나 갈아대며 분기를 어느 정도 가라앉힌 학천은 얼굴을 두어번 더 쓰다듬고나서 문간을 그들먹이 채우며 들어서는 그에게로 도수 높은 은테안경을 돌린 고세림이 반갑게 옆의자를 가리켰다.

《거기 앉게. 하루사업이 끝났나?》

《예에...》

어정쩡한 그의 대답을 못들은듯 고세림은 다시 금 책상우에 몸을 수그리며 하던 일에 몰두했다.

이미 점수를 매긴 시험지를 한쪽모서리에 간간이런히 쌓아놓은것으로 보아 마지막결론을 정리하는 모양이었다.

학천은 자기옆에 놓인 책상우에 한팔굽을 올려 놓으며 고세림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젠 시간도 기울었는데 그만 집으로 가십시다. 래일이 생신날인데... 허허.》

학천은 자극적인 말끝을 얼버무렸으나 맑지 않은 기분에 강잉히 지어낸 웃음이며서 자신도 어색스러워짐을 어쩔수 없었다.

어리송한 눈으로 학천을 돌아보던 고세림은 가볍게 웃으며 다시금 책장을 번지였다.

《생일? 허... 임자 그래서 우정 찾아왔구만? 귀빠진 날이 무어라고...》

학천은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자에 자빠들듯 기대앉아서 시름섞인 담배연기를 후내놓았다.

이윽고 일을 끝낸듯 책들을 주섬주섬 거두며 고세림이 심상하게 한마디 건넸다.

《임자, 재남이때문에 걱정이 큰 모양이구만?》

그 말을 자기에 대한 동정으로 받아들인 학천은 의자를 한걸음 끄당기며 고세림에게로 다가왔다. 상머리에서나 비취볼가했던 말을 고세림이 제면저 꺼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코등이 시큰했다.

《선생님, 저... 사실은 우리 재남이가 한점때문에 떨어졌다길래...》

《점수 한점이라...》

고세림은 단조롭게 따라외우다가 서류를 챙겨 넣던 삼면자크가방을 책상우에 놓으며 학천에게

로 돌아앉았다.

그는 마치 이 떼꾸러기소년같은 사람을 무슨 말로 타이릴가 적절한 말을 고루는듯이 찬찬히 눈여겨보는것이였다.

이윽고 안경을 벗어 흰 모달리조박천으로 천천히 닦으며 고세림은 나직이 말을 시작했다.

《임자는 그 한점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것 같네. 그 한점이 모자란채로 재남이가 과학자로 된다면 인공위성설계에서나 로보트, 전자 계산기 등 최신과학기계제작에서 한점이 모자라 실패할수도 있고 또 과학발전에 부진을 가져올수도 있네. 이젠 내 말만이 아니라 선영선생의 요구 높은 주장이네.》

고세림의 입에서 선영의 말이 곁들리워나오자 학천은 가까스로 녹쫓혔던 격한 감정이 용수철처럼 다시 튕겨올랐다.

스승의 앞이여서 어성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거세여진 숨소리에 섞인 고르롭지 못한 어조는 마치 고세림에게 분풀이를 하려드는것 같았다.

《그래서 그 한점이 그렇게두 뺨혹합니까?》

점잖은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자제력마저 잃고 대드는듯한 학천의 호소는 어찌 보면 파렴치하게 까지 들리였다. 했으나 고세림은 한팔로 조용히 제지하며 말을 이었다.

《선영선생을 탓할진 조금도 없네.

학천이, 우리 1고등중학교는 한두사람을 위한 단골학교가 아니네. 큰일을 할 과학자를 키우고 세운 학교지. 여기서는 웅당 나라의 과학기술을 떠메고나갈 특출한 인재들이 나와야 하네.

선영선생은 바로 이런 녀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요구성있게 키우고있는 우리 시대의 생신하고 때 묻지 않은 참다운 교육자일세. 그 무른 정에 끌려 나도 본래의 자세를 숙일뻔했네만... 후유- 날씨가 꽤 찜물쿠는군. 걸으면서 얘기하세.》

고세림은 말없이 교문을 나섰고 말없이 탄광마을 복판으로 꿰흐르는 강둑의 깨돌로 심어진 포식우를 걸어갔으며 배놀이장으로 묵묵히 잡아들었다.

뒤에서 따라가는 학천은 손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처럼 허리를 쭉 펴고 걸었으나 머리속은 이루말할수 없이 괴로왔다.

누구에게서도 찬동을 받지 못한 아들의 문제로 마음이 그지없이 서운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운데다가 자석처럼 끌고가는 고세림의 말없는 거동은 더욱 불안한 감정이 덧쌓이게 하였다. 게다가 고세림은 어디를 가려는지 자기 집과는 반대쪽으로만 자꾸 가고있지 않는가.

한여름이라 배놀이장 번두리에는 기름진 록음이 푹푹 흐르는듯한 한껏 푸르른 수양버들이 잔잔한 수면우에 칠칠한 아지를 조율듯이 드리우고 있다.

맞은편 잔교우에서는 농립을 쓴 나이든 관리공

이 잔물결에 망아지처럼 넘노는 뽀트들의 코뚜레를 묶어놓느라 철썩철썩 시원한 물소리를 대는데 하루일을 마친 애끓은 탄부들이 물가에 나와 기타를 튕기며 은은한 서정을 풀어놓는다.

《장이야!》 호기스러운 소리와 함께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의 무리속에서 꺾꺾 꺾꺾 하늘에 대고 터치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못사람들의 발길을 멈춰세운다.

하지만 고세림은 여전히 침묵하고있었다.

나무그늘이 드리운 긴의자에 앉은 고세림은 배놀이장의 정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있을 뿐이었다. 학천이가 의자끝쪽에 엉겨주춤 몸을 실는 기척에 고세림은 표정없는 얼굴을 돌렸다.

《담배 한대 주게.》

학천은 한순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제저녁 러과담배를 내놓을적에도 담을 쌓았다고 사양하던 고세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담배를 찾다니? 마음이 한껏 졸아든 학천은 떨리는 듯한 손으로 고세림의 담배대에 성냥불을 가져갔다.

담배연기를 서둘러 한모금 들이마신 고세림은 별안간 가슴을 움켜잡으며 턱방아를 찢었다. 한참이나 기침을 하던 그는 겨우 자세를 바로잡으며 손수건으로 눈구석을 자금자금 닦았다.

《경리과장.》

이윽고 고세림은 불꺼진 담배대를 의자우에 놓으며 저력있는 음성으로 처음 류다르게 불렀다.

《임자는 달라졌어. 내가 생각했던바와는 영 판 사람이 되었던말이네,》

저녁노을이 불그레 물드는 수면우에 주먹만한 물고기대가리가 불끈 솟구쳤다가 찻병 물장구를 치며 사라졌다. 이어 둥그런 파문이 잔주름을 잡으며 니연니연 퍼져간다. 곰실거리는 물주름, 고요...

그림같은 그 정경을 피로움이 실린 눈으로 바라보고있는 고세림의 얼굴을 대하기가 두려운 학천은 서서히 발밑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윽도록 참았다가 내뿜는듯한 고세림의 마디마디는 학천의 온몸을 무형의 줄로 묶어놓는것처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내 실례삼아 뒤가지 얘기하겠네.

이름이나 아는 한사람이 있었는데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범했어. 우리와 본색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적잖은 량의 물품을 접수해오게 되었는데 깜박 속았거든. 그 작자들이야 천성이 그렇다치고 속히는 사람도 잘못된 일이 아닌가? 왜 그렇게 되었겠나?

여기에, 바로 이 머리속에 그자들의 속임수를 발가널만한 과학지식이 부족한탓이었어. 죄를 지었으니 벌은 받아야지. 개인간에도 아니고 민족의 존엄을 떨구며 나라앞에 진 죄는 씻을수 없지.

또하나...》

학천의 주의를 끌어당기듯 고세림은 두번째 손가락을 꼬나들며 잠깐 그를 응시하다가 계속하였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물질자원을 제1의 자원이라고 하고 과학기술을 제2의 자원으로 엄정히 명명하면서 고갈되어가고있는 제자원 섭취에 보다 제2의 자원에 더 막강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네.

내가 이런 사실을 왜 털거하는지 알겠나?

전자도 알아야 하고 후자도 배워야 한다는, 배워도 현대과학의 정수를 뛰어넘게 소유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싶어서네.

그런데 임자는 후-》

고세림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아무렇게나 문대며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질책을 다그어댔다. 《자식을 나라를 위해 키우려는 사람같지 않아. 과학이라는 신성한 날개밑에 끼여들어서 집안의 얼굴이나 내보자는 몰렘치한 사람 같단말일세. 동기간의 의까지 깨뜨리면서...》

학천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절 공부시키려 것처럼 애쓰더니 지금은 왜서 나의 아들은 그렇게...》

안타깝게 하던 말이 어째선지 푹 끊기고말았다.

학천과 맞부딪친 고세림의 눈에는 여전히 노기가 번뜩이고있었다.

《왜, 내가 원망스럽단말이지. 자기 한몸 아픈 건 알아두 나라의 과학기술을 저축시키려는것은 느끼지 못한단말이지 ?

자네가 아직 어렸을 때 내가 자네를 쫓아다니며 학교에 데려간것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게 함이었고 또 오늘 자네 아들을 학교에 데려가지 않는것도 나라를 위해서이데. 임자는 썩었어. 머리속에는 무서운 리기주의가 피물처럼 뿌리박혀있단말일세.

그것이 어떤 리기주의인가?

자질도 낮고 탐구열도 없으면서 가까운 나라의 돈으로 대학까지 나와 체면으로나 과학자연하는 사람, 별치않은 문제로 학위학직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호신부삼아 과학자의 재세를 내며 일생을 살아가려는 사람... 임자는 자식이 바로 그런 서퍽짜리 <과학자>라도 된다면 박수를 칠거란말이네. 그게 그렇게두 질나구 부러워보이나?

아니, 우리는 새세대를 그런 과학자로는 키우려고 안하네.

나라가 키우려는, 나라에 필요한 과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명민한 두뇌로 나라의 과학발전을 앞당기는 과학자, 나라를 위해 운명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란말이네.

이것을 망각한 자네의 이것이야말로 줄타기로

자식을 내세워 얼굴값이나 돈구어보자는 행위, 나라의 과학기술을 망치려는 행위로밖에 볼수 없네. 망치려는 행위!》

고세림의 준절한 론증은 그대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학천의 비렬한 욕심검뎀기를 헤집고 뱀새나는 고름집을 갈가리 허비여놓는것 같았다.

걱정에 찬 고세림의 탄핵-그것은 나라의 과학을 외면시하는, 나라보다 개인을 더 숭상하는, 개인의 행복은 나라의 번영에 있다는것을 몰리해한 한 인간에 대한 공민적질책이었고 시대의 규탄이었다.

그만큼 고세림의 예리한 동침은 학천의 가슴복판을 무자비하게 들이찔렀다.

정신을 잃은듯이 굳어진 표정으로 허공에 눈길을 맡겼던 학천은 그래도 무엇을 항거해보려는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눈길에는 맥이 없었다.

《선생님... 이걸 너무... 하십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학천은 절망과 원망이 어지러이 버무려진 어두운 초점으로 고세림을 쳐다보다가 갈리는 목소리를 삼키며 다시금 고개를 푹 떨구었다.

의자굽도리를 떨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다듬던 고세림도 피로움에 지친듯 맥빠진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가슴이 아파. 임자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네.

학교에 더러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군하네. 어떤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오기도 하지. 그들을 리해시켜 돌려보내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개운치가 않았네. 모두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이겨내기가 지겨운듯 담배에 손을 뻗치던 고세림은 얼굴을 찡그리며 도로 거두어들였다.

뜨거운 열풍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저녁 그림자가 드리웠는데도 날씨는 한증탕처럼 찌더웠다.

고세림은 뜨끈하게 달아오른 학천의 어깨우에 한손을 얹으며 저오기 가라앉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이보게 경리과장.

자고로 위대한 사상가가 심원한 철리를 도출하고 탁월한 군사가가 백전백승했듯이 과학에서도 지능이 높은 특출한 인재가 큰 역할을 한다는거야 자명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내더라도 학생들을 혜성같은 인재로 키워 우리 과학의 천지개벽을 가져와야 하네.

그래서 기술에서 남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남의 부러움을 받는 경제강국으로 돼야 하네. 경제강국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애국자일세.》

라는듯한 저녁노을이 넓고넓은 하늘공간을 웅건하게 물들여간다. 그 장엄한 노을을 배경으로

피라미트처럼 우뚝 솟은 버력산들이 목관화처럼 뚜렷하고 진하게 안겨왔다.

그 화폭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서는 고세림의 얼굴에는 로년기의 나이로는 경이할만치 순수한 동심적인 미소가 한점 피어나는듯싶었다.

《내 오늘저녁 저 버력산마을엘 옮겨가야겠네. 38반이라던가? 대술이네 집이...》

고통스러운 자아모순에 빠져있던 학천은 그제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오며 황급히 따라일어섰다.

그에게는 고세림의 처사가 눈물이 날만큼 섭섭하게 여겨지었다. 오죽이나 노여웠으면 자기 집에서 류숙하던것까지 옮기자고 하실가. 학천은 버림을 받는것만 같았다. 언제나 우렁우렁하던. 목소리가 불쌍하게 보일만치 떨리었다.

《선생님, 저... 노여움을 푸시고 저의 집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러자 고세림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듯 소탈하게 웃으며 학천의 권유를 가벼이 밀막았다.

《원 노엽긴, 아이들인가. 허허... 내 대술이네 부모를 꼭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러네. 그렇게두 공부잘하는 애를 길러냈는데 찾아가 인사라도 하는게 도리가 옳지. 그래서니 다른 생각일랑 아예 말게.》

어스름속으로 멀어져가는 고세림의 체소한 뒤 모습을 학천은 뿌리내린 나무처럼 바라보며 서있었다. 어둠속에 더는 보이지 않아서야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찌-룩찌룩, 찌-룩...

잔디풀속에서 이름모를 풀벌레들이 조동하듯 울어댄다.

밤벌레사냥에 나선 박쥐 한마리가 휘익- 이마를 들이받을듯이 머리위로 날아갔다.

학천은 깊은숨을 내쉬며 의자등받이에 천근만근 무거워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맡겨버렸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는데 자기는 아지 못할 미궁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되였는가?)

50평생의 지나간 생활을 항상 웃음으로만 돌이켜보며 살아온 학천에게 이것은 가슴아픈 고통이었다. 그것은 피할수 없는, 스스로 빚어낸 고통이었다. 아니, 그것은 겉히는 안개속에서 어차피 드러나고야말, 적라리하게 드러난 오랜지빛에 가리워있던 무서운 병집이었다.

... 성실- 그것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인간이라면, 나라의 주인된 공민이라면 웅당 그래야 할 것이었다. 자기도 그렇게는 살아왔다.

그래서 조국은 자기에게 행복한 생활을 주었고 그래서 당은 자기에게 중한 일을 맡겼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자기는 모든것이 만족했다. 그 만족을 분발의 토대로 할것이언만 자기는 그 온각속에서 더러운 욕심을 키웠다. 자기만을 위하는...

누가 이런 인간을 용납할가부냐? 누이동생도

스승도 경멸하고 탄핵하고 버렸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인간이 이제 더 큰, 그 너그럽고 자애로운 품에 안겨있을수 있겠는가...

(아- 내가 이런 존재였단말인가?)

학천은 땀이 줄편하게 내뿜은 이마를 커다란 손바닥으로 아프게 아프게 문질렀다. 심연같은 자포자기에 빠져버린 학천은 지금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천금같은 충고를 제때에 주었다는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웬 아이가 흐느끼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학천은 자기가 집에까지 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고모, 나 이제부터 정말 공부 잘할래. 흑흑...》

《그러자, 재남아. 그런데 이런걸 명심해야 돼. 1고등중학교에는 아버지가 보내는것두 아니구 선생인 고모가 보내는것두 아니야. 오직 네가 뛰어나게 대술이처럼 공부를 잘해야 갈수 있어. 그래야만 커서 훌륭한 과학자로 될수 있는거란다.

목표를 높이 걸구 이악하게, 알겠니?》

《응! 꼭 그렇게 하겠어!》

보름이 차오는 상현달이 마당가의 구기자덩쿨을 푸르스름히 비치고있었다. 초점 흐린 눈길을 던지고있는 그 으스스한 어둠속에서 한장의 그림이 영화화면처럼 학천에게 안겨온다. 코등에 땀이 송글송글 내뿜으며 인공위성을 그리던 선영의 걸그림이었다.

《오빠, 전 우리 소조애들이 모두 이런 과학자들이 되길 바라요.》

뒤이어 절절하게 타이르던 고세림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그런 애들을 혜성같은 인재로 키워 우리 과학의 천지개벽을 가져와야 하네.》

두사람의 목소리건만 한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였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아글타글하니 자기의 온 넋을 바치고있는가?)

그것을 몰라서 묻은것이 아니라 그들과 너무도 아득한 세계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드레박줄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기원이기도 했다.

한줄기 가는 바람이 불어오자 숲처럼 우중충하니 뒤덮인 잎사귀들이 한들거리고 다닥다닥 달라붙은 동그란것들이 달빛에 반짝거렸다. 구기자알이었다.

무심히 그것을 한알 따서 줄안에 넣고 굴려보던 학천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바닥에 받쳐 들고 들여다보았다.

노르무레한것이 바야흐로 빨강게 익어가는중이었다.

달콤한 향기조차 코끝에 스치는것 같다.

이윽고 현실을 감수하는 인간으로 돌아본 학천은 자기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직락거리는것 같은 이상한 심리적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이제껏 물어두고 생각지 아니하던것,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연하게나마 뿌리박혀있던 한줄기 싹이 뿔주름히 움터오르는 감각이였다.

날이 새면 해가 뜨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것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리치, 애국의 마음을 반석같이 간직하고있는 사람들은 그 리치처럼 명백히 알고 자기의 힘 넋을 바치고있는것이 학천에게는 이제금 어렵못하게나마 진리처럼 느껴지는듯싶었다.

(조국의 미래, 그것이 중요하지.)

×

이튿날 아침, 봄비는 사람들을 헤치고 흙으로 나온 학천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다. 마침 X×1고등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러 떠나는 대술이네 아이들이 저쪽 안내판옆에서 고세림과 선영을 둘러싸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환해진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학천을 알아본 고세림이 두세걸음 마주왔다.

《뭘 이렇게 나오기까지 하나? 사업이 바쁠텐데...》

《선생님을 하루밤 못보았더니 졸음이 다 안왔습니다. 하하하!》

학천은 롱기 짙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곱게 빗은 대술의 윤기나는 머리를 대견스레 쓰다듬었다.

《대술아, 용타! 앞으로 인공위성보다 더 좋은 걸 만드는 훌륭한 과학자가 꼭 되거라.》

그는 옷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대술의 자그마한 손에 꼭 쥐여주었다. 평양에 회의 갔을 때 선물받았던, 재남이에게 주려고 했던 금촉만년필이었다.

《그걸 뭘 다, 저 애들학교엔 부러운게 없네.》

고세림은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부석부석해지고 별그레해진 눈에서, 진정이 폭 어린 얼굴에서 학천의 달라진 마음을 알고도 남았던것이다.

옆에서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리고있던 선영이가 얼굴을 가웃이 돌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재남이도 래년엔 꼭 보내자요.》

《너석이 구실을 하겠는지... 네가 결정을 하려무나.》

학천의 악의없는 대답에 모두들 웃음을 머금었다.

붕- 렬차가 떠난다.

그뒤로 아침해살을 눈부시게 반사하는 두줄기 레루가 잇따른다. 끝없이 끝없이...

아! 나의 조국이며, 드높은 미래로 줄기차게 달려가자!

탄광의 당비서

전병구

사무실문은 잠겨있었다
탄광의 당비서
그는 울리굴
채탄장에 있었다

탄부의 제복차림으로
한가정의 만형처럼
동발목도 메나르고
때로는 신호공이 되어
전차운전공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선동원이 되어
탄부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에겐 이런 때가 제일 좋더라
탄부들과 허물없이
담배불도 마주붙이는...
그는 늘 미소어린 눈빛으로
평범한 탄부처럼 말하더라
잠을 자도 발파소리를 들어야
발편잠을 잔다고,
채탄장을 떠나서야

그 무슨 당비서인가고

우에서 내려오는 일꾼
기자들도 여기서 다 만나보고 .
예술선전대 공연도 탄부들과 함께 본다는
더없이 미더운 탄광당비서
사무실 문은 잠겨있어도
그의 마음은 탄부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고
탄부들의 마음
당비서를 향해 열려있나니
저탄장에 높아가는 석탄산도

그 마음들이 받들어올린것 아니더냐
캐내는 석탄은 검어도
캐는 그 마음에
티 한점 묻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당비서

그는 이 순간에도
아름찬 탄벽앞에서
탄부들과 함께 웃고있어라

석탄산, 너와 함께

로성렬

하루일 마치고 갱구밖을 나서니
탄부의 보람이런가
아름다운 저녁노을속에
우렁이 안겨오는 석탄산

내 처음 제대배낭 메고 올 때에도
이렇게 멀리서 안겨왔지
탄부의 제복을 타입던 그날엔
더 깊이 내 가슴에 자리잡던 너

십리, 이십리 막장을 내릴 때도
한치 한치 탄벽을 밀어갈 때도
너로 하여 내 가슴 높뛰었고
너로 하여 내 마음 기뻐더라

사진 한장 찍어도

너의 배경이 나의 자랑이였고
사랑하는 처녀와 저녁길을 걷다도
너를 바라보면 마음 든든했더라

아, 땅속 천리 만리를 간다 하여도
한생토록 너를 쌓아올릴 나
높아지는 너의 높이에서
날마다 커가는 내 조국의 행복의 높이를 보며
청춘의 마음 다해 너를 받들어올리거니

한생의 인연을 맺은 련인파도 같이
떨어져 살수 없는 석탄산아
너는 조국의 하늘을 뗏뗏이 바라볼수 있게 하는
내 마음의 높이
너는 나날이 높아만 가야 할
탄부의 보람찬 삶의 높이여라

렬차에서

김성환

얼마전에 나는 북행렬차에 올랐었다.

웅근 6개월동안이나 애써 뚫은 쇠돌맥을 다른 소대에 넘겨주고 새 광구로 일터를 옮겼다는 제대군인소대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는 취재길이었다.

렬차안은 명랑하였다.

웃고 떠들며 흥성거리는 러행길 저쪽 차창에서는 휴양을 마치고 오는듯싶은 한패거리의 청년들이 처녀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중 한 청년은 마치 지휘라도 하는듯 손을 쳐들어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이때였다. 렬차방송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환자가 있는데 의료부문일군이 있으면 급히 5번차칸으로 와달라는것이였다. 렬차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모두들 얼굴만 마주볼뿐 말이 없었다. 하긴 서로의 직업과 직종을 어찌 알수 있으랴.

그런데 나와 마주앉은, 청진까지 간다는 사람이 움쑥 일어서더니 5번차칸쪽으로 사라졌다.

한참후였다.

《야단났습니다. 환자가 위급한데...》 자리에 돌아와서 하는 그의 말이였다.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며 걱정을 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아무래두 안되겠습니다.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어야...》 하고 차창밖을 내다보는것이였다.

차창으로는 이름모를 고장의 거리며 살림집들이 얼른얼른 지나갔다.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울리였다.

《의사선생님, 어떻게 혼자서 데리고 가겠습니까? 저도 함께...》

아까 손세를 써가며 노래를 《지휘》하던 청년이였다.

렬차는 중간역에 멎어섰다. 두사람은 5번차로 가더니 환자를 부축하고 렬차에서 내리였다.

가야 할 목적지는 아직 멀고 그들에게도 급한 용무가 있으면만 낯선 고장에 선뜻 내려서는 저 모습, 남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바쳐가는 동지적 사랑의 숭고한 정신세계.

렬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건만 나는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노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

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사이의 사랑과 의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는 혁명적기풍과 고상한 풍모는 오늘 우리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나에게는 얼마전에 태천발전소의 관평언제 건설장에서 목격한 하나의 사실이 떠올랐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 건설자재를 만재하고 령길을 오르던 자동차가 멈춰섰다. 기관고장이였다. 여러명의 군인들이 어깨로 등으로 자동차를 밀며 령길을 뚫고있었다. 비물에 번들거리는 차비귀가 한치한지 올랐다가는 아래로 굴러내리고 이렇게 하기를 그 몇번.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저기 령길우에서 무수한 해불이 달음쳐왔다. 대원들을 기다리던 중대장과 중대원들이 저저마다 떨치나 해불을 추켜들었던 것이다...

참으로 뜨거운 걱정을 불러내는 순결한 의리이며 사랑이였다.

나는 레사로운 날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체험하군한다.

새날의 해빛이 웃는 아침이면 앞다투어 출근하여 사무실이며 일터를 청소하고 눈내리는 겨울이면 남먼저 눈을 치려고 발걸음을 다우치는 사람들, 동지의 과오를 준절히 타이르고는 자신이 오히려 가슴아파 잘못이루며 차례지는 영예와 공명을 가슴없이 남에게 돌려주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는 보통사람들의 이 일상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있는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참된 동지적사랑과 동지적협조의 풍모는 암벽을 맞받아 쇠돌을 허물어내는 위훈으로, 아찔한 언제를 한꺼번에 다져올리는 위력으로 마련되고 꽃피나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동지적관계,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지동지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통일단결되어있다.

렬차는 쾌속으로 달리였다. 가락맞게 울리는 차바퀴소리따라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환자를 위해 도중역에 내리던 사라들, 비오는 령길에 타고르던 해불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광산의 제대군인소대원들...

그들은 평범하면서도 참된 동지적사랑의 아름다운 꽃이였다.

렬차는 궤도를 구르며 줄달음쳤다. 마치 이 땅에 굽이치는 동지애의 흐름을 싣고 달리듯이-

소조원의 꿈

변홍영

이 벌에서 두번째 가을을 맞는다는
젊은 3대혁명소조원
그 서글서글한 눈매가
어쩌면 구면인것만 같아
나는 걷는다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몇해전 취재길에 들렀던 이고장 들길을

봄내 여름내 이 들길을 걸었을
벌바람에 끄는 그의 얼굴에
언뜻 스쳐지나가는것은 해빛인가 미소인가
올해에도 수고많은 그의 발자욱우에
꺼질듯 실린 만풍이 한껏 풍요를 자랑하건만
마음속엔 그 무슨 아쉬움이라도 있는듯
이윽도록 말이 없던 소조원
가없이 일렁이는 벌 한끝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이야기한다

울겨울엔 청년분조원들이 새로 개간한
저 더기 새땅에도
대동강물길공사를 마쳐 끝내겠다고
그리고 그들모두를 준기사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꿈이 많은 그의 목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긴다

그때도 나는 이 벌에 만풍을 가꾼
한 소조원처녀와 함께 걸었지
벼이삭들에 묻힌 이 두렁길에서
그때도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그 처녀의 눈가엔 꿈이 빛났지
벌 한끝까지 기계화포전도 더 늘구고
마을 뒤산엔 과원도 더 꾸리겠다고...

아, 그 처녀의 그윽한 눈빛에

함뼉 어렸던 그날의 그 꿈이
오늘은 수확기가 달리는 저 포전들에
금나락의 물결로 설레는구나
거기 뒤산기슭엔 과원이 우거져
행복의 능금알로 주렁졌구나

그 처녀가 남기고 간 살뜰한 정인듯
그날처럼 벼이삭이 발목에 휘감기고
불어오는 바람결도 한찬없이 정다운데
나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생각에 잠겨 젊은 소조원의 꿈처럼 좋은
이고장의 래일로 걸어간다

전변에 찬 세월을 앞세우고
저 더기 새땅 이랑들우에
소리치며 흘러드는 물소리도 들리는듯
보다 밝고 문명한 래일을 가꾸며
풍년나락을 안고 웃는
청년분조원들의 모습도 보이는듯

내 몇해전
이 벌에서 만났던 그 처녀처럼
이 젊은이도 소조생활을 마치고
이듬해면 여기를 떠나려만
위대한 당이 안겨준 그 꿈만은
풍요한 이랑들우에, 사람들 가슴속에
생활의 기쁨으로 웃음으로 떨기지려니

아, 소조원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들이 두고가는 꿈은 꽃피
얼마나 더 좋은 내 조국의 앞날이
해마다 이 땅에 오고있는가!

사시절 이 땅우에

박철

정이월-
부식퇴비 벌에 내던 그 나날에도
남먼저 솟는길에 길을 내며
눈바람에 그 얼굴 빨강게 피우더니

서리꽃 하얀 이 아침
우리 먼저 새땅찾기공사장에 나온 소조원처녀

아, 어쩌면
노을속에 웃음짓고 반기는 그 얼굴
이른봄에 피어난 한떨기 꽃인듯

늘 앞장에 서있어라
태양의 뜻 남먼저 알고
강산에 봄을 꽃피우는 진달래꽃처럼

우리 마음
봄계 봄계 물들이며

한 썰창 포전머리에서
주체농법 익혀주던 맑은 목소리
땅 먼저 마음속에
이랑이랑 풍년을 가꾸어주고

벌에서 기계화작업반에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고
농민된 자각을 불러주던 그 진정
봄 가을 바쁜 농사철도
주인의 어깨우에 흥겹게 실어주고-

아, 언제나 심장속에
3대혁명의 빛발을 안고 살아

그의 마음 봄빛이던가
소조원 그 마음 가닿는곳에선
낡고 뒤떨어진 모든것 녹아내리고
꽃피어나라 새 인간, 새생활, 새 농장벌이

이제 이 강변
큰물에 씻겨내리던 불모의 이 기슭에도
그 마음 은빛제방우로 솟아
새땅 새노래는
풍요한 벌에 이어져 설레이려니

아, 소조원처녀
그는 언제나 우리앞에 서있어라
은혜로운 당의 뜻으로
사람도 산천도 새롭게 꽃피나는
3대혁명의 봄계절 펼치고펼치며

세월에 대한 생각

안정기

반나마 회여진 머리
생각 깊어 바라보는 거울앞에
어려온다 내 젊은 시절이
달려온다 넘어온 준령들이

검은 머리 나 몰래 앓아간
해와 달 갈피갈피엔
못잊을 추억들이 새겨져있고
흘날린 눈발들이 쌓여있는듯

그 흰머리는 다만
자연의 궤도따라
세월이 뿌려간 흰서리가 아니구나
시대의 물결따라
흘러온 행운아의 배뒤편도 아니구나

분여지에 표말을 박던 그 손에
총잡고 화선천리 헤쳐넘으며
락동강 불모래우에 붉은 자욱 남기며
걸어갔더라 우리의 청춘은...

가슴치며 바라본 폐허우에
위훈의 탑을 밤낮으로 안아올리며
사랑할 권리는 뒤에 미루었고
사회주의 대건설의 년대와 년대에
언제나 서야 할 자리에 달려갔건만
바란적 없었더라 그 누가 알아주기를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그 믿음이면

없어주신 그 사랑이면
우리 가슴에 빈자리가 없기에

세월은 세대를 바꾸며 구울려도
마음은 청청 푸른 하늘이여라
우리의 50대, 60대가
수령님따라 먼길을 헤쳐왔다고
앞으로도 드팀없이 한길을 가리라고
오늘도 우리의 당
변함없는 활기를 부어주나니

아, 그 은정 어깨에 실리어
가벼이는 살수 없는 몸
남아있는 검은 머리
그저는 헐수 없는 몸

회여가는 머리에
전사된 의리가 깃들고
사람된 값이 스미여
오리오리 빛나게 살리라

흰색은 심장빛이 아니거니
겉이 희다고 속마저 회여진다면
나는 대오에서 떨어져
여생은 고독속에 시들리라

어머니당의 기대에
성실하게 끝까지 보답한
그 흔적으로 은빛된 오리오리
한생의 총화로 빛나게 하리라

《별》

박해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설사업은 자연과의 투쟁이며 따라서 이 사업도 하나의 전투입니다.》

목욕이 짙었다. 나무들도 푸른 잎사귀를 펼치고 싱싱한 자태를 한껏 드러냈다.

순천의 그 기상, 대지의 거대한 푸른 숨결을 받아안고 건설의 대음향속에 숲처럼 일떠서는 비날론공장건설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건설장에서만 느끼는 특이한 《향기》랄가, 불도젤소리, 호각소리 기증기소리...

위훈속에서만 숨쉬는 순천땅!

찾아오는 사람마다 위훈으로 부르듯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건설장마다에 오색찬란한 기발들이 힘차게 나뭇긴다.

어디로 갈것인가?

가끔 취재길에서는 목적인 취재대상을 고르기 힘들 때가 있는법이다.

거창한 위훈의 흐름속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7월의 따거운 해별을 받으며 잠시 망설이고 서 있는데 어디선가 손풍금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건설의 장쾌한 음향속에 특이한 소리다.

나는 취재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는 감감 잊은듯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옮겨졌다.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파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

꼬마 《명배우》의 독창이었다.

불에다 연지찍고 분발라 복스럽게 생긴 귀여운 유치원애들이 금방 닦아놓았는지 아직도 샅자리가 생생한 건설장의 무대에서 재롱을 부리고있었다.

요란한 박수속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무용수》, 채찍을 휘두르며 유격대의 말파리를 몰아가듯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중창, 화려한 극장의 무대가 아니라도 청신한 꽃봉오리들의 춤과 노래는 병사들의 재청을 몇번씩이나 받는지 몰랐다.

재청을 하며 기뻐하는 병사들을 보느라니령남리가 고향인 서해갑문 영웅병사를 취재할 때 그가 하던 말이 불현듯 귀에 쟁쟁히 울려왔다.

《저는 우리 병사들이 서해갑문 건설장에서 세운 위훈을 생각할 때 아이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웅메달을 앞가슴에 달고 고향마을을 바라보며 동구길에 들어서니 초소로 떠날 때 바래주던 어머니며 갑문건설의 나날에 자주 나와 돌배집 셋째아들이 큰일을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고향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저씨!>하며 달려와 안기는 처녀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힘껏 안아줬지요.령남리 유치원에 다니는 별이라는 애였습니다.

<아저씨 저 바다를 막고 오나요.>

<바다? 옹쿠나. 그런데 넌 어떻게 아니?>

<난 다 알아요. 이거 영웅메달이지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기서 바다를 막은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다 영웅아저씨들이래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별이 정말 옹쿠나.>

영웅메달을 볼에 비벼도 보며 만져보던 별이가 <아저씨 가슴에도 영웅별, 내 가슴에도 빨간별.>하며 보란듯이 내보이는 별이의 앞가슴에도 종이로 만든 빨간별이 붙어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탔나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 애의 동심어린 말이었습니다.

<착한 일? 아저씨는 말이다. 별이도 알지.

아버지원수님의 부름을 받들고 바다를 막았단다》

《야! 아저씨가 제일이야요. 철이랑, 옥이랑, 함께 바다를 막는 영웅아저씨들앞에서 우리 모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착한 일을 했다고 철이랑, 나한테랑 빨간별을 달아줬어요.》

별이의 얼굴이 봉선화같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별이는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아저씨는 바다를 막는 착한 일을 하고 별이는 영웅아저씨들앞에서 노래를 부르구...>

무슨 말을 하려다가 생각에 골몰했던 별이가 <응 그러니깐 아저씨 영웅별하고 내 빨간별하고 같다야!>하며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것이었습니다.》

같다?!

같은 별?!...

왁작 떠드는 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공연이 끝난것이다. 병사들은 저저마다 달려나가 애들을 얼싸안았다.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것을 보느라니 별이의 말이 철없는 애의 말로만 들리지 않았다. 결코 철

없는 애의 말이 아니다.

나의 머리속에서는 뭔가 번개처럼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건설장에 찾아오면 병사들의 위훈이 왜 없으랴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 애들의 위훈이랄까, 얼핏 보면 스쳐보내기가 십상인 평범한 이 말이 이렇듯 세차게 가슴을 울려주는 것이 아닌가.

저 아이들에 대해 쓰자.

애들의 동심이 비긴 소박한 노래와 춤을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이들의 《공연》을 위훈으로 부추겨주는 귀중한 씨앗으로 가슴속에 심어둔 병사들!

해방후 건국건설의 나날에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노래소리, 불타는 고지에서는 또 어떠했으랴.

병사들은 그 노래소리에 미래를 내다보며 미제 원썬들을 죽이지 않았던가.

더욱더 뚜렷이 위훈의 존재로 안겨오는 저 애들의 모습이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폐허속에서도 복구건설의 우렁찬 마치소리와 함께 이 땅을 울려주던 아이들의 노래, 오늘도 저 애들의 노래소리를 새기며 병사들은 저렇듯 창공높이 기둥들을 일떠세우면서 온 비날론건설장마다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 하늘에 별들이 많다 해도 어찌 수많은 우리 귀여운 아기 《별》들에 비기랴,

병사들이 세우는 위훈은 이제 머지않아 비날론 공장굴뚝에서 흰 연기가 솟아나는 그것으로 새겨지겠지만 저 애들의 위훈에는 무엇이 새겨지게 될 것인가.

그렇다! 저 애들의 위훈은 빨간벌로 새겨지리라.

정녕 이 땅에 저 아기 《별》들이 창조하는 위훈은 얼마이고 저런 소중한 별들을 새겨가는 마음들은 얼마인가...

어머니의 마음

염득복

고요한 밤
별들도 내려와 잠든 이 밤
행복한 꿈을 꾸는 듯
아들아
잠결에도 너는 웃고있구나

밤새 손질한 옷에 흙물 바르며
뜨락에서 흙으로 집을 지으며
건설자가 되겠다던 네 어린시절처럼
내 밤을 새워 시종한들
잠이 안올 이 마음

세월은 흘러
제대배낭 메고 너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 마음 그 얼마나 기뻐는지
아느냐, 아들아
아버지의 대를 이어
훌륭한 소성공이 될 너의 앞날을 생각
하며...

아들아
자식에 대한 이 어머니의 믿음
헛되지 않았구나
네가 일하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 받았다고
기뻐하던 이웃들의 그 축복도

이 가슴에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알테지
잠들수 없는 이 밤
꿈속에서도 너는
이 어머니앞에 기쁨만을 속삭이는 듯
어린시절 요람속에서처럼
사심없는 웃음을 짓고있구나

웃는 네 얼굴
장히 바라보는 이 마음속에
왜 이리도 기쁨만이
생긋는 것이냐
앞설의 훈장도 네 웃음처럼
이 가슴 더없이 설레게 하는구나

아들아
이 밤처럼 언제나
이 어머니앞에 웃거라
조국의 하많은 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며
언제나 부끄럼없이
행복한 밤
달빛은 정겨이 너의 미소를 어루만지고
이 마음은 너의 마음을 소중히 안아준다
날마다 위훈안고 웃는 네 한생에
이 어머니의 한생도 있는 것이기에

랑심선언

남대현

...어머니! 보고싶은 어머니

독감방의 회색천정에 매달려있는 뿌연 전등불 아래에서 상범은 이렇게 첫머리를 뗐으나 다음을 이을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각에도 자기에 대한 애달픈 생각으로 하여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하염없이 어딘가를 바라보시고계실 어머니, 그러시다가 마침내는 가냘픈 한숨을 토푼시며 그 주름많은 불편으로 주르르 뜨거운 눈물을 떨구실 불쌍한 어머니모습이 떠올라서였다. 오늘도 분명 그 보물이 인 무명수건으로 눈굽을 찍으시겠지. 대학공부를 하러 고향을 떠나올 때도 그 무명수건에 얼굴을 묻으시며 얼마나 간절히 당부하시던 어머니이시였던가!

《우리 집안 명줄이 너 하나한테 달렸다는거 명심하고 부디 공부 잘해라. 알았제? 알아들었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갖은 고생 다해오신 어머니와 두 누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로지 학과에만 전심하리라는 하나의 결심, 하루빨리 한다 하는 관점사가 되어 어머니로후 편히 모실 그 하나의 결심뿐이던 자기가 오늘엔 공부는 고사하고 도리어 것처럼 동경해마지 않던 법관앞에서 재판관을 받은 죄인이 되고 말았으니...

그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펜을 쥐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효도가 고대광실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아무런 맘고통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는걸 저도 압니다.

이 일로 하여 제가 잃어버리는게 있다면 대학졸업장인데 세상의 아들들이 대학졸업장으로 효도하는것이 아닌만큼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그런 날이 꼭오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지나친 걱정마시고 굶은것이 퍼지고 바라던것이 오는날 아들이 웃으며 돌아가게 된다는것을 믿으시고 부디 심신만 귀히 보존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웃으며 돌아갈 날?)

상범은 갑자기 손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앞에 막아서는 깊은 심연의 나락을 절감했기때문이었다.

(과연 그런 날이 있거나 할가? 그때까지 병약한 어머니님이 살아계시거나 할가? 10년! 그때 어머니년세는?)

헤아려보기조차 피로왔다.

《<폭도>들을 규합하여 서울미국문화원점거사건을 유발시킨 주범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폭행법>위반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4년.》

오늘 있는 1심에서 받은 판결이었다.

《국가보안법》이라면 우선 어머니인 이복과 련결돼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여기시기 십상이리라!

어릴적부터 어리무던하기만 하다고 탓하던 아들, 고향을 떠나올 때 돈을 주시면서 《조심해라. 서울가문 소매치기 많다더라》 하시는 말씀에 소매치기가 어떻게 남의 주머니를 터는지는 몰랐지만 불안한 맘 가누지 못해 그 돈을 양말안데다 쑤셔넣던 이 아들이 3년사이에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옥살이를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젠 《국가》의 안전을 해친 《국가보안법》으로까지 되었으니 이 사실을 어머니님이 어떻게 리해할수 있리라.

재판장의 판결문랑독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상회누님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우리 상범이는 그런 애가 아니예요. 보세요. 이게 국민학교때 받은 <어린이상>이예요. 그리고 중학때에는 <미덕>과 <성심의 교양>을 위해 교회의 <성가대>에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니요.》하고 말했을 때 왜 이처럼 바보스럽게도 눈물이 쏟아지던지

《국가보안법!》

문득 처음 구치소생활을 할 때 《국가보안법》을 보고 놀라던 일이 생각났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손에 수갑을 찬채 담장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있는 해사한 얼굴의 청년을 발견한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굳어지고말았다.

앞가슴에 빨간딱지가 붙어있는 《국가보안법》이 기때문이었다.

구로공단에 적을 두고있는 로동잔대 재판절차를 모두 끝내고 형집행을 기다리고있다고 누군가 대주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이는 어쩌서 남쪽에서 태어나 북쪽을 자기 조국으로 택한것일까? 죽음을 기다리는 지금의 하루하루를 무슨 생각으로 보내는걸까? 저이가 살아있을수 있는것이 한주일일까 아니면 래일 하루밖에 더 없을가? 저이에 비하면 난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란 비록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다 해도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대할 때면 자신의 행복을 무상의 희열로 느끼게 되는 법인지.

그처럼 자기와는 먼거리에 있다고 여겼던 《국

가보안범》이었던만 오늘은 바로 자기가 그 당사자가 되어 가슴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독방에 갇혀있는것이다. 그리고보면 생활이란 과연 얼마나 불가사이한것인가!

상범은 벽에 기댄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나온 일들이 물위에 뜬 징검돌마냥 눈앞에 선히 밝혀왔다.

그중에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역시 시위때마다 선두에서 갈범처럼 날치던 그 태호의 모습이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그러나 불멸할 모습으로 영원히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 정녕 얼마나 보고싶은 모습인가!

호리호리한 몸집에 유순한 눈빛, 얼핏 보기엔 대학생이라기보다 일당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막벌이군같은 그가 하숙집에 찾아왔을 때 상범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같이 동숙할수 없을가 해서 왔네. 전기세, 방세 반부담하는것도 좋지만 같은 법대로서 학습에도 도움이 될테니 좋지 않은가. 내란 사람 이래뵈두 부지런하구 좋은 사람이다구.》

확실히 첫인상은 괜찮아보였다.

생활은 흔히 첫인상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다는것을 모르는 상범이가 아니였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좋기만을 비웠고 또 그런 사람앞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상범이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상범의 처지는 대번에 《식모》로, 지어는 《세탁부》로 까지 전락되지 않을수 없었다. 다른건 몰라도 부지런하다는 자기 소개만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어디를 돌아치는지 매일 새벽녘이 되어야 하숙으로 돌아와 이불안에 기여드는가 하면 아침밥을 차려놓고는 엉치를 몇대 갈겨야 겨우 눈을 뜨는 그였다.

《오늘은 먹지 않겠네.》

《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야말이지.》

《어째?》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흠! 주제에 체면은 있어가지고...》

그릇들을 부시고 방에 들어와 정말 밥을 먹지 않았는가싶어 밥사발을 열어보면 웬걸 사발에는 밥풀 하나 붙어있지 않는것이였다.

그만하면 집안이 꽤 유족한 편인데도 땡전으로 사는 자기와 함께 하숙하는 리유가 바로 학생운동을 하기 유리하다는데 있었다는것을 상범은 후에야 알았던것이다. 그는 드러내놓고 《지하씨클》을 주도하는가 하면 유인물이며 비밀출판물에도 아짜아짜한 글들을 서슴없이 써냈다.

《아무래도 자네하고 동거하는건 생각해봐야겠는걸.》

《왜?》

《틀림없이 자넨 앞으로 <빨간딱지>를 붙이게

될테고 그러면 나한테도 불뚱이 튀어 밀줄이 그 어질게 아닌가. 자네야 글썽 형제들이 많지만 나야 홀어머니를 모시고있는 외아들이거든.》

《걱정 말게, 내가 보건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만은 결코 빨간물이 들 사람이 아니야. 빨간물이 들기전에 필경 누구보다 먼저 <사법고시>에 파스할 수재란 말일세. 저- 미래의 판사님!》

갑자기 방바닥에 엎죽 엎드린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거렸다.

《제발 후일 그 높은 법단에 올라서시면 이 불쌍한 피고만은 잘 돌봐주세요. 한가마밥을 먹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상범은 손가락을 들어 상을 내리치며 재판장처럼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숙에서 날 고생시킨 <무보수고역죄>까지 들썩워 아예 <극형>을 언도하고 말겠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의롭고 순박한 태호를 진정으로 도울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았던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태호와 함께 학교로 가던 상범은 교문앞에서 불시에 형사들의 제지를 받았다.

《네가 태호냐?》

형사들과 침 맞서본 상범은 저도 모르게 한걸음 물러시며 옆에 있는 태호를 돌아보았다.

《네놈이로구나. 네가 시위를 선동했지? 이런 유인물까지 뿌리면서.》

《선동이라니요? 그 글이 뭐 위법인가요?》

《이자식봐라! 제법 땅콩이다.》

《난 땅콩이 아니라 법대생이예요. 무엇보다문인지 모르고 조사받을순 없단말예요.》

형사가 그의 목살을 쥐자 수행한 경찰이 달려들어 곤봉세례를 안겼다.

《상범이... 상...》

순식간에 두팔을 뒤로 묶이운 태호가 이쪽을 돌아보며 안타까이 소리쳤으나 상범은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저 가슴이 떨릴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포도우에 뿌려진 태호의 책들을 주섬주섬 주을때에야 그는 그렇게 멍하니 서있기만 했던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어쩐지 두눈에 눈물이 핑 어리기까지 했다.

(그를 도와준다구?)

순간 그의 눈앞에는 하나의 화면이 생동한 표상으로 새겨졌는데 그것은 텔레비죤에서 가끔씩 보군하던 동물세계의 한 장면이였다.

사자에게 쫓기던 자기 동료가 마침내 먹물 물리워 비명을 지르는데도 놀라기는 하나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듯 또 위험은 이미 사라졌다는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던 아프리카들소의 모습이였다.

《한심도 하지.》

누군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할 때면

《그래서 동물이 아닌가!》

하고 대꾸하던 자기였었다.

(그래 내가 그 들소와 다름바 뭐란말인가! 같이 살던 친구가 끌려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내가!)

그날밤 상범은 난생처음 겪어보는 량심의 가책으로 하여 한잠도 이룰수 없었다.

며칠후 그는 보다 심각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저녁 늦게 교사에서 돌아오던 그는 나무들이 우거진 정원에서 너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흠뻑했다. 그리로 다가갔을 때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않을수 없었다. 브라우스앞실을 갈가리 찢기운 한녀대생이 어떤 우악스런 사나이의 강제에 못이겨 풀밭에서 몸부림치고있는것이 아닌가!

대뜸 오늘 있는 성토모임에 참가한 녀대생에 대한 사복경찰의 추행이 분명하리라는 직감이 갔다.

상범은 다짜고짜 그의 덜미를 잡아챘다. 더는 무뎡한 들소처럼 살수 없다는 인간적인 량심이 유발시킨 분노의 분출이었다.

순간 상범은 그의 구두발에 채워 나가떨어졌다. 별떡 일어난 그는 다시 소리쳤다.

《명색이 경찰이라는데, 민중의 지평이라는데.》

《그래서 어쨌다는거냐 ?》

그자는 자기가 경찰임을 숨기지도 않고 주먹을 휘둘러댔다. 이룩하지 못한 야욕이 야수성을 배로 증가시켰던것이다.

그것도 격투라고 할수 있다면 상범은 처음 격투라는걸 해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다. 얼굴은 무섭게 부어올랐고 입과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온몸을 매달질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수가 없었던것이다.

종시 그를 꺼꾸르뜨린 사복이 그의 얼굴을 구두발로 마구 짓찧을 때였다.

《안돼요. 안돼!》

바로 이때 속지라고 부르는 그 녀대생이 상범을 와락 부둥켜안았던것이다.

《안됐어요. 저때문에 ... 정말 무슨 말로...》

겨우 이렇게 중얼거린 그는 두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지 마오. 자-》

상범은 자기의 피물은 와이샤쓰로 그의 상체를 감싸주었다.

그때부터 상범의 눈엔 모든것이 이전과는 달리 비쳐들기 시작했다. 하고싶은 공부를 다 하고 졸업후에 보장된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도 해주고싶었지만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것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아니 단지 고민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생각에 미쳤던것

이다.

드디어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위대오에 나섰고 경찰저지선앞에서는 돌맹이를 던지기에 이르렀다.

집회, 련좌시위, 며칠동안의 철야농성투쟁... 학생들이 사소한 모임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내에 상주하게 된 경찰들이 운동장의 푸른 잔디를 하얗게 벗겨놓으며 야구를 하던 모습...

모든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눈에 선히 떠올랐다.

《너 정말 그렇게 뻔대겠어? 뻔대겠나말야!》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함소리에 상범은 눈을 떴다.

340번이 있는 방이다. ,

며칠째되는 그의 단식에 화가 난 교도관이 오늘은 우격다짐으로라도 죽을 먹이려고 했됐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임마! 여기가 뭐 느이집 안방인줄 알어? 엉 좋아! 어디 며칠이나 견디나 두고보자!》

340번은 스무살쯤 난 대학제적생이 분명한데 무슨 일로 들어온 친굴가? 필경 그에게도 <좌경>이니 <용공>이니 하는 딱지가 붙어있을테지.

희유와 협박, 그래도 안되면 어떤 고문도 서슴치 않는 야만들, 그리하여 기어이 저들에게 필요하게 사건들을 조작해내는 악마들.

(이 나라의 법이란 권력자의 의지에 불과하고 법정이란 한갓 진리의 처형장에 지나지 않지.)

이것은 1년전 구치소에 들어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 그가 느낀 진리였다.

그때 그가 체포된것은 련좌시위때 <광주백서>를 발표했기때문이었는데 그것은 권고를 쓴 태호가 련행된것으로 하여 그를 대신한데 있었다. 같이 사는 친구로서 더우기 그전에 그가 붙잡힐 때 지켜보기만 했던 죄책감으로 해서 그 백서를 랑독했던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은 독재자와 함께 그를 배후에서 조종한 미국에게 있다는것을 밝힌것으로서 따져보면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장이기도 했다.

한데 취조관은 바로 그 사실을 부인할것을 요구하는것이였다. 놀랍게도 미국을 광주사태와 련결시켜 지적한것은 어떤 배후세력의 압력과 거금에 의한 매수때문이었다는것을 자백하라는것이였다. 말하자면 날조를 위한 허위의 강요였다.

(어떻게 그 사실을 부인한단말인가!)

도저히 량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거짓대답을 받아내기 위해 가해지는 고문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똑바로 말해. 이 글을 누가 시켜서 썼어?》

《내가 썼소.》

《허 이런 헛송아지라구야. 이걸 썼다면 제 목에 올라미가 걸린다는것도 모르고있으니? 그러고

보면 넌 아직 성향이 그리 나쁘지 않은 학생이야. 그래서 리용당했다는걸 우리도 알지. 이걸 틀림없이 네가 쓴게 아니라 어떤 세력이 뒤에서 부추겨서 쓴거야. 그렇지?》

《아니요.》

《부추겼다는데두.》

《부추기지 않았소.》

《이자식이?》

각가지 형기들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던 비명.

상범은 뼈마디가 으스러지는것 같은 아픔을 느낄때마다 몇번이고 순간적이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해버릴가 하는 생각을 품었는지 몰랐다. 하나 거기에 거역해나선것은 역시 량심이였다.

(법이 비록 육체는 강제할수 있다해도 량심만은 그럴수 없다. 그래서 량심이 고귀하다는것이 아닌가! 난 절대로 량심을 팔진 않을테다!)

이발을 사려물고 이렇게 다짐하곤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꺼꾸로 매달려 정신을 잃었었는데 어느새 수도꼭지밑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는가 하면 온몸을 쭈시는 동통으로 하여 실신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뜨거운 백광에 놀라 소스라쳐 깨나기도 하는 과정에 그 결심은 점점 희미해져갔던것이다.

《그래 아직도 우기겠어?》

《...》

《우린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그 글을 썼는지 다 알고있어. 자 여기다 지장을 찍어! 어서!》

마침내 상범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버리고말았던것이다.

다음날부터는 아무 부담도 없는 편안한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고통, 육체적고통을 이기지 못해 량심을 판 정신적인 고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단말인가! 경찰은 분명 《광주백서》를 어떤 조직의 압력과 매수때문에 발표한것으로 공개할것이 아닌가! 태호가 나를 어떻게 볼것인가? 또 친구들은...)

량을을 육신의 아픔과 바꾼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량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것이다.

(법은 제도가 만든것이지만 량심은 인간이 준것이 아닐가! 법은 일시적인것이지만 량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한것이 아닌가! 그렇기때문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량심을 따라야 하는것이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보다 량심의 선언을 따르는 일이 몇배 더 중요하기때문에, 그런데 나는?)

멀건 죽물마져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

두달만에 자유의 몸이 된 그였지만 조금도 기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없이 추하고 저주스럽기만 했다.

《일없네. 너무 소침해지진 말게. 이젠 이 나라

의 법이 어떻다는걸 똑똑히 알지 않았나.》

먼저 출옥한 태호가 제손으로 차린 밥상을 들고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을 때 상범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날 용서해주게.》

《됐네. 됐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미국이라는 말만 나오면 것처럼 포악해지는지 아나? 그건 저들이 제일 아파하는곳을 건드리기때문이지. 원래 허물을 감추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이 그 부위에만 가도 민감하게 느껴지기마련이니까. 사실 우리의 과녁은 미국이란말일세.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있으니... 난 이게 제일 안타깝네. 그래 어떻게 해야 이걸 모두에게 인식시킬수 있겠나?》

그때부터 상범은 늘 태호와 함께였다. 시위때에도 선봉에 함께 섰고 수업시간에도 나란히 같이 앉았다.

어느날 강의시간 상범은 법에 대한 강사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이란 교수님말씀대로 단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여서는 부족하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이 한번 만족시켜보오.》

《법이 법을 위한 법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들의 량심과 일치할 때 즉 법을 지키는것이 량심을 지키는 일로 되고 량심을 지키는것이 법을 지키는 일로 될 때해야 그 법이 공정하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이 량심과 호상 비례관계에 놓이지 않을 때에는 법이 벌써 자기의 신성한 가치를 매장당했다는것을 의미한다것입니다.》

구치소에서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피력했다.

《음- 법과 량심의 동일설이라... 과연 그런 법이 존재할가? 그러니 우린 그런 법의 혜택을 누려보기 위해선 군이 법무장관이 되길 기다려야겠군.》

와- 웃음이 터쳤다.

《아닙니다. 교수님!》

이때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개인이 법무장관이 되길 기다릴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모두가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법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가 만드는데것이라고 바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지않았습니까.》

이번엔 박수가 일었다.

대학에서나 시위때에는 한다하는 태호였지만 하숙에 돌아와서는 상범이한테 움짱도 못했다. 어떻게 돼서인지 생활이 은연중 둘사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생활은 확실히 자기를 성실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모양이었다.

일체 경제권을 틀어쥔 상범은 이러저러한 잔신부름까지도 태호에게 다 시켰다.

《장 좀 봐와야겠네.》

《또 장? 그저 아무거나 먹고말지그래.》

《아니 쌀은 아껴야겠네. 우선 라면 두봉지하고 간장 한병만 사오게.》

《젠장! 이젠 쌀이 국수분통 되고말겠네.》

투덜거려긴 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것이다.

《침엔 그래도 자네같은 처녀라면 괜찮다고 여겼지만 이젠 자네같은 깡쟁이 마누라하구 살다간 아예 말라죽고말것 같네. 아무래도 난 너자복만은 타고나지 못한 팔간자부야.》

《왜?》

《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몇번 찢러본 처녀가 있는데 영 말을 들어주어야말이지》

《누군데? 내가 나서볼가?》

《아니 이젠 늦었어!》

그런데 하루는 바로 그 처녀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를 보는 순간 상범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다름아닌 숙지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놀란것은 태호쪽이었다. 《아니 서로 아는 사인가?》

《상범썬 저의 은인인걸요.》

웃으며 하는 숙지의 대꾸였다.

《은인?》

《그래요. 생명의 은인, 아니 뭐라고 할가. 그보다 더 고마운 은인이죠.》

《그렇다?》태호는 좀처럼 리해가 가지 않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래 그런 은인에 대한 아무런 보답도 없소?》

《글썬. 그제 걱정이예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다른게 있소? 자기한테서 제일 값진걸 선물하면 되는거지.》

《저한테 어디 그런게 있어야죠?》

《잊지 않소. 모두가 탐내는 그 청춘말이요,》

《어머-》

기겁을 한 숙지가 태호의 어깨를 마구 두들겨쌌다.

《그렇지만 상범이. 너무 열을 올리지 말어. 이 숙지씨의 특징은 맘을 주는척하다가도 정도가 넘는것 같으면 딱 잘라매니까. 그럼 나처럼 코밀이만 하구말지.》

보매 이들은 학생회일로 자주 만나는 모양이었다. 하긴 한사람은 법대대표요 한사람은 녀대대표였으니까.

한데 며칠후 또다시 숙지가 하숙에 나타났다.

《어떡한다? 태호가 지금 없는데.》

상범이 이렇게 말하자 미소가 담겨있던 숙지의 그 귀여운 눈이 왜서인지 금시 뿔로통해지는것이였다.

《바쁜일이요?》

《...》

《내한테 말하오. 책임적으로 전할테니까.》

《...》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있던 숙지가 소녀처럼 뒤로 뺨 돌아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바닥을 쿵쿵 울리며 서둘러 문밖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그런 그의 모습을 상범은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다.

4월, 새 《학생회》가 조직되자 태호는 절대적인 인기로 총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였다. 치열한 경선에서 다른 립후보들을 멀리 밀어붙이고 단연 득표한데는 그가 들고나온 새로운 구호에 있었다. 그의 구호는 자유도 정의도 민주도 아닌 반미였다.

《민주의 씨앗도 정의의 뿌리도 자유의 새싹도 오로지 미국을 몰아낸 터전우에서만 꽃피고 열매 맺을수 있다.》

이 폭탄같은 주장으로 하여 대번에 경찰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나 그는 자기의 주장을 건결히 력설했다. 시위며 모임때는 물론 각종 출판물과 유인물을 통해서도 미국을 무자비하게 발가벗겼다.

침엔 그에 대한 전국지명수배가 하달되더니 곧 이백만원의 현상금이 그의 목에 걸렸다. 그러다가 나중엔 이복의 주장을 실천하는 《<용공>리적 단체의 수괴》라는 어마어마한 딱지까지 붙였던 것이다. 붙잡히기만 하면 당장 처형될 《증죄인》이라는것이 볼보듯 명백했으나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태호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 가있게 몸을 숨기란말일세.》

《아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없어선 안될 때네. 승미에 얼룩졌던 민중들이 깨나기 시작했네. 그 혼을 더욱 세차게 흔들어 깨울 때란말일세.》

《전국학생련합》이 결성되는 날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에 나타난 그는 서슴없이 연단에 뛰어들었다. 이미 모든것을 각오한 사람의 행동이였다.

《저놈이 태호다. 당장 끌어내려!》

포진해있던 경찰들이 그가 있는 연단으로 좁혀들려 했으나 학생들이 몸으로 막아나섰다.

《경찰나리님들, 내 모가지에 걸린 이백만원이 탐나서 그러시오? 누구한테 그 돈을 선사하는가 하는건 아직은 내한테 달려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히죽 웃어보이기까지 한 그는 고개를 들고 학생들을 굽어보았다.

《학우들! 우리는 오늘에야 비로소 것처럼 갈구해마지않던 올바른 투쟁기치.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력사적정권에 정당한 심판을 내리며 통일민주조국건설을 위해 장엄한 진군을 개시할 전위단체인 <전학련>을 무었습시다.》

곳곳에서 《전학련》만세의 함성이 일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다시한번 우리들에

게 반의세의. 진리를 꿰는 가슴의 붉은 선혈로 가르쳐준 광주의 영령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드리게 됩니다.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허상에 40년동안이나 속아살아온 불쌍한 우리 겨레, 갓 해방된 우리땅에 기여들어 갓은 교활한 수법으로 략탈하고 억압해도 그것을 도리어 <원조>로 받아들이는 순박한 우리 민중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학우들! 여태까진 변죽을 울리는데 지나지 않던 우리가 이젠 <전학련>이라는 보검을 손에 쥐고 그 원쑤를 똑바로 겨누게 되었습니다. 자, 찌릅시다. 서슴지 말고 찌릅시다. 검은 피가 차있을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찌릅시다.》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리던 경찰들이 거의 연단을 에워쌌을 때였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한곳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갈린 소리로 말했다.

《학우들! 사랑하는 학우들!》

그러면서 연단밑에서 휘발유통을 꺼내 그것을 온몸에 뒤집어쓰는 것이었다.

일시에 비명이 터졌으나 그는 라이타를 꺼내들며 태연한 목소리로 웅쳤다.

《나의 죽음이 아직도 숭미사상에 가위눌린 이 나라 민중들의 혼을 흔들어깨우는 한점의 불꽃이 되어준다면, 그리하여 <전학련>이 추켜든 반미기치를 더욱 힘차게 나뭇기게 하는 한점의 꽃바람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영광이 없겠소. 자- 나의 마지막 구호를 들어주소. 아니 우리모두 함께 웨칩시다. 미제를 몰-아-내-자-》

순간 평강하는 불꽃과 함께 두손을 높이 들고 웨치는 그의 온몸이 그대로 불덩어리가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전율하며 그 불사신을 지켜보았다.

《태호!》

상범은 그의 새까만 시체를 부둥켜안고 물부림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만 했다.

《태호! 내 만일 네가 마지막으로 웨친 그 절규대로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에서 지 못한다면, 내 만일 네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통일된 조국의 푸른 동산에 네 묘비를 장식하지 못한다면 내 어찌 너의 친구라 하겠는가! 전에는 비록 너의 백서를 읽고 량심을 판 나였지만 이번엔 네 뜻을 심장으로 받들테다!》

그때부터 학생회원으로 활동하게 된 상범은 태호의 유언을 지켜 첫대상을 서울미국문화원으로 정하고 드디어 70여명의 행동대로 놈들의 소굴을 점령했던 것이다.

《미국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한다.》

《미국은 광주사태를 책임지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미국은 우리의 <벗>이 아니라 철천지원수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던 미국대사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 시간을 얻어 회유해보려던 놈들의 비열한 음모, 악에 받친 경찰들의 발악적인 돌입...

상범의 눈앞에는 다시금 불길에 휩싸여서도 두 팔을 쳐들고 미제를 규탄하던 태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 태호!》

저도 모르게 몸을 번쩍 일으키던 그는 그제야 자기앞에 쓰다가 만 편지지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새로운 충동에 휘황인 상범은 다시 펜을 쥐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 어머니

언제나 사람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던. 어머니,

전 어머니 말씀을 따랐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설레이던 열여덟살의 소년이 3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수 없는 《죄인》으로 비난받게 된 것이 결코 온순했던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바로 이 시대가 가장 온수한 인간들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정에서도 말했지만 전 저에게 해당된 모든 죄목들에 대한 하등의 의의도 부여하지 않았습다. 왜냐 하면 그것은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법이 아니라 량심이라는 것을 이젠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량심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며 그 량심의 선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녕 그들이야말로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짐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줄 아는 이 땅의 가장 참된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아들이 불행하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 역시 옛날처럼 《국가보안법》이라고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없이 떳떳하고 자랑스런 심정입니다.

세상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어머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장한 아들 두셨다는, 그리하여 자랑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이 한가지 생각만으로 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단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어머님의 건강인데 그것도 이젠 살뜰한 며느리가 옆에 있다는 것으로 차여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면회실에 나타났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회는 직계만이 허용되는데 가족도 친척도 아닌 숙지양이 서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대신 한장의

종이를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게 글씨 혼인신고 일줄이야.

《저를 받아주실수 있어요?》

너무도 뜻밖이고 또 너무도 과만한 행복에 저는 어리둥절했을뿐입니다. 언젠가 숙지에게 뭘로 보답하겠는가고 따지던 태호의 말이 상기되더군요. 그러나 너무나도 눈물겹고 너무나도 희생적인 그의 사랑이어서 후에라도 그걸 보답할수 있겠는지 이젠 도리어 제가 걱정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전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런 머느리라는 것을 아시고 옆에서 많이 아껴주십시오.

어머니, 생각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어머니도 뵙고싶고 숙지도 안아주고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이란 기다림에서 다 생겨나는것이 아닙니까. 기다림의 세월이 길수록 그리움도 짙어지고 그리움이 짙은것만큼 다시 만나는 기쁨 또한 클터이니 저는 이 세월을 마냥 손해보는 나날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웃으며 보내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이 아들이 잠간 절간에 공부하러 간 것으로 여기시고. 몸성히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다음기회에 또 소식 여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를 다 쓰고난 상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쳐들고 온몸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밤이 얼마나 깊었나싶어 하늘이 내다보이는 손바닥만한 창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어느새 그 창밖으로는 어둠을 밀어낸 새벽하늘이, 연보라빛 려명에 휩싸인 새벽하늘이 흰하게 펼쳐지고있었다.

(그렇다! 오고야말 그날은 반드시 저렇게 오고야마는 법이다!)

상범은 몇번이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웃음앞에

림공식

분노는 가슴에 끓고
증오는 눈빛에도 어렸건만
힘있게 학우들을 향해
남녘의 청년은 미소를 보낸다
원썹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총칼앞에서도
주저앉지 말자고
파쑈의 철쇄를 부시는 그날까지
싸워서 새봄을 안아오자고
마음속 약속도 담은 웃음을

높이 흔들던 주먹은
죽쇄에 얹매였어도
가슴속 신념이야
그 어이 얹어떨수 있으랴
아, 민주의 봄을 불러
통일의 그날을 불러
피끓는 학우들과
항쟁의 거리에 나섰던 청년

더는 투쟁의 숨결 호흡하지 못하게
더는 항쟁의 나래 퍼덕이지 못하게
악귀같은 놈들은 긴쇄로 묶여
영원히 얹매려 하건만

전를하라!
살인마들아!
저 깨긋한 웃음
억눌려 살기를 원치 않는
저 인간의 넋을
그 무엇으로 흐리울수 있으랴

비관을 모르고
절망도 모르고
민주를
통일을 위해 끓는
저 심장의 랑만이야
교수대인들 없앨소나

순결한 저 웃음
량심을 지키고
민족의 넋이 어린 웃음
빼앗지 못하리라
저 웃음만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대도
싸워 찾을 자유의 세상에
한떨기 꽃으로 피어날 저 웃음을

오, 빼앗지 못하리라
항쟁의 거리에 날리는
저 불꽃같은 웃음을!

전쟁물소설에서 생활묘사

최성국

조국해방전쟁 주제문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자면 반드시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고상한 예술성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작품의 사상예술적감화력과 정서적매력은 인간의 다양한 사상감정을 여러모로 드러내는 생활적형상에 의해 담보되며 생활을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전쟁을 생활과정으로 되게 그리며 전쟁의 담당자인 사람, 병사대중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해내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전쟁주제문학의 본성적 요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쟁주제영화를 만들 때에 많은 군사장비를 내놓고 전투하는 장면을 그릴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의의있는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학예술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에 작용하고 그로부터 자기의 교양적목적을 실현하는것만큼 모든 사건과 인물을 인민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형상하여야 한다.

전쟁물에서도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어야 전투하는 장면만 내세우는 결함을 극복하고 영웅전사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심오하게 밝혀내어 인민들의 취미와 미학적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풍만한 정서를 담을수 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것이고 전쟁자체가. 사람들의 생활과정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전쟁현실을 반영하고 당대의 시대상을 폭넓게 보여준다고하면서 생활을 그릴대신 전투장면만 내세우고 사건만 라렬하면 다양한 정서와 감정이 흘러나오지 못할것은 물론이고 메마른 형상과 추상적인 개념밖에 남을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형상의 중심에는 인간의 성격이 아니라 전략전술적문제를 둘러싼 사건이 놓이게 되며 인간문제가 아니라 흥미본위의 관에 박은듯한 도식과 류형을 띤 사건해명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묘사에서 주인공의 영웅적형상을 그중심에 내세운다고 하여 비상한 전투정황만을 찾거나 요란한 사건에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의의있는 생활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최근 창작된 전쟁주제소설작품들을 보면 그 높은 사상예술성과 정서적공감력이 의의있는 생활형상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을 시사

해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쟁물창작에서 계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이 새롭게 탐구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진지하고 피타는 노력이 높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전쟁묘사에서 새로운 사상예술적경지가 개척되고 그 혁신성을 가져오게 한것은 소설문학의 주체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고무로 되고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한 탐구적노력이 앙양되는 과정에 전쟁물창작에서 이룩한 중요한 혁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발전하는 인민군용사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파고들어가서 혁명의식발전과정, 혁명가로 자라나는 산 인간의 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한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자라나는 과정, 정신세계의 변화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생활을 펼쳐보이고 전쟁을 생활과정으로 보여주는데서 일련의 창조적성과를 보여주었다.

중편소설 《돌파》(안동춘)와 그에 련이어 창작된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정기종)는 그 소재와 생활적내용의 특징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준엄한 전투정황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주인공들의 영웅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새로운 긍정적시도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돌파》는 주인공인 화력부관 리현무가 군의소에서 나온후 시력장애로 자기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불만을 가진채 점차 병기군관으로서 어떻게 자기 임무에 충직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말하자면 그가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 서야 할 위치는 전선이건 후방이건 따로 없다는 자각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자기가 가장 경멸하던 병기참고장 유선형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마지막까지 온갖 성실성과 책임성을 다하여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것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웅심깊이 펼쳐보이고있다.

《문제는 순박한 마음속에 깃든 충실성이다. 그의 이 정신은 어떤 노력으로 형성된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질화된것이다. 그 정신은 그라는 인간의 피며 숨결이었다. 신념이었으며 량심이었다.》

이것은 병기참고장 유선형이가 영웅적최후를 마친후 그의 집에 보낼 편지를 쓰고있는 주인공 현무의 심중의 토로이다.

소설은 주인공의 이러한 자각과정을 그 어떤 비상한 사건체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포탄수송과정에 발현되는 내면세계의 섬세한 개방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한 탐구적노력은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제2전선형성방침을 높이 받들고 적구종심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제4차작전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인민군용사들의 간고한 투쟁을 형상하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제2전선형성방침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주인공 류성우를 비롯한 인민군전사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중편소설 《돌파》에서 현무의 형상과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 류성우의 형상을 대비해볼때 그들의 군사적직무관계와 다른 인물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화려부관을 하다가 부상당하여 병기군관으로 복무하는 현무나 담가소대장, 정찰소대장으로부터 보병중대장으로 활동하는 류성우나 다같이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고마운 민주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전선에 나온 사람들이며 현무가 병기창고장인 유선형과의 관계속에서 형상되고있다면 류성우는 정치부중대장 엄기창과의 관계속에서 그려지고있다.

이처럼 주인공들이 걸어온 생활경위와 군사적직무 및 인간관계를 놓고보면 많은 공통성이 있지만 성격형상의 생동성과 심오성, 인간성격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조직의 치밀성, 묘사의 밀도에 있어서 일련의 차이가 있다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는 거기에 반영되는 생활영역의 다면적인 특성으로 하여 화수동포탄창고 습격전투와 《유엔도로》 기습전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적대적인물들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예리화되고있다면 중편소설 《돌파》에서는 일상적인 포탄수송과정에서 벌어지는 긍정인물들의 생활만이 형상되면서도 거기에서는 주인공의 심리축적과정 그리고 내부심리에 대한 묘사가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다.

물론 총체적으로 두 작품이 다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있지만 흔히 그중에서도 중편소설 《돌파》의 예술적감화력은 매우 강렬하다.

그것은 이 소설에서는 유선형의 영웅적최후장면을 전환점으로 하여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후시기의 생활과 그 이전시기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파고든것과 관련된다.

소설은 평범한 포탄수송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 발현되는 생활세계를 깊이있게 여러모로 파고들면서 감정조직을 잘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조국의 운명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전사는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하고 어디서나 성실성과 위훈을 빛내이며 자기 위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사건조직일면이 아니라 감정조직과 사건조직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애정선을 열렬한 조국애의 구체적인 발현으로서 성격발전에 적절하게 끌어들이고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는 점 등은 다 훌륭한 시도들이다.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은 특히 병사에게 있어서 열렬한 애국심의 구체적표현이다. 숭고한 조국애는 자기 고향과 향토, 동지들과 부모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주인공의 애정관계를 애국심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보여준 여기에 작품이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밝혀내고 그 성격을 선형화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두 소설에서는 다 같이 애정선을 조국애의 구체적인 발현과정으로 그려냄으로써 그것을 이야기줄거리에 밀착시켜 풍부하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으며 따라서 전쟁을 생활과정으로 펼쳐보일수 있게 하고있다.

중편소설 《돌파》의 주인공 현무와 그의 애인 윤소림무전소대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애정선과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 설정된 주인공 류성우와 그의 애인 정치공작대원 신은하간에 이루어진 애정선은 그러한 실례이다.

이 주인공들은 해방후 새로운 제도하에서 고종과 대학을 다닐 때 벌써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전쟁이 일어나자 모두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한길에 서있다. 그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애정은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때로는 오해하기도하고 때로는 일시 단념하기도 하나 어찌할수 없이 다시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혈연적인관계로 융합된다.

현무가 성실하고 용감한 군관인 유선형을 모욕하였을 때 그를 자기 과신에 찬 리해성도 아량도 없는 거칠고 차거운 인간으로 인정하고 다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번민에 휩싸이는 중편소설 《돌파》의 윤소림의 형상이나 희생적으로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은 은하가 생사기로운 헤매일때 한개분대만 때돌려도 후송할 가능성이 있는 정황에서조차 중대의 모든 힘과 력량을 새로 나타난 적의 기동련대의 차단에 돌리는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의 류성우의 형상은 혁명적투리관의 사상정신적바탕, 열렬한 조국애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묘사하는데서도 높은 예술적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전쟁묘사에서 특히 인물의 성격을 전형화하는 데서는 모든 인물들을 한본새로 두리몽실하게 그럴것이 아니라 개성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면서 그 성격들의 본질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주인공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그리는것은 모든 문예작품창작에서 다 필요하지만 전쟁묘사에서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고 할수 있다. 전쟁물에서는 분대나 소대, 중대와 같은 일정한 구분대안에서 하나의 군사규률과 교범에 의하여 움직이는 여러명의 긍정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럴수있기때문에 인물들의 개성적인 특성을 옹계 포착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전쟁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는데서나 전반적인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이다.

중편소설 《돌파》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어딘가 정규군관이라기보다 수더분하고 끈진 농민의 냄새가 향시 풍기는, 매사에 신중하고 세심한 병기부과장 유선형, 그가 강직처벌을 받았을 때 몹시 피로와하면서 사단장에게까지 가서 자기 잘못을 제기한 결국하고 강직한 병기과장 김형식, 이들은 다같은 병기부문에 복무하는 군관들이지만 얼마나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적특징을 가진 산 예술적개성으로 안겨오는가.

그런가 하면 유별나게 굵은 목청만 아니면 체소하고 병약해보이기까지 하여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의 형상 역시 그 얼마나 성격의 특성에 맞게 개성적으로 그렸겠는가.

소설들은 인물성격들의 예술적 일반화에서 소설의 뒤생활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생활적계기들을 옹계 설정하고있다.

중편소설들은 인물들의 뒤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풍부한 예술적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장중편소설들에서는 주인공의 뒤생활이 대체로 등장인물들의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과거생활이나 내면생활 그리고 인물들의 인간적면모를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드러내는 생활세부 등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이러한 생활들은 모두가 주인공들의 사회계급적토대를 밝히고 성격발전에 론리적타당성을 담보해주는 생활적바탕을 이루게 되는것으로하여 성격의 전모를 다면적으로 보여주는데서 효과적인 작용을 하는것이다.

중편소설 《돌파》와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 주인공들의 뒤생활은 과거생활과 현재생활을 유기적련관속에서 보여주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중편소설 《돌파》는 주인공의 현재생활을 전개시켜 보여주는 과정에 어느사이에 넘어가는지 그 계선을 쉽게 갈라낼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과거생활을 보여주다가 그것이 다시금 사소한 무리와 혼돈이 없이 감쪽같이 현재생활과 높은 묘

사적밀도를 가지고 맞물려진다.

바로 이렇게 인물선에 주인공의 뒤생활을 밀착시켜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든것으로 하여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리현무와 학창시절의 벗인 정찰소대장 태룡이와의 혁명적우정도 인상깊게 그려낼수 있었으며 주인공과 그의 애인 윤소림무전소대장간의 애정선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준엄한 전쟁시기 청춘남녀들의 혁명적인 애정륜리문제를 웅심깊게 밝혀낼수 있었다.

뒤생활을 인물선에 맞물리어 전개시키는데 기초하여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려는 지향은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떡돌같은 아들을 고향에 두었다는 류문기전사의 과거생활, 류성우중대장이 신은하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해방후생활, 황히세소대장의 지난생활 등은 다 그러한 실례들이다.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생활의 자연스러운 배합은 서로 다른 계급적출신과 생활경로를 가지고있으나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형상을 더욱 풍부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소설에서 묘사된 뒤생활은 생활세부에 의해서 그 생동성과 심오성이 부각되고있다.

형상이 생동하고 진실하며 생활의 본색을 전형적으로 담고있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생활세부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려내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있다.

작품에서 하나의 생활세부도 소홀히 하거나 조잡하게 그려낸다면 전반적형상에 큰 손실을 주게된다.

두 소설들에서는 력사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생활의 본색에 맞게 세부를 선택하고 그것을 작품의 기본흐름에 조화되도록 조직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섬세한 심리정서적변화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었다.

중편소설 《돌파》에서 주인공과 그의 애인 윤소림무전소대장간에 이루어지는 애정륜리문제의 발단은 닭알바구니세부에 의하여 더욱 형상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 그것은 전쟁의 시련속에서도 활짝 피어나는 그들의 인연이 어떤 보람찬 삶에 뿌리박고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런가 하면 유선형병기창고장이 가지고있던 수첩은 그자신의 인간됨됨을 얼마나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것을 목격하고 성실한 전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명령을 받든지 묵묵히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위치가 전사가 서야 할 위치라는것을 자각하는 주인공의 심리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과정은 또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실한가.

생활세부의 이러한 형상적기능은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긍정인물과 함께 적대적인물을 형상한 이 소설에서 생활세부는 관이한 두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고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중대장으로 임명받고 새로운 작전구상에 골몰하다가 찬바람에 날리어 발치에 떨어진 가랑잎을 우정 걸음을 늦추면서 장화발로 꼭 밟아버리는 류성우의 형상과 어두운 복도 한구석에 말라버린 가랑잎 하나가 어슬렁거리자 남달리 신앙심이 강한것으로 하여 그것을 불행의 전조처럼 느끼는 스테이지의 형상은 그 어떤 외적인 사건체계를 구태여 추구하지 않아도 그것이 커다란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새롭고 특색있는 생활세부를 통하여 생활을 섬세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비결이 있다.

생활세부를 적중하게 리용하는것과 함께 이 소설들에서는 병사들의 계급적출신과 군중, 병종 부대에 따르는 그들의 사상감정과 성격적특질을 옹골게 형상함으로써 전쟁을 생활과정으로 보여주는데서 일정한 형상적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인민군대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군사적군중조직이다.

인민군대의 모든 활동과 투쟁은 사회계급적치지와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인민군용사들의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는 구체적인 실천행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다. 그것은 결코 전설적이며 초자연적인 그어떤 비상한 행위나 기질에 있는것이 아니라 계급적출신에 따르는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고상한 사상과 신념,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에 있는것이다.

병사들의 계급적출신에 따르는 사상감정은 병종, 군중 부대에 따르는 병사들의 성격적특질에 굴절되어 표현된다.

인민군전사들의 생활은 계급적출신관계뿐아니라 군중, 병종 부대에 따라서도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같은 군종안에서도 보병과 땅크병, 포병과 공병에 따르는 자기 고유의 생활이있고 보병종을 기본무기로 하는 보병은 전투기술기재를 다루는 땅크병의 생활과 다르다.

포탄수송과정과 화수동포탄습격전투를 소재로한 중편소설 《돌파》와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 전투장면과 사건을 위주로 하거나 그자체를 그리는데 머문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사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낸것은 각이한 계급적출신관계에 기초한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과 군사행동을 생동하게 형상한것과 관련된다.

작품들에서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량만으로 들끓는 주인공들의 생활은 자기 병종에 따르는 성격적특질 특히 그들이 만들어 쓰는 결말들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으며 이것은 곧 병사들에게만 고유한 생활을 현실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중편소설 《돌파》에서 박격포를 《굴뚝》으로 포

알을 《감자》로,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에서 《통잡》이란 말을 《말뚝잡》, 《소제대잡》등으로 표현한 언어형상은 인민군용사들의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레증으로 된다.

최근에 창작된 전쟁물에서 보여주고있는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당의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전쟁주제문학의 혁신적면모를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일부전쟁물에서 찾아볼수 있는 부족점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장편주설 《태백산줄기》는 인간관계를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설정하고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일부 생활적 타당성문제를 환기시켜주고있다.

소설에서 신은하와 진호, 조성길의 호상관계를 분석해보면 후퇴과정에 정치공작대원 신은하가 서울에서 방랑걸식하던중 인민군대에 입대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진호소년, 평범한 산림학자 조성길과 일행이 되여 그들에게 사상정신적영향력을 주는것으로 되여 있다.

나이와 생활경위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후퇴의 길에서 점차 서로 리해하고 믿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충돌한다. 식량을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한 진호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성길로인의 배낭속에 들어있는 원고들과 소책자들을 쏟아버린다. 이로 해서 소년과 다투게 된 로인은 여태까지 보관해오던것을 한갓 국거리도 못된다고 하자 그것을 허용하고말았으며 그러자 은하가 과학적신념을 버릴수 있는가고 충고를 주었다는것이다.

이들의 호상관계를 볼 때 진호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성길로인의 원고를 쏟아버렸다는 것과 한갓 국거리도 못된다는 소년의 말에 쉽게 동감을 표시하는 조성길로인인 행동은 진실치 못하며 인위적인 감을 많이 준다. 때문에 그에 대해 과학적신념을 론하는 은하의 성격이 응당한 높이에서 형상될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왜소화될수밖에 없었다. 정치공작대원으로서의 신은하의 영향력을 강조해보려는 의도밑에 설정된 이런 인간관계는 범박하고 도식적인 감을 자아내고있으며 결국 은하의 성격을 유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다름아닌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한 본질적속성과 그에 의해서 규정된 합법칙적존재방식이 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살고있는 같은 계급, 계층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을 담고있는 동시에 그자신에 고유한 개성적이고 특징적인 측면을 가지고있다. 이 두측면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 그 인간의 본질을 이루며 그가 창조하는 생활의 합법칙성을 이룬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고유한 성격론리로 된다. 이 성격의 론리는 작가의 주관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이며 이에 맞게 산 인간의 사상감정세계를 그려나갈 때 형상은 진실해지고 따라

서 전형적인것으로 된다.

소설에서 생활의 론리, 진실성이 부족한 형상은 하나의 생활일화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소설에는 한밤중에 잠자던 한개 중대가 넘는 전사들이 자기의 약혼자-리호석을 찾아달라는 한 여성군의의 간청에 응해나섰다는 일화가 있다.

신은하와 김만복전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삽입된 이 일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군대가 든 집을 찾아와서 자기 애인을 찾는 여성군의와 잠자던 중대전사들이 그에 호응해나섰다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너무 낮은데 놀라게 된다. 이것은 인민군대의 전형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생활적진실성이 부족한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진실성을 잃고 신뢰감을 잃은 형상은

아무리 그자체가 화려하고 훌륭하게 채색된것이라고 하여도 독자들을 매혹시킬수 없다. 하나의 일화를 그려도 그속에서 인물의 높은 정신세계가 드러나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경험은 생활일화가 주인공들의 성격적풍모를 밝게 조명해주는 의의있는 세부로 되지 못할 때 주인공들이 매력을 잃어버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 부족점이 있으나 우리의 전쟁물소설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적미를 깊이있게 그리며 그들의 그지없이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다양한 심리묘사의 수법으로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광부의 손

엄효은

밤일 마치고 돌아와
단잠에 든
아버지의 손 어루만지니
부드러운 촉감
애모뿐 정이어

눈앞에 삼삼해라
가락마다 감은 형질에
피자육이 늘 숨배어있었고
갈라터져 거뭇던
지난세월 아버지의 이 손

내 어릴 때
아버지는 이 손으로
나의 어린 불을 끌어주었지
하건만 철없던 그 시절
거칠던 손이 싫어
도리질하며 얼굴 찡그렸지

나라없던 설음을 안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한덩이 두덩이 쇠돌을 까며
헌 짚신처럼 해진 손이건만
귀여운 딸자식의 도리질앞에서
가슴 쓰라림이 얼마나 컸으랴

세월은 흘러

착정기며 굴착기가
콘베아며 파쇄기가...
광부의 손을 대신하는 그 나날들에
나는 미처 몰랐구나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달라질줄

딸자식의 작은 창자 하나 채워주지 못해
무진 애를 쓰며
너무도 거칠어졌던 손
오늘엔
나라의 큰 살림 부유케 하면서도
굳은살 풀리어 부드러워진 이 손

내 이젠 다 자랐건만
이 불을 다시 끌어준다면
다신 도리질 있으랴
창조의 주인 된 권리가
다 쥐여진 소중한 이 손

아버지의 얼굴엔
잠결에도 느슨한 미스가 피고
나는 아버지의 손을
가슴에 꼭 껴안네
지난 세월이 주었던 피멍을
행복한 세월속에 다 풀어준
고마운 당의 손길도 뜨겁게 느끼며

안주를 알려거든

한 호

당속에 보화 많은고장이라
해마다 찾아오는곳이여서
내 홀로도 막장에 들어갈듯싶더니
갱깊이 들어서니 길조차 모르겠네

전차에서 내리면 눈앞이던 막장이
조국의 발걸음을 더해주며 깊숙이 들어가고
지난해 찾았던 탄발들은
어느새 다 캐내고 이사를 갔네

새 굴길은 갈래갈래
새탄장은 늘어나고
탄부들은 낯익은 얼굴들이여도

일손에선 불이 일고...

한해에 한번 와서야
안주를 내 알수 있으랴
당의 믿음에 불을 안고 나가는
탄부들의 그 마음을 다 알수 있으랴

차판 가득 석탄을 실어보내며
전진하는 조국의 속도를 가해주는 안주를 알려거
든
날마다 갱깊이 들어와봐야 알겠네
탄부들과 휩쓸려봐야 알겠네